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사

다원예술

- I. 1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결과
- II. 2차 연도 워킹그룹 운영 개요
- III. 2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내용
- IV. 연구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담당부서

Tel

작성

연구

| 기획조정팀 / 나혜영 수석연구원

| 061)900-2143

| 김미교, 김윤희, (주)케이스탯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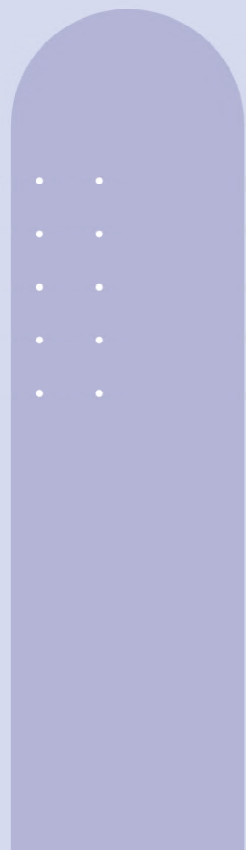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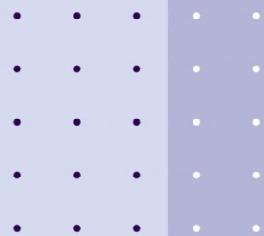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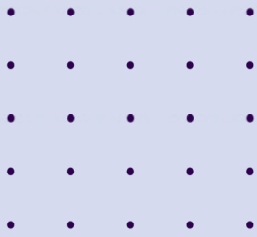
| 다원예술 워킹그룹

· 연구 : 김미교, 김윤희

· 워킹그룹 : 배남우, 조성주, 조화연, 김해래, 노경택,
차진엽, 천민권, 김웅현, 정진새, 김지연

· 자문 : (개념화) 강수현, 이준, 장재호, 박성선
(정보화) 나은경, 강지용





Contents

I. 1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결과

제1절 1차 연도 연구 개요	3
제2절 1차 연도 연구 방법	4
제3절 1차 연도 연구 결과 요약	7

II. 2차 연도 워킹그룹 운영 개요

제1절 2차 연도 연구 개요	31
제2절 워킹그룹 구성	33
제3절 워킹그룹(공론장, 자문) 연구진행 과정	34

III. 2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내용

제1절 지원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조사	37
제2절 창·제작발표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45
제3절 플랫폼 및 기획·발굴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57
제4절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70
제5절 내부 세미나 및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논의	78

IV. 연구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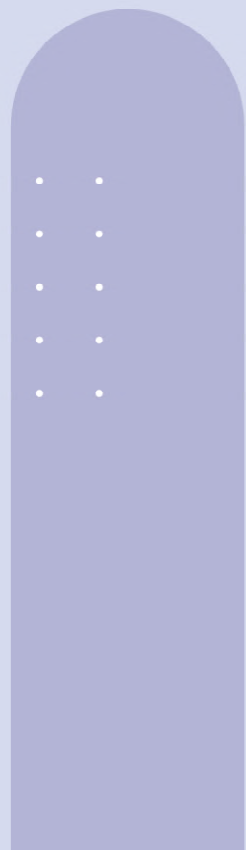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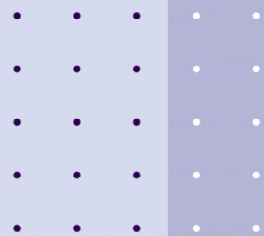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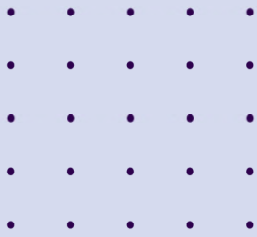
제1절 분석 결과	97
제2절 중장기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101



01

1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결과







제1절 1차 연도 연구 개요

1. 연구 목적 및 취지

가. 다원예술의 현재 가치 탐색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 모색

- * 다원예술의 현재 가치와 미래 방향성을 탐색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핵심 목적으로 설정함
- *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나. 예술 생태계 내 다원예술의 범위와 공공기관의 역할 구체화

- * 다원예술이 예술 생태계 내에서 차지하는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상호작용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취지로 삼음
-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다원예술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둠

2. 주요 연구 질문

가. 예술 생태계 안에서 다원예술의 범위와 정의

- *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다원예술의 정의는 무엇인가
- * 기성 장르와 다원예술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
- * 다원예술을 평가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 및 척도는 무엇인가

나. 예술 생태계 안에서 다원예술의 지속가능성 요인 및 지원의 필요성

- * 다원예술의 지속 가능한 요인은 무엇인가
- * 다원예술 향유 방식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2절 1차 연도 연구 방법

1. 다원 연구협의체 구성

- * 연구 활동 기간: 2024년 7월 24일 ~ 2024년 12월 26일
- * 연구협의체는 외부 전문가 3인, 내부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됨

[표 1] 1차 연도 연구진 구성

구분	구성
외부 위원	- 강수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겸임교수) - 이준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부교수) - 장재호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내부 위원	- 김윤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전담심의관) - 나혜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석연구원)
워킹그룹 및 조사 진행 담당	- (주)케이스탯리서치

2. 다원 연구협의체 회의 운영

- * 총 6회의 연구협의체 회의와 1회의 킥오프 미팅을 개최함

[표 2] 1차 연도 연구협의체 회의 진행 경과 및 내용

연번	회의명 및 일시	주요 논의 내용 및 참가자
1	연구협의체 회의	- 연구협의체 1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2	연구협의체 회의 (24.06.21)	- 연구협의체 2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3	연구협의체 회의 (24.08.01)	- 연구협의체 3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4	연구협의체 회의 (24.09.04)	- 연구협의체 4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강수현 박사
5	연구협의체 킥오프 미팅 (24.09.25)	- 연구협의체 킥오프 미팅 (인터뷰 그룹 선정 등)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장재호 교수, 이준 교수, 강수현 박사
6	연구협의체 회의	- 연구협의체 5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강수현 박사
7	연구협의체 회의 (24.12.02)	- 연구협의체 6차 회의 - 참가자 :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혜영 수석연구원 (외부) 이준 교수, 장재호 교수, 강수현 박사



3. 인터뷰(FGI·IDI) 대상 그룹 구성

- * 조사기간: 2024년 10월 14일(월) ~ 2024년 12월 26일(목)
- * 총 5개 그룹(교육, 창작/기획, 확산/매개, 향유, 공공지원정책)과 12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어 표적집단면접(FGI) 및 개인심층면접(IDI)을 진행함
- * 인터뷰 대상자는 총 47명임

[표 3] 1차 연도 인터뷰 대상 그룹 구성

그룹	소그룹	인터뷰 인원
총 5그룹	총 12개 소그룹	총 47명
[그룹 1] 교육	대학	5명
	중고등	2명
[그룹 2] 창작/기획	탈장르	9명
	공연중심	8명
	전시중심	4명
	기획평론	4명
	기획정책	5명
[그룹 3] 확산/매개	공간 운영 - 동시대성 중심	3명
	공간 운영 - 기술 융합 중심	3명
[그룹 4] 향유	열성관객	2명
[그룹 5] 공공지원정책	수도권	1명
	비수도권	1명

4. 인터뷰(FGI·IDI) 진행

- * 총 22회의 인터뷰 세션이 온라인(Zoom) 및 오프라인(예술가의집 세미나실, 영상회의실 등)을 병행하여 진행됨
- * 각 인터뷰 세션에 연구협의체 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심층 진단을 수행함
- * 인터뷰 내용은 이후 녹취록으로 정리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FGI·IDI 기초분석 보고서가 작성됨

[표 4] 1차 연도 인터뷰 진행 경과 및 내용

그룹	소그룹	일시	장소	주요 논의 내용
[그룹 1] 교육	G1. 대학	2024년 11월 11일(월), 15:00 ~ 17:00	온라인 Zoom	다원예술의 의미와 지속성, 교육 현황 및 다원적 사고 형성, 교육의 차이 및 발전 방향 등
		2024년 11월 14일(목), 10:00 ~ 12:00	온라인 Zoom	
	G2. 중고등	2024년 11월 29일(금), 10:30 ~ 12:30	온라인 Zoom	
[그룹 2-1] 창작	G1. 탈장르	2024년 11월 1일(금), 10:30 ~ 12:00	온라인 Zoom	다원예술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기존 장르와의 차별성, 장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강화 방안 등
		2024년 11월 6일(수), 14:00 ~ 16:00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2024년 11월 25일(월), 10:30 ~ 12:30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온라인 Zoom	
		2024년 10월 28일(월), 14:00 ~ 16:00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G2. 공연중심	2024년 10월 28일(월), 14:00 ~ 16:00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2024년 11월 14일(목), 16:00 ~ 18:00	온라인 Zoom	
		2024년 12월 13일(금), 13:00 ~ 15:00	온라인 Zoom	
		2024년 11월 25일(월), 10:30 ~ 12:30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G3. 전시중심	2024년 11월 12일(화), 17:00 ~ 19:00	온라인 Zoom	
		2024년 11월 19일(화), 15:30 ~ 17:30	온라인 Zoom	
		2024년 11월 28일(목), 13:00 ~ 15:00	온라인 Zoom	
[그룹 2-2] 기획	G1. 기획평론	2024년 11월 11일(월), 10:00 ~ 12:00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다원예술의 의미와 지속가능성, 기존 장르와의 차별성, 장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및 강화 방안 등
	G2. 기획정책	2024년 10월 14일(월), 14:00 ~ 16:00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다원예술의 실효성, 지방자치체의 장르 지원 및 정책적 필요성 등
		2024년 10월 18일(금), 10:00 ~ 12:00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그룹 3] 확산/매개	G1. 공간 운영 - 동시대성 중심	2024년 10월 30일(수), 10:00 ~ 12:00	예술가의집 세미나3실	다원예술의 의미, 문화 공간 운영, 예술 - 관객 간 접점 형성,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등
	G2. 공간 운영 - 기술 융합 중심	2024년 11월 04일(월), 10:00 ~ 12:00	온라인 Zoom	다원예술 정의, 플랫폼/공간 운영,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방안, 관객 참여, 지역사회 연계의 필요성 등
[그룹 4] 향유	G1. 열성관객	2024년 12월 10일(화), 14:00 ~ 16:00	온라인 Zoom	관람 참여 방식, 관람 계기, 경험, 몰입, 예술지원의 역할 등
[그룹 5] 공공지원정책	G1. 수도권	2024년 11월 27일(수), 14:00 ~ 16:00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컨퍼런스룸	다원예술 지원체계와 정책, 예술가와 창작 환경 지원, 다원예술 지속가능성 등
	G2. 비수도권	2024년 12월 26일(목), 14:00 ~ 16:00	온라인 Zoom	



제3절 1차 연도 연구 결과 요약

1. 종합 결과 요약

(1) 주요 생태계 이슈 종합

- * 다원예술 생태계의 주요 이슈는 개념 정의, 지원체계, 공간 및 인프라, 정책, 관객 접근성 등 생태계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 다원예술의 정의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공공지원체계마저 단기·결과물 중심으로 운영되어 과정 중심의 실험적 창작을 지속하기 어려우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도 심각한 수준임
- * 전용 창작 공간과 지속 가능한 협업 환경의 미비, '다원예술'이 정책적 용어로 고착됨에 따른 창작 자율성 위축 우려, 그리고 관객 접근성 및 아카이빙 시스템의 부재까지 더해져 다원예술 생태계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확인됨

[표 5] 주요 생태계 이슈 종합

이슈 유형	주요 내용
개념 정의 모호성	다원예술의 범위와 정의가 불명확하여 창작자·심사위원·지원기관 모두 혼란을 겪으며, 순수예술로 분류되지 못하는 '기타 장르의 피난처'로 인식될 우려 제기
단기·결과 중심 지원	공공지원이 1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 및 최종 결과물 발표 중심으로 운영되어, 연구·실험·과정 중심인 다원예술의 창작 지속성 저해
지역 격차 및 인프라 부족	다원예술 창작을 위한 실험 공간, 기술지원, 협업 네트워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은 교육 인프라·전문 인력·공간·예산이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공간 및 협업 환경 미비	실험적 창작을 위한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협업 과정에서의 역할 불균형, 기여도 평가 부재, 지속 가능한 협업 지원사업 미비 등의 문제 공존
창작 자율성 위축	'다원예술'이 경직된 정책적 용어로 고착되며 지원 획득을 위한 창작으로 변질되고, 특정 사회적 메시지(노동, 젠더 등)를 담은 작업은 지원에서 다소 제약이 따르는 경향 발생
관객 접근성 및 아카이빙 부족	정보 파편화 및 홍보 부족, 빠른 예약 마감, 체험 운영 인력 미흡으로 관람 접근성이 낮으며, 공연·전시 종료 후 작품을 재관람하거나 공유할 아카이빙 시스템 부재

(2) 개선 방향 종합

* 공통적으로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협업 중심으로의 지원 패러다임 전환, 단발성 지원에서 중장기 지원체계로의 전환, 수도권 집중에서 지역 분산으로의 구조 개선 등이 다원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도출됨

[표 6] 개선 방향 종합

개선 영역	주요 내용
교육	- 과정 중심·협업 기반 교육환경 마련 - 자유학기제 활용 교사 협업 시간 확보 -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구축 - 비수도권 교육 인프라 및 관람 기회 확대
창작지원	- 장기·유연한 지원체계로 전환 - 연구형·기술 융합형 프로젝트 지원 포함 - 팀 단위·장기 협업 프로그램 마련 - 사회적 메시지 작업 지원 제약 방지 - 해외 진출 지원사업 확대
공간·인프라	- 실험적 창작 전용 공간 확충 - 비전통 공간 활용 시 행정·안전 지원체계 마련 - 지역 예술 공간 공공지원(임대료·인력) 강화 - 협업 가능한 환경 조성
평가·심사 체계	- 과정 중심·협업 기여도를 반영한 평가 기준 마련 - 심사위원 기준 통일 - 결과물 발표를 강제하지 않는 연구·네트워킹 지원사업 도입
정책 연속성·거버넌스	- 담당자 변경에도 사업이 지속되는 제도 구축 - 다원예술소위원회 등 논의 기구 재도입 -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중복·사각지대 해소 - 지역 거점도시 연계 지원 강화
아카이빙·비평	-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공공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플랫폼 구축 - 기록·비평·연구 지속을 위한 안정적 지원 - 전시·공연 종료 후 녹화본 제공 및 온라인 보존 시스템 마련
관객 접근성	- 전시·공연·워크숍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마련 - 체험 운영 인력 확충 - 몰입 환경 조성 - SNS 등 온라인 홍보 역량 지원



2. 그룹별 결과 - [그룹1] 교육

가. 대학 교육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기존 예술 장르(예: 회화, 조소, 디자인 등)와 구분되는 다학제적 특성을 지니나, 대학 내 커리큘럼은 여전히 전통적 장르 구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 학문적 정의가 어렵고, 다원적 사고를 교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한계가 있음
- * 공대나 융합기술 기반의 학교에서는 오히려 다원예술 교육이 기술 기반으로 운영되나 예술적 기본기나 감수성은 부족하다는 우려가 존재함

[표 7] 교육(대학)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교육의 한계	다원예술과 전통 장르 중심 교육의 불일치
개념의 모호성	명확한 학문적 정의가 어려워 다원적 사고에 대한 체계적 교육 난항
창작의 방향	기술 중심 융합교육의 예술성 부족 우려

(2) 생태계 이슈

- * 실험적이고 협업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원 역량 강화와 함께, 철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교육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 * 한국의 성과 중심적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결과보다 과정 중심인 다원예술을 학생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 비수도권은 교육 인프라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교육 격차가 발생하며, 지역 예술가들이 수도권과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임
- * 학생 개별 역량에 따른 자율적 접근이 많아 커리큘럼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실험적 교육 제공 어려움

[표 8] 교육(대학)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교원·역량, 제도적 지원 필요	실험적·비판적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교육 구조적 한계	성과 위주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과정 중심의 다원적 실험 수용 곤란
지역 간 불균형	비수도권 인프라·전문 인력 부족 및 수도권 대비 구조적 경쟁력 열위
교육 운영의 일관성 한계	개별 역량 중심 운영에 따른 커리큘럼 일관성 부족

(3) 개선 방향

- * 다양한 장르 및 전공 간 협업할 수 있는 외부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결과물보다 창작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함
- * 기술적 결합이나 퍼포먼스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사회적 영향력과 협업 과정의 창의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평가 기준이 요구됨
- * 지역 예술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과 함께, 지역의 특수한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함

[표 9] 교육(대학)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교육 환경 개선	장르·전공 간 협업 프로젝트 확대 및 창작 과정 중심 환경 조성
평가 기준 다각화	단순 기술·퍼포먼스 위주 평가 탈피, 사회적 영향력과 협업 창의성 반영
지역 균형 지원	비수도권 예술가 체계적 지원 및 지역 특수성을 살린 프로젝트 활성화

나. 중고등 교육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특정 장르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체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탐구하고 예술 자체의 조건을 드러내는 태도로 정의됨
- * 다원미술(예술)은 비주류 미술로 인식되어 공교육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주로 회화·조각 등 전통적인 매체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추가적인 노력이 있어야 가르칠 수 있음
- * 학생들은 다원예술을 기존 미술과 다르게 인식하며, 탈장르적 개념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음

[표 10] 교육(중고등)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개념의 정의	장르나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매체의 특성과 예술 자체의 조건을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태도
공교육 내 입지	비주류 미술로 인식되어 체계적 교육이 어려우며, 교사의 추가적 노력이 필수적임
학생의 인식 한계	기존 미술과의 차이로 인해 탈장르적 개념 등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 난항



(2) 생태계 이슈

- * 다원예술이 기술 융합 위주로만 해석되는 경향이 있어, 예술 자체에 대한 탐구로서의 다원예술 본질과는 괴리가 있다는 진단이 제시됨
- * 다원예술 생태계가 서울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 격차가 심하며, 지방 학생들도 체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함
- * 교과 간 융합 교육이 중요하지만 교사 간 소통과 시간 조율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 교과서 내 다원예술 관련 내용이 매우 적고 가이드라인마저 부족하여, 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업을 계획해야 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표 11] 교육(중고등)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본질과의 괴리	예술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 기술 융합 위주로 편향 해석되는 경향
지역 격차 심화	서울 중심의 생태계 고착화로 지방 학생들의 다원예술 체험 및 접근성 한계
융합 교육의 난항	교과 간 융합 필요성 대비, 교사 간 소통 및 시수 조율의 현실적 장벽 존재
가이드라인 부재	교과서 내용 빈약 및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부재로 교사의 수업 기획 부담 가중

(3) 개선 방향

- * 다원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외부 관람 경험을 확대해 관람층을 두텁게 형성하고, 이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의 촉발 효과 및 자연스러운 교육 기회 확대를 이끌어내야 함
- *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모여 논의할 수 있는 협업 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시스템 개선이 요구됨
- * 교사들이 역량에 맞춰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마련을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함

[표 12] 교육(중고등)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관람 경험 확대	외부 관람 기회 확대를 통한 관람층 형성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현장의 촉발 유도
협업 시스템 개선	자유학기제 등을 활용한 교사 간 융합·협업 논의 시간의 의무적 확보
교육 기반 조성	다원예술 교육과정 커리큘럼 가이드라인 수립 및 교사 연수 프로그램 신설

3. 그룹별 결과 - [그룹2-1] 창작

가. 탈장르

(1) 분야 현황

- * 기존 예술 장르와 기술의 융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감각 경험의 확장,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분석 기술의 활용, 연극·퍼포먼스·영상·기술의 복합적 결합 및 융합 등 다양한 시도가 활발함
- * 과학/게임과 예술이 결합된 실험적 프로젝트 및 관객이 개입하는 사회 참여형 예술이 다원예술의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음
- * 환경·기후변화, 젠더 이슈와 기술을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탐구하는 프로젝트가 증가하는 추세임
- * 단, 사회적 이슈를 다룰 경우 정치적 논란 등을 이유로 공공 지원사업에서 다소 제약이 따르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표 13] 창작(탈장르)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과학·기술·게임 융합	감각 경험의 확장,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분석 기술 등 실험적 융합 프로젝트 활성화
새로운 흐름 대두	과학/게임 결합형 프로젝트 및 관객이 직접 개입하는 사회 참여형 예술 부상
사회적 담론 결합	환경·기후변화 및 젠더 이슈 등 본질적인 사회적 문제를 기술을 통해 탐구하는 경향 증가
지원 제약 사례 한계	예술이 사회적(정치적) 이슈를 다룬다는 이유로 공공 지원사업에서 다소 제약이 따르는 현상

(2) 생태계 이슈

- * 다원예술은 특정 장르의 결합이 아닌, 정해진 틀 없는 융합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예술'이라는 인식이 공유됨
- * 지원체계가 다원예술을 온전한 장르로 반영하지 못하며, 기존 장르의 결과물 위주 심사 기준이 과정 중심인 다원예술과 맞지 않아 지원이 번번이 제한됨
- * 특히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연구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전시나 공연 형태가 아니면 지원받기 매우 어려운 실정임

[표 14] 창작(탈장르)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과정 중심의 예술	정해진 틀 없는 융합을 통해 예상치 못한 순간을 창출하는 '과정' 자체가 예술의 핵심
지원체계의 한계	기존 장르 위주의 틀로 인해 다원예술의 특수성을 하나의 독립된 영역(장르)으로 포용하지 못함
심사 기준의 불일치	결과물 중심의 기존 심사 기준으로 인해 과정 중심의 다원적 실험 지원에 제약 발생
연구형 프로젝트 소외	기술·예술 결합 작업이 늘어남에도, 결과물이 없으면 연구 기반 프로젝트는 지원 난항



(3) 개선 방향

- *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연구형 프로젝트를 온전히 수용하고, 다원예술의 실험적 과정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단기 위주를 벗어난 장기적이고 유연한 지원체계가 필요함
- * 환경 및 사회적 이슈를 다룬 다원예술이 배제되지 않도록 개방적이고 장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됨
- * 다원예술의 핵심인 '연구·실험의 과정'과 타 전공 전문가와의 '협업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 기준 도입이 필수적임
- * 지역 기반 예술 활동은 단기 성과가 아닌 커뮤니티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이 핵심이므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구조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표 15] 창작(탈장르)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연구·실험 지원 유연화	기술+예술 결합 연구형 프로젝트 지원 및 단기 위주를 탈피한 장기적/유연한 지원체계 구축
사회적 담론 포용	환경·사회적 이슈를 다룬 예술에 대한 개방적·맞춤형 지원
과정·협업 평가체계	결과물 위주 평가를 탈피, '연구·실험 과정' 및 '협업'을 반영하는 기준 도입
지역 거점 지속 지원	단기 성과가 아닌 지역 커뮤니티와의 장기적 관계 형성을 존중하는 구조적·지속적 지원 마련

나. 공연중심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특정한 장르가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되며 경계를 확장하는 유동적이고 틀을 깨는 새로운 개념으로 자리 잡음
- * 무용과 VR 기술의 융합, 연극과 과학기술의 결합(관객 개입 및 실시간 소통), 사운드와 공간의 연계 등 새로운 형태의 창작 방식이 증가함
- * 현대무용의 공간·미디어 활용, 재개발 지역 및 특정 공간을 활용한 퍼포먼스, 3D 스캔을 통한 장소 특정적 공간 기록 등도 활발하게 이루어짐

[표 16] 창작(공연중심)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개념의 확장	특정 장르에 갇히지 않고 경계를 허무는 유동적이고 틀을 깨는 창작 방식으로 진화
기술 융합 창작	매체와 기술이 연계된 시도 활발
공간 특정적 작업	비전통적 장소 기반 작업 증가

(2) 생태계 이슈

- * 기존 예술 장르의 보수적 인식으로 인해, 다원적 실험이 장르로서 온전히 자리 잡고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임
 - 다원예술이 제도적으로 정의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 시 창작의 자유로움보다 특정한 틀과 형식에 스스로를 맞춰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발생함
- * 지원사업이 기존 장르 중심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기술 융합(VR/AR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장르 간 경계가 모호해 지원 기준의 혼란을 겪음
- * 협업이 필수적인 장르임에도 단발성 프로젝트 중심이라 지속적인 협업 유지가 어려우며, 특정인(안무가 등) 중심을 넘어 협업자(사운드, 영상 등)의 기여도를 동등하게 평가할 시스템이 부재함
- * 지원이 1회성에 그쳐 후속 프로젝트로 이어가기 어려우며, 특히 쿼터, 노동, 젠더 등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작업이 공공지원 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음
- * 관객 참여형 등의 실험적 공연을 위한 전용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극장이 아닌 옥상·공터 등 비전통적 공간을 활용하려 할 때 행정적 제약 및 안전 문제로 어려움을 겪음

[표 17] 창작(공연중심)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인식 및 제도적 한계	기존 장르의 보수적 시선 및 지원사업의 획일적 틀(제도) 맞추기 요구로 인한 창작 제약
지원 기준의 혼란	기존 장르 위주의 체계로 인해 기술 융합 수용의 한계 및 경계 모호성에 따른 혼란 가중
협업·후속 지원 부재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지속적 협업 단절, 협업자 기여도 평가 시스템 및 후속 지원 미비
사회적 담론 제약	정치적/사회적 메시지를 다룬 작업이 공공지원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 발생
물리적 공간의 제약	다원예술 전용(실험적) 공간 부족 및 비전통적 외부 공간 활용 시의 진입 장벽 존재

(3) 개선 방향

- * 다원예술의 변화와 모호한 경계 특성을 반영하여, 획일화된 기준이 아닌 장르별 특수성을 아우르는 명확한 기준과 유연한 평가 방식 마련이 필요함
- * 단기·개인 중심 지원을 탈피해 장기적인 협업을 유지할 수 있는 팀 단위 지원 구조 및 과학-예술 간 장기 협업 연구 프로그램 도입이 요구됨
- * 창작자들이 행정·안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다원예술 전용 창작 공간 및 전통 공연장 외 비전통적 실험 공간에 대한 지원 확대가 절실함
- * 기술 융합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문 장비 및 기술 연구·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다원예술의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관객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병행되어야 함



[표 18] 창작(공연중심)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평가 기준 유연화	다원예술의 유동성과 장르별 특수성을 인정·포용하는 유연하고 명확한 심사/평가 기준 확립
장기·팀 단위 지원	팀 단위 협업 지원 및 예술-과학기술 간 장기 연구 프로그램 신설
실험적 공간 지원	전용 창작 공간 확충 및 비전통적(야외, 대안공간 등) 공간 사용을 위한 행정 지원 확대
교육·인프라 및 대중화	전문 장비/기술 연계 및 교육 지원 강화, 관람층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프로그램 신설

다. 전시중심

(1) 분야 현황

- * 단일 장르만으로는 작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워, 모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다원예술 장르에 진입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됨
- * 다원예술에서 미디어 작업은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가며 다양한 매체를 자연스럽게 융합하는 추세이고, 협업과 기술·웹을 활용한 창작 방식이 중요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 * 최근 예술 장르의 융합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문학의 경우는 다른 장르와 융합 시 문학적인 방식보다는 타 장르(시각 등) 전시의 부가적인 요소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표 19] 창작(전시중심)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다원예술 진입 계기	단일 장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작가의 메시지와 모든 내용을 포괄하기 위해 다원예술 선택
창작 방식의 변화	미디어 작업의 필수 요소화, 다양한 매체의 자연스러운 융합 및 기술·웹 활용 협업 증가
장르 융합의 쏠림 현상	문학은 주도적이기보다 시각 등 타 장르 전시의 부가적 요소로 여겨짐

(2) 생태계 이슈

- * 협업이 매우 중요한 장르임에도 창작자 간 관점 차이 조율이 어렵고, 역할의 경계가 불분명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 * 공공지원사업이 단기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어 1회성 축제 등으로 소모에 그치기 쉬우며, 장기적인 예술 생태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20] 창작(전시중심)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협업 시 관점/역할 조정	직군 간 관점 차이 조율 난항 및 역할 경계의 모호성
불평등한 협업 구조	서사 창작자(문학 등)가 단순 소재 제공자로 외주화되며 창작 개입에서 소외됨
단기 지원의 한계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의 공공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형성 곤란

(3) 개선 방향

- * 창작을 지속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1회성으로 소모되어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 단순한 국내 협업을 넘어 더 넓은 시야에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외 진출 및 해외 연계 지원사업 마련이 필요함
- * 프로젝트 특성에 따른 평등한 장르 간 협업 방식에 대한 개선 및 연구가 요구됨

[표 21] 창작(전시중심)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장기 지원체계 구축	창작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단기적/1회성 소모를 방지하기 위한 장기적 지원 구조 마련
해외 진출 기회 확대	글로벌 시야 확보 및 다원예술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해외 연계 및 진출 지원사업 신설
다양한 협업 구조에 대한 연구 독려	평등한 협업 구조 확립을 위한 창작방법론 연구 지원



4. 그룹별 결과 - [그룹2-2] 창작/기획

가. 기획평론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의 경계를 초월한 실험적 예술이며, 한국 사회의 정치적 다양성을 다루는 예술 및 동시대의 미학적·기술적 실험을 수행하는 예술로 정의될 수 있음
- * 지금까지 다원예술 창작 과정과 작품이 체계적인 데이터로 축적되지 않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함
- * 제도적으로 기존 장르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여 창작자들이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맞춰야 하는 구조적 상황임
- * 기존 장르에 속한 예술가들이 다원예술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향이 있으며, 진입을 원하는 창작자들도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장르 개념 및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요구됨

[표 22] 창작/기획(기획평론)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장르에 대한 재정의	장르를 초월한 실험적 예술이자, 정치적 다양성 및 동시대 미학·기술적 실험을 포괄하는 예술
아카이빙의 한계	다원예술 창작·작품 데이터 체계화 미비
제도적 경계의 한계	장르 구분이 명확한 현 제도권 내에서 창작자들이 스스로 경계를 의식해야 하는 한계 존재
인식 편견 및 개념 부재	기성 예술가의 오해/편견 및 신규 진입 창작자의 이해 부족 극복을 위해 개념 명확화 필수

(2) 생태계 이슈

- * 다원예술의 특성상 지원 심사의 기준이 기존 장르처럼 통일되기 어려운 관계로,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시각들이 일부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작품이 완성된 후 관객과의 접점을 고민하는 것이 어렵고, 극장·갤러리 등 공간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다원 장르의 특성을 반영하여 홍보 및 배급하기 어려움
- *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초기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결과물의 지속가능성이나 후속 기획이 부족하며, 대부분 쇼케이스 형식으로 단기적으로 공개되어 발표 이후 지속적인 작품 유통이 어려운 상황임
- * 다원예술을 위한 창작·전시 공간이 부족하여 창작자들이 공간을 확보하기 매우 힘들며, 이로 인해 실험적 창작 및 연구 생태계가 위축될 우려가 있음
- * 다원예술은 산업적 성공이 어려운 구조이며, 소수의 영향력 있는 예술가들 위주로 소비되어 공공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힘들
 - 다원예술을 기록하고 분석하는 비평 및 연구가 특히 부족한 상황임

[표 23] 창작/기획(기획평론)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심사 기준의 모호성	통일된 심사 기준 부재로 인해 심사위원 개인의 시각과 척도에 따라 심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
홍보·배급 방식의 한계	관객 접점 확보 난항, 공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접근 및 장르 특성을 반영한 전략 부족
후속 지원의 부재	초기/단기/쇼케이스 위주의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작품의 지속적 발표 및 장기적 발전 제약
공간 인프라 절대 부족	창작자와 관객을 매개할 전용 창작/전시 공간 확보 어려움으로 실험적 창작과 연구 활동 위축
비평 및 담론 연구 부재	예술적 가치를 뒷받침하고 기록할 비평 및 연구 생태계마저 절대적 부족

(3) 개선 방향

- * 공공 차원에서 실험적 예술과 공공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다원예술 TF 및 다원예술(전문가) 워킹그룹 등의 논의 기구 도입이 제안됨
- * 다원예술의 기록과 비평을 지속하기 위한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 차원의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함
- * 단발성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원예술의 역사와 과정을 기록하고 논의할 수 있는 통합적 플랫폼 마련이 필수적임
 - 다원예술 공간의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이 요구되며, 단순한 공연장 대여가 아닌 타 장르 기술자 및 감독과 협업 가능한 환경 조성이 필요함

[표 24] 창작/기획(기획평론)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전담 논의 기구 도입	실험적 예술과 공공성을 동시 고려할 수 있는 전담 논의/지원 기구 재도입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플랫폼 구축	다원예술의 역사, 과정, 비평, 기록을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축적할 공공 플랫폼 신설
공간 운영 전문화	단순 대여 위주의 공간 운영 탈피, 공간 전담 전문 인력 양성

나. 기획정책

(1) 분야 현황

- * 과거의 독특한 실험적 형태를 넘어, 현재는 모든 예술 장르에 다원적 요소가 보편적으로 스며들어 경계가 희미해짐
- * 다원예술 본연의 가치보다 지원 요건에 맞춘 '단순 복합 장르'로 의미가 축소되고 오해받는 경향이 있음
- * 정책적 프레임에 갇혀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창작활동으로 변질되어 실험성이 약화됨
- * 융합 방식이 공연이나 미디어 등 특정 형식에만 편중되어, 지역 이야기와 결합하는 다양하고 확장적인 시도가 부족해짐



[표 25] 창작/기획(기획정책)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다원예술의 보편화	경계가 허물어지며 모든 예술 장르에 다원적 요소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개념의 오인 및 축소	본연의 가치(실험성 등)보다 지원 요건에 맞춘 '단순 복합 장르'로 의미 축소
정책 프레임의 한계	정책 용어화로 인해 자율성이 위축되고 '지원사업용 창작'으로 변질
융합 방식의 편중	특정 형식(공연·미디어 등) 융합에 편중되어 지역성을 살린 시도 부족

(2) 생태계 이슈

- * 과정 중심의 예술임에도, 결과물 위주 평가 체계를 따르고 있어 장르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함
- *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예산(지원금)과 인프라가 부족하여, 기술 기반의 대규모 실험적 작업에 한계가 존재함
- * 지역문화재단의 중복 지원 불가로 인해 창작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전통-현대예술 결합 시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함
- * 기후 위기·젠더 등 동시대적 사회 담론과 결합하여 메시지를 던지는 방향으로의 확장이 요구됨

[표 26] 창작/기획(기획정책)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평가 체계의 불일치	과정(연구/실험) 중심의 특성을 배제한 기존 장르의 결과물 위주 기준 적용
수도권-지역 간 격차	예산 및 인프라의 절대적 부족으로 지역 내 대규모 실험적 작업 한계
지역 내 창작 단절	중복 지원 불가 및 정책적 뒷받침 부족으로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유지 곤란
사회적 담론 융합 요구	단순 매체 융합을 탈피하여, 동시대 사회적 문제와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의 진화 필요

(3) 개선 방향

- * 창작자의 개인적 경험과 사고방식이 녹아든 개별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유연한 지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함
- * 제도적 틀에 갇히지 않는 자연스러운 협업 환경을 조성하고, 결과물 제출 압박을 줄여 '창작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됨
- * 지역 예술가의 고립을 방지하고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역과 거점 도시(수도권 등)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계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
- * 지역 고유의 자산을 활용한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지역성 기반 정책을 강화해야 함

[표 27] 창작/기획(기획정책)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개별성·자율성 보장	일률적 기준을 탈피해 창작자의 개별적 맥락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지원체계 도입
과정 중심 환경 조성	결과물 도출에 대한 압박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융합 실험과 '창작 과정' 자체를 인정
거점 도시 연계 협력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과 수도권(거점 도시)을 잇는 파트너십 및 연계 체계 구축
지역성 기반 유연 지원	특정 주제 강요로 인한 제약을 방지하고, 지역 고유 특성을 살린 자유로운 실험 보장

5. 그룹별 결과 - [그룹3] 확산/매개

가. 동시대성 중심 공간 운영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 공간은 단순한 작업실이나 전시장을 넘어, 다양한 장르와 매체(AI, 환경 문제 등)의 융합을 실험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
- * 예술가와 관객을 이분화하지 않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을 취하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가 형성됨
- * 단순히 '도시재생'이라는 명목 아래 진행되는 것을 넘어, 마을의 재개발 문제 등 지역 현안과 연계하여 실거주민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공공성 중심의 예술 공간 운영 사례가 나타남

[표 28] 확산/매개(동시대성 중심 공간 운영)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융합 실험 플랫폼	다양한 장르와 매체 융합 실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복합 플랫폼으로 진화
공동 창작 및 참여	예술가-관객의 이분법을 탈피하고, 시민의 직접 참여를 바탕으로 자생적 커뮤니티 형성
지역성·공공성 실현	재개발 등 실제 지역 현안과 연계해 거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공간의 공공성 구축

(2) 생태계 이슈

- * 공간 운영은 창작자 개인의 열정이나 자본만으로 유지되기 어려우며, 과도한 공간 임차료 부담 등으로 인해 소수 자발적 후원만으로는 운영비 충당에 한계가 있음
- * 재개발 지역 내 공간들이 가진 장소적 불안정성과 단기 위주 공공지원으로 인해, 장기적인 운영 계획 수립이나 지속적인 프로그램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임
- * 1인 운영 체제 등 고질적인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해, 공간의 자체 기획 운영과 더불어 홍보 및 네트워크 확장을 병행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됨
- * 중앙(수도권) 지향적인 작가들이 지역 공간을 단기적인 중앙 진출의 발판으로만 소비하고 떠나는 경향이 있어, 지역에서 장기적 비전을 공유하며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업자(생태계) 확보가 어려움

[표 29] 확산/매개(동시대성 중심 공간 운영)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재정적 불안정성 심화	개인 자본 및 후원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과 과도한 임차료 등 고정 운영비 부담 가중
단기 지원 및 장소 한계	단발성 프로젝트 위주 지원 및 재개발 지역 특유의 불안정성으로 장기적 공간 운영 계획 불가
운영 인력 절대 부족	자체 기획, 공간 운영, 홍보, 네트워킹을 소수가 병행해야 하는 구조적 인력난 및 업무 과중
지역 내 인적 이탈 현상	중앙 진출의 정거장으로만 지역 공간을 소비, 장기 비전을 공유할 지역 기반 협업자 부재



(3) 개선 방향

- * 대관료 및 운영비 지원이 전형적인 공연장 기준에 맞춰진 기존의 획일적 제도를 탈피하여, 장르 간 융합과 실험을 포용하는 다원예술 공간 맞춤형 지원체계가 필요함
- * 공간이 단순한 장소 대여를 넘어 기획자와 예술가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자생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 허브'로 기능하도록 공공 차원의 교류 프로그램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 * 지역 예술 공간이 단기 창작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핵심 거점으로 생존할 수 있도록, 단순 프로젝트 지원을 넘어 임대료 및 인력 지원을 포함한 최소 3~5년 단위의 실질적·장기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임

[표 30] 확산/매개(동시대성 중심 공간 운영)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전형적인 공연장/전시장 기준을 벗어나, 다원예술 공간 특성을 반영한 특화 지원 제도 마련
네트워크 허브 육성	예술가-기획자 간 지속적 교류 및 자생적 프로젝트 도출을 견인하는 네트워크 거점화
지역 거점 장기 지원	지역사회 거점 역할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 3~5년 단위의 장기적·연속적 지원 보장

나. 기술 융합 중심 공간 운영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탈장르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를 포함하며 기존 분류 체계나 가치 체계에 담기 어려운 새로운 시도를 포괄하지만, 현재는 새로움에 대한 기준과 정의가 모호해져 장르를 규정하기 어려운 상황임
- * 기존 갤러리나 제도권 시스템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형태의 독립적인 플랫폼과 공간을 마련해 작가들이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함
- * 기술이 도입되면서 관객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 직접 개입하고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요소가 필수적으로 발전하고 있음
- * 기술 융합은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 고민과 사회적 메시지를 창출하고 예술적 사유를 확장하는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

[표 31] 확산/매개(기술 융합 중심 공간 운영)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개념의 포괄성과 모호성	새로운 실험적 시도를 포괄하나, '새로움'에 대한 정의와 해석이 다양해져 규정이 모호해짐
독립적 플랫폼/공간 요구	기존 갤러리 중심을 탈피하여,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 및 플랫폼 필요
관객 참여 방식의 진화	인터랙티브 기술을 매개로 관객이 작품에 직접 개입하고 체험하는 쌍방향성 강조
기술 융합의 매개 역할	철학적 질문 및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확장하는 본질적 매개체로 기술의 진화

(2) 생태계 이슈

- * SNS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이 정보 전달의 필수적 수단이 되었으나, 기존 예술가들은 단순 홍보를 넘어선 지속적인 소통과 스토리텔링 운영 전략에 대한 대응이 부족함
- * 다원예술 트렌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지역에서는 1~2년 늦게 퍼지는 경향이 있으며, 지원사업과 기회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지역 내 지속적 운영이 구조적으로 어려움
- * 다원예술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지원사업 신청 시 창작자가 작업 논리를 설명하기 막막해하며, 심사위원마다 장르 해석 기준(기술 중심 vs 탈장르 중심)이 다를 수 있음
- * 지원사업이 특정 유행 기술(AI, VR 등)이나 특정 엘리트 작가들의 네트워크에 편중되어, 실험적이고 새로운 창작자들이 진입할 기회가 점차 줄어들음
- * 지원사업 담당 인력이 1~2년 단위로 자주 변경되어 정책 연속성이 끊기며, 장기적 운영이 필수적인 실험적 프로젝트가 일회성 이벤트로 소모되는 사례가 많음

[표 32] 확산/매개(기술 융합 중심 공간 운영)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온라인 소통 전략 부재	SNS 플랫폼 환경 변화 대비, 예술가들의 지속적 소통 및 스토리텔링 운영 대응 미흡
수도권-지역 간 격차	트렌드 및 지원사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예술가의 기회 박탈 및 생태계 자생력 약화
심사 기준의 모호성	통일된 정의 부재 및 심사위원별 상이한 해석 기준으로 창작자의 개념 소명에 혼란 발생
특정 기술/네트워크 편중	특정 최신 기술 및 기득권 작가 위주의 지원 쏠림 현상으로 신규·실험적 창작 기회 축소
정책 및 지원 연속성 단절	찾은 실무 담당자 교체로 지원이 단절되며, 장기 확장이 필요한 프로젝트가 단기로 소모될 우려

(3) 개선 방향

- * 다원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개별 작가 중심의 지원을 탈피하여, 공동 프로젝트 형식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등 실제 협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매개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 현재의 서구 중심 메타데이터 시스템을 보완하여, 한국 다원예술만의 유연한 발전과 변형·재해석 과정을 온전히 기록할 수 있는 새로운 한국형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체계 구축이 요구됨
- * 장기적 실험성과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프로젝트 특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변경과 무관하게 최소 2~3년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정책적 연속성 확보 제도가 필요함
- * 기술이 예술을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이 기술을 적극 활용해 철학적·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기존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창작 및 지원 환경 조성이 필요함

[표 33] 확산/매개(기술 융합 중심 공간 운영)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실질적 협업 매개 시스템	공동 프로젝트 예산 배분 등 창작자 간 네트워킹과 실제 협업을 견인할 시스템 마련
한국형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	지속적으로 변형·재해석되는 한국 다원예술의 특수성과 유연성을 반영한 기록 체계 도입
정책의 장기 연속성 보장	실험적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하도록 다년간의 제도적 안전망 확립
유연한 창작·지원 환경 조성	예술 주도적으로 사회적·철학적 메시지를 담아내는 새로운 형식을 장려하는 개방적 지원정책



6. 그룹별 결과 - [그룹4] 향유

(1) 분야 현황

- * 다원예술은 특정 장르로 엄격히 구분되기보다 다양한 매체와 기술이 결합된 실험적 예술로 접근되고 있음
- * 관객들은 처음에 '다원예술'이라는 명확한 장르적 명칭보다, 매체의 사용이나 관객과 상호작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음
- * 미디어아트, 사운드 스케이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며 관객이 개입하는 형태의 다원예술이 점차 주목받고 있음

[표 34] 향유(열성관객)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유연한 장르 인식	관객들은 새로운 매체 활용과 관객 상호작용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다원예술을 수용함
다양한 표현 방식 주목	기술과 결합된 다원적 실험 예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 증가

(2) 생태계 이슈

- * VR 전시 등 체험이 필수적인 작품의 경우 예약이 너무 빨리 마감되어 참여가 어렵고, 현장에서 기기 사용법이나 체험 가이드를 제공하는 상주 운영자가 부족해 관람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음
- * 체험이 필요한 전시임에도 관람 환경이 지나치게 개방적이거나 뒤에 대기 인원이 많을 경우, 체험 자체가 위축되어 관객의 작품 몰입을 방해하는 요인이 됨
- * 다원예술 전시, 퍼포먼스, 워크숍 등은 홍보 부족으로 관객이 지인 추천 외에는 정보를 접하기 어려우며, 특히 전시의 일부로 진행되는 워크숍은 미술관 홈페이지 내에서도 안내가 부족해 놓치기 쉬움
- * 다원예술이 단순히 기술(터치디자이너, AI 등)을 활용한 형식적 실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동시대적 가치를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표 35] 향유(열성관객)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체험 편의성 및 접근성 저하	체험 위주 전시의 빠른 예약 마감 및 현장 가이드 부족으로 인한 관람객 불편
파편화된 홍보와 안내 부족	정보 접근성 저하로 인한 참여 기회 박탈
동시대적 가치 요구	단순한 기술의 기능적 활용과 형식 실험을 넘어, 사회적 메시지와 가치를 담아낼 필요성 대두

(3) 개선 방향

- * 파편화된 다원예술 정보를 관객이 일일이 찾아야 하는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시·공연·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을 한눈에 확인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정보 플랫폼 마련이 필요함
- * 다원예술 작품은 전시가 끝나면 사라져 다시 찾아보거나 타인과 공유하기 어려우므로, 공연처럼 녹화본을 제공하거나 최소한의 기록을 보존·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 관객들이 작품에 더 오래, 깊이 집중할 수 있도록 전시 공간의 환경적 불편 요소를 해소하고(예: 방석 등 제공) 세심하게 배려하는 관람 환경 조성이 필요함

[표 36] 향유(열성관객)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관객이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탐색할 수 있는 통합 안내 채널 마련
아카이빙 시스템 도입	녹화본 및 기록을 지속적으로 보존·공유할 시스템 구축
관람 환경의 세심한 배려	관객의 작품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물리적·환경적 제약을 최소화하는 전시 환경 조성



7. 그룹별 결과 - [그룹5] 공공지원정책

가. 수도권

(1) 분야 현황

- * 문화재단 내에서도 다원예술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여, 지원사업 신청자도 다원예술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현재 재단 내부적으로는 기존 연극·음악·전통·시각예술 등에 속하지 않고 본인 기준 다원예술로 정의할 경우 다원예술로 지원하도록 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있음
- * 재단 내 다원예술 지원 신청 중 대부분이 시각예술 기반이며, 심사위원들도 지원 신청서가 기존 시각 장르 지원사업 신청서와 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 기존 장르들과 달리 다원예술은 경력과 실력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 2024년부터 경력별 트랙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변경함

[표 37] 공공지원정책(수도권)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정의의 모호성	명확한 정의 부재로 기성 장르 외의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
시각예술 편중	신청의 대다수가 시각예술 기반이며, 기존 시각 장르 신청서와 뚜렷한 차별성이 드러나지 않음
지원 트랙 통합	경력별 세부 트랙을 통합하고 지원 규모를 상향 조정(2024년~)

(2) 생태계 이슈

- * 실험적인 장르 특성상 장기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1년 단위의 단기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인해 창작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상황이 있음
- * 실험성을 강조하며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이 낮게 배정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완성도 저하를 초래함
- * 과거에는 지원사업을 통해 최종 결과물까지 제작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생태 내 일부 지원사업에서 최종 결과물 도출이 아닌 중간 실험 단계로만 사업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로 보임
- * 창작자들 간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예술가들이 타인의 작업보다 본인 작업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커 실제 자발적 참여율과 활성화가 저조함

[표 38] 공공지원정책(수도권)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단기 지원의 한계	1년 단위 프로젝트 위주의 단기 지원 구조로 인해 창작의 지속성 저하
예산 및 완성도 저하	실험성 중심의 낮은 예산 책정 경향으로 인해, 작품 완성도 저하 초래 우려
과정 중심 변화	최종 결과물 도출보다 지원사업을 실험적 중간 과정으로 활용하는 일부 사례 증가 추세
네트워크 활성화 저조	창작자들의 본인 작업 집중 경향으로 인해 자발적 네트워킹 및 참여 저조

(3) 개선 방향

- * 다원예술은 창작자들 중심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 대중이 접할 기회가 부족하므로, '다원예술 페스티벌' 등 관객과 만날 수 있는 확산 구조 마련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리서치 기반 융합 등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장르 특성을 고려하여, 1년 단위의 단기 지원체계를 개선하고 중장기 지원이 가능한 체계 구축이 요구됨
- * 다원예술 지원기관 간 정보 교류 부족으로 중복 사업이 발생하고 지원 사각지대가 생기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협력(네트워크) 체계 구축이 필요함

[표 39] 공공지원정책(수도권)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확산 구조 마련	창작자 내부 소비를 탈피하여 일반 대중의 접근성을 높이는 발표/확산 구조 도입
중장기 지원체계 전환	시간이 소요되는 장르 특성을 반영하여, 단기(1년) 위주를 벗어난 지속적·장기적 지원 구축
지원기관 간 협력	기관 간 정보 교류 및 파트너십 구축으로 중복 지원 방지, 예산 효율화 및 지원 사각지대 해소

나. 비수도권

(1) 분야 현황

- * 재단 내 지원사업에서 다원예술 신청 건수는 전체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다른 기초 장르들과 동일한 수준의 선정률(약 2% 내외)을 보장 및 유지하도록 조정하고 있음
- * 지역 내 오랫동안 활동해 온 기성 예술인들의 입지가 강해 신진 성장이 어려운 구조였으나, 최근 청년 작가들이 크루를 결성하여 시범적인 기획과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등 청년층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임
- * 이러한 청년 예술가들의 약진에 발맞춰, 재단 내부적으로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 예산 중 일정 금액을 청년 예술가들에게 의무 배정하는 방식을 도입함
- * 단, 현재 재단 내 지원 프로그램은 단기, 중기, 장기 등 시기나 창작 단계에 대응하는 세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음

[표 40] 공공지원정책(비수도권) - 분야 현황

구분	핵심 내용
신청 비율 및 선정률	다원예술 신청 비중은 낮으나, 타 장르와 동일한 선정률 보장 및 조정
청년 예술가 약진	기성 예술인 중심 구도 속에서, 청년 크루 중심의 실험적 프로젝트/기획 증가
청년 의무 할당제	청년 예술가들의 활동 증가에 발맞춰 전체 예산 중 일정액을 청년층에 의무 배정
지원 구조의 한계	단기·중기·장기 등 기간과 단계에 따른 세분화된 지원 프로그램 부재



(2) 생태계 이슈

- * 재단 주관으로 매년 다원예술 관련 간담회 및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있으나, 지역 예술인들조차 각자의 기준만 고수할 뿐 명확한 합의나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 심사 과정에서 '다원예술이 맞는지'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부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며, 실제 신청작 대다수가 단순한 장르 혼합 수준에 머물러 있음
- * 순수음악으로 분류되지 않는 타 장르들이 다원예술로 신청하는 경향이 있어, 다원예술이 사실상 '순수예술 범주 외 기타 장르의 피난처'로 인식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표 41] 공공지원정책(비수도권) - 생태계 이슈

구분	핵심 내용
개념 정의의 필요성 여부	매년 간담회 및 라운드테이블 개최에도 불구하고, 다원예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합의 도출 난항
단순 장르 혼합	심사 과정에서 다원성 검증 피드백 발생, 실제 신청작 상당수가 단순 장르 혼합 수준에 머무름
기타 장르의 피난처화	타 장르의 유입으로 인해, 다원예술이 기타 장르의 피난처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3) 개선 방향

- * 다원예술이 기타 장르의 대체 창구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다원예술의 범위를 '기타 장르' 또는 AI 등을 포괄하는 '융복합 장르'로 외연을 넓혀 새로운 카테고리로 운영하는 방안 검토
- * 이를 통해 보다 실험적이고 새로운 융합적 시도를 제도권 내에 온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함
- * 현재 지원사업이 '결과물 발표'를 필수로 요구하여 실험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시도에 제약이 따르므로, 결과물 도출을 강제하지 않고 다장르 예술인 간 자유롭게 소통하는 '네트워킹 및 연구 지원사업' 도입도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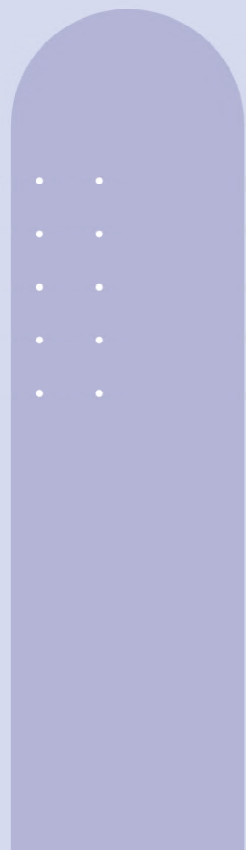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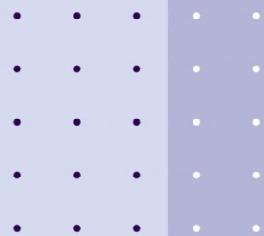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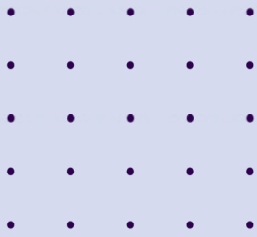
[표 42] 공공지원정책(비수도권) - 개선 방향

구분	핵심 내용
개념/범위의 재설정	다원예술을 '기타 장르'나 AI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장르'로 외연을 확장하여 새롭게 정의
제도적 수용력 제고	특정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실험적이고 새로운 융합적 시도를 온전히 포용하는 제도 개선
과정/연구 중심 전환	결과물 발표의 압박을 없애고, 다장르 예술인 간 자유로운 네트워킹 및 창작 연구 기회 보장

02

2차 연도 워킹그룹 운영 개요







제1절 2차 연도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 * 2006년 다원예술 지원 제도를 신설하며, 기존 장르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소외되었던 실험적이고 실천적인 프로젝트들을 수용하고,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그 저변을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왔음
- * 지난 20년간 다원예술의 정체성과 방향성은 예술 생태계 내 이슈에 따라 역동적인 변화를 겪어왔으며, 5년 전 다시 시작된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음
- * 또한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 '동시대성' 혹은 '다원성'이 확산되면서 다원예술을 구분하던 경계가 흔들리고 있으며, 예술계 일부에서는 여전히 장르 및 분야의 단순 병렬적 결합으로 오인되기도 함
- * 현 시점에서의 다원예술 생태계를 재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이슈들을 제도적 지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해야 함
- * 2차 연구는 지난 1차 연도(2024) 연구에서 도출한 다원예술 생태계의 이슈들 중에서도 다원예술의 정체성 고도화, Art & Technology 분야의 다원예술 편입 및 균형지원, 다원예술 평가체계의 정교화, 비평·기록 문화의 필요성 등의 시사점을 계승

2. 연구 목적

- * 본 연구는 현재의 다원예술을 재점검하고, 다원예술의 지원체계를 한국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다원예술을 독립적인 예술 영역으로서 수용하고, 단순 장르 결합이나 탈장르 개념의 오용을 바로잡아 다원예술 고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둘째, 기존 장르 중심 지원체계에서 소외된 예술 실천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평·기록 활성화와 지역 생태계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셋째, 결과물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험 과정과 창작 논리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다원예술 특화 평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도출하고, 향후 과제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3. 연구 방법

가. 내·외부 정책 연구 자료 및 관련 문헌 분석

- * 유관기관이 발간한 정책 연구, 백서, 포럼 자료를 검토하여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흐름을 통합적으로 파악함
- * 다원예술 생태계 및 지원정책과 관련된 인터뷰, 보도자료, 학술연구 등을 보조 자료로 함께 검토함

나. 지원사업 체계 분석

- * 아르코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국·공립기관과 민간기관의 지원 현황을 검토하여 지원의 공백과 중복을 진단함
- * 아울러 국내외 유사 지원사업 및 사례를 탐색하여 향후 사업 방향 설정의 참고 자료로 활용함

다. 워킹그룹 운영

※ 본 연구의 주집필자 및 다원예술 전담심의관을 중심으로 핵심 그룹을 구성하고, 현장 기획자·비평가·창작자
이자 심의위원·사업 수혜자로서의 경험을 갖춘 생태계 내 당사자들과 세미나 및 자문 형식의 정기 토론을
진행함

[표 43] 연구 추진 단계

구분	연구 방법	내용
1단계 이슈 진단	다원예술 개념화 이슈 진단	- 다원예술생태계 구조 점검 - 연구 기본 방향성 및 개념화
2단계 동향 분석	내·외부 정책 연구 자료 및 관련 문헌 분석	- 주요 동향 확인
	지원사업 체계 분석	- 주요 유관기관(공공·민간) 다원예술 지원사업 현황
3단계 환경분석	워킹그룹 운영	- 핵심 주제별 심층 논의
4단계 전략 목표 설정 및 성과 종합	종합 세미나 진행	- 세부 추진과제 도출



제2절 워킹그룹 구성

* 창·제작발표, 플랫폼 및 기획·발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다원예술 개념화를 주제로 4개의 분야별 워킹그룹과 1개의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을 운영함

[표 44] 워킹그룹 구성

구분		주요 구성	역할
주제별 워킹그룹	1단계	창·제작발표 (공론장)	주제별 현황 진단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한 토론
		플랫폼 및 기획·발굴 (공론장)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자문·공론장)	
		다원예술 개념화 (자문)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공론장)	1차 연도 연구의 이슈 재점검 및 2차 연도 연구에서의 계승 지점 자문
주 집필진 및 내부 워킹그룹		- (외부) 김미교(독립 연구자 겸 큐레이터) - (내부) 김윤희(한국문화예술위원회 다원예술 전담심의관) - (내부) 나혜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수석연구원)	연구 총괄 및 사업(안) 기획·설계
연구지원		(주)케이스탯리서치	워킹그룹 연속회의 지원 및 워킹그룹 운영보고서 작성

제3절 워킹그룹(공론장, 자문) 연구진행 과정

* 세부 추진 일정 및 각 회차별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음

[표 45] 워킹그룹 추진 일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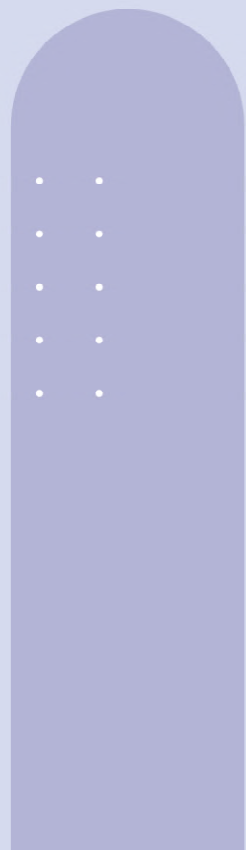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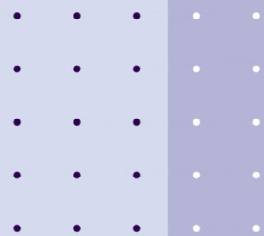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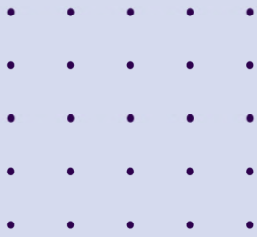
구분	일시·장소	논의 주제	참가자
다원예술 개념화 (자문)	2025-09-24(수)	연구 기본 방향성 및 개념화 논의	(외부) 강수현, 박성선, 김미교
	2025-09-29(월)	연구 기본 방향성 및 개념화 논의	(외부) 이준, 장재호, 김미교
창·제작발표 워킹그룹 (공론장)	2025-11-28(금) 비즈허브 서울센터	1차 연도 연구 연속성 공유, 확장/개척 트랙 구분의 실효성, 심사 기준 개선안	(외부) 차진엽, 천민권,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2025-12-17(수) 화상회의(Zoom)	창작 과정의 가치 평가, LG아트센터·서서울미술관 등 타 기관 연계 지원 방식의 장단점 및 확산 방안	(외부) 김해래, 노경택, 차진엽, 천민권,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2026-01-19(월) 화상회의(Zoom)	지원사업 예산 배분 구조, 다년(3년) 지원의 단계별 목표 수정,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와 결합된 지원 방식 도입	(외부) 노경택, 차진엽, 천민권,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플랫폼 및 기획·발굴 워킹그룹 (공론장)	2025-11-27(목) 화상회의(Zoom)	다원예술 페스티벌 기획·발굴 아이디어, 지원 트랙 구성 및 수행 요건 등	(외부) 배남우, 조성주, 조화연,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2025-12-16(화) 서울역 공향철도 회의실	단년 및 다년 지원사업 구조, 지역 안배 및 공간 지원의 실효성	(외부) 배남우, 조성주, 조화연,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2026-01-13(화) 서울연극센터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사업 구조 점검 및 기획 인력 인큐베이팅 방안 심층 논의	(외부) 배남우, 조성주, 조화연,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워킹그룹 (자문·공론장)	2025-11-28(금) 비즈허브 서울센터	다원예술 특화 기록 플랫폼의 필요성, 기존 아르고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페이지 활용 아이디어 등	(외부) 강지용, 김웅현, 정진새,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나은경 정보화담당관
	2025-12-17(수) 화상회의(Zoom)	민간 거버넌스형 공동편집단 운영 방안, 연구 및 비평 인력 발굴을 위한 알쓸신잡 포맷 등의 콘텐츠 기획안	(외부) 강지용, 김웅현, 정진새, 김미교 (내부) 나혜영 수석연구원
	2026-01-20(화) 화상회의(Zoom)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방향성, 비평 활성화 사업 구조, 설문 및 심층 인터뷰(원고 의뢰) 대상자 선정 등	(외부) 김웅현, 정진새, 김미교
세미나/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공론장)	2026-01-29(목) 아르고미술관 위원회의실	성과공유 내부 세미나	(외부) 김미교 독립큐레이터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아르고 임직원 등
	2026-03-09(월) 화상회의(Zoom)	다원예술 개념어(탈장르 등)의 역사적 변화 점검, 생태계 내 다원예술의 위치와 지원사업 지향점 진단	(외부) 김지연, 김해래, 정진새, 김미교
	2026-03-13(금) 화상회의(Zoom)	다원예술 생태계의 불균형 점검, 대안적 공공-민간 협력 모델 및 아르고의 역할 논의	(외부) 김지연, 김해래, 배남우, 정진새,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2026-03-20(금) 서울연극센터	다원예술 생태연구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전략 목표 최종 점검	(외부) 김지연, 김해래, 배남우, 김미교 (내부) 김윤희 전담심의관

※ 다원예술 개념화와 정보화 전문가는 자문으로 구분함

03

2차 연도 워킹그룹 연구 내용







제1절 지원사업 현황 및 선행연구 조사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정책 동향

가. (주요사업 흐름) 2020~2026년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사업 현황

[표 46] 2020~2026년 아르코 다원예술(직·간접) 지원사업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직접 지원	-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다원예술 창작산실/창작주체		
간접 지원	-	-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지원	창작의 과정		-	-
	국제교류, 아르코 청년(예비)예술가 지원, 예술인력 육성 등						
융합 예술	Art&Tech(예술과기술 융합지원), (국고)아트체인지업				-	-	-
	-	-	차세대예술인력육성 에이프캠프 APE CAMP (*아르코 예술기술 융합 국제 컨퍼런스 포함)				
	-	-	(국고)메타버스예술활동			-	-

* (직접 지원) 우수 다원예술 발굴 및 생태계 주체 육성 중심

- (2021~2023년) 다원예술활동지원 Reboot, 다원예술 창작발표지원

다양한 다원예술 구성원(예술 현장 관계자)들의 요구로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복원하며 다원예술의 정책적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시도됨

- (2024~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창작주체

다원예술 분야의 우수 창작물 발굴과 외연 확장이라는 목표 아래 프로젝트 단년/다년지원, 중/소규모 페스티벌, 공간 지원 등 다양한 주체들의 지원을 도모하며 다원예술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간접지원) 예술생태계의 다양성 수용

- (2020~2026년) 국제교류지원, 아르코 청년(예비)예술가 지원, 예술인력지원 등

창작의 기반이 되는 '사람' 중심의 지원들에서 분야(장르) 구분에서 다원예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장르예술 제도 내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사례를 포용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

- (2022년) 기초예술 다양성 증진 지원

창작지원 안에서 기존 장르별 지원체계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창작 유형과 다원적 예술을 발굴하여 새로운 창작 경향을 견인하고자 함(이후 직접 지원인 '창작발표지원'으로 분리 전환됨)

- (2023~2024년) 창작의 과정

다원예술을 포함해 기초예술분야 전반을 대상으로 작품 발표 외 기획·비평을 위한 리서치, 역량 강화, 초기 아이디어 구현 등 다양한 예술활동을 폭넓게 수용하고자 함 (예: 소재 발굴 및 취재, 리서치, 인터뷰, 아카이빙, 워크숍, 리서치 트립, 포트폴리오 제작 등)

*** (융합예술) 예술 중심의 기술 접목 및 네트워킹 확장**

- **(2020~2024년) Art&Tech, (국고)아트체인지업, (국고)메타버스예술활동**

빠른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시대상을 민첩하게 반영하여, 대규모 예산(국고 등) 투입을 통해 아이디어 기획부터 우수작 후속 지원, 아카이브까지 단계별로 유형을 세분화하고 유형 간의 연계 등 복합적인 지원 구조를 취함

- **(2022~2026년)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 APE CAMP**

AI, 로봇, 모션캡처 등 동시대 고도화된 기술을 중심으로 예술가, 프로듀서, 기술전문가와 같이 융합예술의 차세대 전문 인력을 발굴하고 이들이 여러 팀을 이뤄 융합적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 창·제작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함

📁 2020~2026년 아르고 다원예술 지원사업 변화의 긍정적 시사점

① 예술 생태계의 이슈에 민첩하게 대응 시도

- 다원예술 포럼, 다원예술TF팀 활동, 심의 방식의 대안적이고 도전적인 시도 등 다원예술의 미학적 범주와 정책적 역할을 예술 생태계 내 주요 화두로 부상

② 지원 대상의 다각화를 통한 예술 생태계 주체들의 자생을 고민

- 단발성 프로젝트를 넘어 창작자, 공간, 기획자, 플랫폼 등 '주체' 중심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신규 창작주체의 진입을 독려

③ 과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 보완

- 지원금 상향 조정 및 자부담 의무 폐지, 결과물 중심의 행정에서 일부 탈피하여 전문적 자문을 수반한 유연한 사업 컨설팅 및 변경 등을 기존 장르보다는 좀 더 수용함으로써, 다원예술 특유의 실행 과정의 중요성과 실험의 발견과 미학적 보안을 제도적으로 지원

나. (2020~2025년 사업변화분석) 다원예술 생태계와 제도의 긴밀한 상호작용

*** 지원 유형의 세분화**

- **(실험적 공론화를 통해 지원제도의 체계적 고도화 시도)**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 사업 블라인드 심사 및 '동료집단 심의' 등 파격적인 대안적 심의 방식을 시도하며 동시대 다원예술의 범주를 현장 스스로 정의하도록 유도함

단, 다원예술 심의의 전문성과 심의 과정의 안정성 확보와 같은 과제를 남겼음

- **(다원예술 진입 시도 보완)** 2023~2024년 '창작의 과정'은 타 장르에 비해 다원예술에서 과정 중심의 복합적인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직접 지원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창작의 과정으로 다원예술 생태계 내에서 다원예술의 실험과 창작의 진입 시도를 하는 예술가들에게는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됨

그 외에도 예비 및 청년예술가의 지원사업을 지원함(가산점 제도 추진 등)

- **(장르별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중심 재편에 합류)** 2024년부터 현재까지 단순 프로젝트 단기 지원을 넘어, 타 장르와 공통으로 운영되는 '창작산실'과 '창작주체' 사업 구조를 중심으로 다원예술 생태계 저변을 확장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단년 혹은 다년 지원을 통한 우수 다원예술 발굴, 페스티벌, 공간 지원 등 사업 일부 개편과 지원 영역을 확장함



* 사업 규모 변화와 예산 확보

- **(지원 단가의 지속적인 확대)** 2021년 '다원예술 활동지원 Reboot'에서 단계별 유형에 따라 정액 지원(최소 5백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하며 소액의 단위로 다수의 다원예술 기반을 양성하는 지원을 벗어나, 2023년 '창작발표지원'(최대 5천만 원) 그리고 현재 '창작산실'과 '창작주체'까지 양질의 다원예술을 위한 창작환경을 보장하고 발굴하기 위해 사업별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
- **(다원예술 특성에 맞춘 예산 활용의 자율성 보장)** 2024년부터는 다원예술 예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금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정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부담 편성 의무화는 점진적으로 폐지 창작 과정에서도 그 실험적, 미학적,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는 다원예술의 특성에 맞춰, 유연한 행정적 대처를 지향
- **(통합적인 지원사업들에서 독립적인 분야로 안착)** 다원예술에 집중한 직접 지원사업 외에도 '아르코 청년(예비)예술가 지원', '국제교류지원사업' 등 통합적인 지원사업의 활동분야 구분에서 타 장르들과 함께 '다원예술'이 독립적으로 분류되면서 지속적인 예산 배정이 추진
그러나 다양한 기초예술 장르들 사이에 존속하며, '다원예술'을 장르 중심의 체계 안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

2020~2026년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사업 변화에서 바라본 내재된 과제

① 심의의 전문성 고도화 및 과정의 안정성 확보 필요

- 제도 내 대안적 심의방식은 현장의 주도성을 이끌어냈으나, 동시에 심의 과정에서의 안정성 결여와 전문성 확보라는 정책적 과제를 남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전담 심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② 장르 중심 분류체계 관점의 탈피

- 다원예술이 독자적인 영역으로 지원체계 안에 안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코 지원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장르 중심 분류체계의 관점'은 다원예술의 특징인 '기존 틀을 벗어난 확장의 영역'으로써의 특성을 기존 장르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교할 경우, 그 특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음

③ 담론·매개 영역의 발굴 및 활성화

- 창작주체 공모 시 비평/평론 분야 접수율이 낮은 현상(2025년 기준 단 2건)¹⁾은 지원정책이 제작 중심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다원예술의 사회적·미학적 가치를 규명할 비평과 디지털 아카이빙 등 해석의 주체로서 전문가 육성이 필요해 보임

1)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심사총평

"접수된 58건을 ...(중략)... 분야별로 구분해보면 기술실험 19건, 장르융복합형 28건, 장르실험형이 7건인데 반해 비평/평론이 2건, 기타가 2건으로 다원예술분야에서 비평/평론 영역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한 현상이 반영된 것 같아 아쉬움도 있습니다."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정시공모 지원심의 결과발표, 2024.12.30. 게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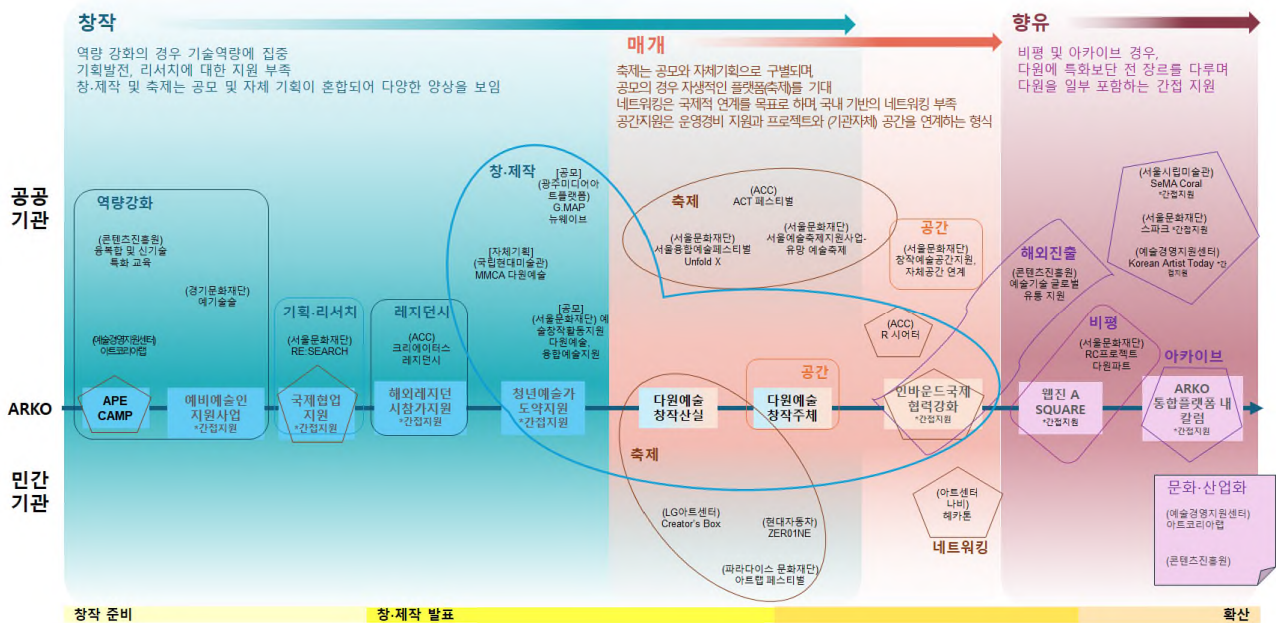
게시물 링크: https://arko.or.kr//board/view/4013?bid=463&sf_icon_category=cw00000019&cid=1809064)

2. 주요 유관기관(공공·민간) 다원예술 지원사업 현황

가. 한국 다원예술 지원사업

※ 아르크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2024~2026 한국 다원예술 지원 현황

- (역량 강화와 발표에 집중한 창작지원)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들의 대다수는 기술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사전 리서치를 비롯해 사전에 기획할 수 있는 과정 중심의 지원사업이 일부 필요
- (주요 매개로서 페스티벌, 네트워크, 공간 지원사업) 다원예술을 다루는 여러 페스티벌은 공모와 자체 기획으로 구분되며, 페스티벌 공모의 경우 생태계 내 자생적인 기획을 기대, 네트워크의 경우 국제 중심으로 국내 기반 네트워크의 확장이 필요해 보임
- (다원예술에 주목한 향유 부족) 비평 및 아카이브의 경우 다원예술에 주목하기보단 기초예술 장르 전반을 다루며 그중 일부 다원을 포함하는 형식의 간접 지원만 있음





나. 주요 유관기관[공공] 5곳

[표 47] 주요 유관기관[공공]

기관 (가나다순)	기능	주요 사업	강/약점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ACC)	인적자원의 발굴, 양성, 네트워킹 창·제작/ 발표지원	■ ACC 크리에이터스 레지던시 - 랩(Lab) 시스템 중심으로 리서치, 자문, 렉처, 워크숍, 쇼케이스 등의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 - 지원 규모: 쇼케이스, 비평가 연구 최대 30백만원, 창작활동비 2백만원 지원 ■ ACT 페스티벌(공모) - 미디어 파사드, 스크린, 사운드, 무대 등 관련 장비 및 장소 지원, - 지원 규모: 작품제작비 12백만원 ■ ACC_R 시어터 - 공연예술 기반의 실험적 작품 창·제작을 위한 리서치, 창작 및 개발, 멘토링, 쇼케이스와 같은 체계적인 창작 인프라 지원 · 그 외에도 창작, 기획의 전문 인력 양성 과정 운영	● 고가의 하드웨어를 보유하며, 실험적 시연환경 지원 ● 정기 사업(페스티벌, 레지던시 등)을 매개로 국내·외 기관 및 전문가의 네트워킹 및 파트너십 구축해, 국제적 플랫폼 역할 수행 ● 프로젝트 창·제작에 맞춰 다양한 주체들이 협업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반 지원 ● 창·제작발표 이후 협업 주체들 간 네트워크의 자생적 지속가능성 부재
국립현대 미술관 (MMCA)	기관 기획형 창·제작/ 발표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다원예술 - 다원적 가치를 주제로 전시와 쇼케이스 진행 - 지원 규모: 제작비 지원 ■ 프로젝트 해시태그(2019-2025) - 현대 자동차와 파트너십으로 운영 - 지원 규모: 창작지원금 팀별 최대 30백만원, 작품 제작 및 회의를 위한 공동작업실, 프로젝트 홍보 및 결과발표 구현을 위한 행정 지원	● 해외 페스티벌과 협력하여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업을 국내외에 소개하고 국제 교류를 도모함 ● 현재 공모사업보단 연간 주제에 맞춰 다원예술 커미션 작품을 기획하며 안전하게 완성도 있는 프로젝트를 확보 ● 기획 및 운영에서 기업 자본에 의존도가 높아, 제휴/후원 기간이 끝나면 다원예술 사업 지속이 어려움 ● 다원예술을 "Performing Arts"라고 번역하는 것처럼, 예술적 실험성을 공연성으로의 확장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함
서울 문화재단	복합적인 창·제작/ 발표지원	■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 융합예술작품 전시 및 담론 형성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 지원 규모: 프로젝트 실행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창·제작지원 및 발표 공간 제공 및 통합 홍보지원 ■ 다원예술 유형 선택 사업 구축 - RE:SEARCH, 예술창작활동지원, 청년예술지원, 서울예술축제지원과 같이 창작의 여러 단계를 지원하는 개별 사업들에서 활동분야 및 장르를 다원예술로 선택 가능	● 가변성을 가진 기관 산하 운영공간(대학로극장 쿼드(QUAD), 서울무용센터 등)의 다양성 확보 ● 서울형 축제기획을 통해 다양한 발표 플랫폼의 발굴 및 브랜딩 지원 ● 자체 기획한 기술 융합예술 중심 페스티벌의 영향으로, 다원예술 창작지원사업에서 기술 기반 프로젝트에 편중되는 경향이 보임

기관 (가나다순)	기능	주요 사업	강/약점
예술경영 지원센터	산업화와 창업에 특화된 창·제작, 유통지원	■ 아트코리아랩 - 신진예술가에게 기술역량 강화부터 프로토타입 제작, 그리고 투자 유치를 위한 쇼케이스 발표까지 일련의 과정을 지원 - 프랑스 IRCAM, 대만 C-LAB 등 해외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 제작 및 해외 진출 기회 제공 - 지원 사항: 융합 예술 분야 스타트업에 독립 사무공간, 제작 장비, 다목적 스튜디오를 제공하며, 1:1 맞춤형 보육과 경영 컨설팅(법률, 세무, IR 등)을 지원	● 고가의 하드웨어 및 시연공간을 보유하며, 실험적 시연환경 지원 ● 역량 강화부터 유통 컨설팅 (투자유치, 해외진출)까지 예술의 산업화에 대한 프로세스 전반을 지원 ● 산업적 가치 및 유통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가 가진 사회적 메시지나 미학적 의미보다 단편 기술을 융합해 선보이는 프로젝트들에 편중
한국 콘텐츠 진흥원	콘텐츠 산업과 직결된 창·제작, 유통지원	■ 창·제작/유통 지원사업 - 문화 콘텐츠 산업 전반의 기획과 성장, 확산에 초점을 맞춰, 융합예술 중심의 다양한 단계별 분야별 지원체계를 구축 - 2025년 사업 구조 개편으로, 문화콘텐츠 IP 기획·창작, K-콘텐츠 제작, 문화서비스 기술개발과 같이 3개 내역사업 지원 - 지원 규모: 국내 융합예술 우수 작가·작품 글로벌 유통 지원 최대 60백만원, 콘텐츠 시장 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인큐베이팅 90백만~200백만원	● 콘텐츠 발굴의 개념으로 융합예술의 R&D와 비즈니스 모델 구축부터 해외진출까지 지원 확산 ● 수출 실적, ROI(투자 대비 성과) 등 경제적, 산업적 지표 중심의 평가로 예술가보다 창업자를 양성 ● 전 세계 26개국, 30개소의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거점을 운영하며 콘텐츠의 확산을 연계하지만 다원예술(융합예술)보단 한류/문화 콘텐츠 지원에 집중

📁 주요 유관기관(공공) 다원예술 지원사업 분석에 따른 종합 시사점

① 인프라 중심 단년 지원의 구조적 한계와 창작 속성 기반 부재

- 창작 예산뿐만 아니라 기술 역량 강화와 고가의 인프라, 가변적 공간 지원은 확대되었으나, 신규 프로젝트 발굴 및 단년 지원에 편중되어 다원예술이 지닌 사회적 메시지와 예술적 가치를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② 산업적 성과 지향 정책과 예술적 실험성 간의 논리적 충돌

- 일부 유관기관의 특성상 지원 목적이 산업화 및 시장 진입에 고착되어 있어, 산업화 이전 단계에서 예술적 가치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순수 실험적 창·제작 발굴 사업에서 점차 축소되거나 도구화되는 경향이 강함

③ 생태계 내 인적 네트워크의 휘발성 및 선순환 환류 체계 미비

- 지원사업을 통해 형성된 예술생태계 주체 간 네트워크가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매개 지원이 부재하며, 창작 결과물을 비평·리뷰를 통해 사회적 담론으로 전환하고 생태계 지식으로 축적하는 환류 기제가 빈곤함



다. 주요 유관기관[민간] 5곳

[표 48] 주요 유관기관[민간]

기관	기능	주요 사업	강/약점
파라 다이스 문화재단	우수 다원예술 창·제작 및 발표지원	■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 (자체 기획) - 우수 다원예술 창·제작, 네트워크, 발표지원 - 2024년 아르크 다원예술 창작산실 및 창작주체 선정 작품을 2025년 파라다이스 아트랩 페스티벌에서 연계 지원 - 지원규모: 작품 당 최대 30백만원	● 페스티벌 형식의 브랜딩과 대규모 통합 프로모션 제공 ● 기술 및 대형 시설 등 발표지원 인프라 확보 ● 자체 기획으로 페스티벌 기획 방향성에 부합하는 작품 중심 지원
LG아트센터	우수 다원예술 창·제작 및 발표지원	■ 크리에이터스 박스 (공모, 공동제작) - 2022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예술가, 기획자, 예술단체와 LG아트센터가 실험적 공연을 "공동 제작" - 2026년은 아르크 다원예술 창작산실 및 주체 사업과 연계 - 지원규모: LG아트센터의 기획 및 기술력 연계, 서울 U+스테이지 공간, 제작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유동적 블랙박스 공연장 보유 ● 공동제작으로 기관의 안정적인 제작 및 홍보환경 제공 ● 공동제작의 형식이기 때문에 공연장 브랜드 이미지를 기준으로 창작의도가 수정될 수 있음 ● LG아트센터 서울 U+스테이지에 최적화된 제작으로 다른 장소에서의 재공연이 어려움
플랫폼엘	우수 다원예술 창·제작 및 발표지원	■ 플랫폼 엘 라이브 아츠 프로그램 (공모) - 우수 다원예술 발굴 및 발표지원 - 지원규모: 작품 당 창작지원금 150만원 - 우수작은 지원금(1000만원)과 발표공간을 후속지원	● 후속발표 연계를 통해 지원의 연속성 확보 ● 기관 내 가변성이 우수한 시설과 그에 대한 전문 인력 지원 ● 초기 지원(예산, 장소 등)의 규모가 작아 쇼케이스 발표만 가능
현대 자동차 제로원 플레이 그라운드	우수 다원예술 창·제작 및 발표지원 인력 양성 네트워킹 활성화	■ 제로원 플레이그라운드 크리에이터 트랙 (공모) - 매년 초 예술가, 엔지니어 등의 창작자를 모집하고 스튜디오 환경과 활동비 및 프로젝트 지원 - 지원규모: 프로젝트 지원금 최대 30백만원 ■ 제로원 데이 (자체 기획) - 매년 10월 페스티벌을 매개로 프로젝트 발표와 교류 기회 제공	● 대규모 자본과 기업 인프라 지원 ● 다양한 분야(비즈니스, 기술 등)와의 실질적 네트워킹 및 협업 기회 ● 프로젝트의 시각적 임팩트나 기술적 완성도가 선정과 평가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 ● 현대차그룹의 미래 비전 (모빌리티, 로보틱스, AI, 지속가능성 등) 안에서 진행하며, 예술가가 기업 기술력을 홍보하는 역할이 될 우려가 있음
아트센터나비	인력 양성 역량 강화 프로젝트 아이디어 발굴	■ Nabi 해카톤 시리즈 (자체 기획) - 개발자, 예술가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팀을 이루어 AI, 블록체인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사회적 프로젝트 제안, 발굴 ■ 콘텐츠 창의인재동반사업 (공모) -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 R&D 전문 인력 양성사업과 같이 다양한 인력 양성 및 멘토링 지원 - 우수 프로젝트의 상금 지원(2백~5백만 원) · 그 외에 나비 스쿨, 로봇 공방 워크숍 등 기술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인력 양성 및 교육 중심의 지원	● 2000년 개관부터 축적해 온 한국 미디어아트/융합예술 분야의 역사와 전문성 확보 ● 역량 강화, 아이디어 발굴 등의 교육기반 지원으로 실험적 태도와 미학적 가치에 집중 ● 아이디어 중심의 발굴로 직접적인 프로젝트 실현까지의 연계가 미흡

📁 **주요 유관기관(민간) 다원예술 지원사업 분석에 따른 종합 시사점**

① **기업 인프라 기반의 브랜드 강화**

- 대규모 제작 예산과 기업 보유 확산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다원예술의 대중적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를 단기간에 확보하고자 함

② **가변적·대안적 공간 확보**

- 가변적 무대와 디지털 시연 시설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다원예술 특유의 공간 실험을 지지

③ **기술 융합 주도의 산업 연계형 R&D 지향**

- AI, 로봇틱스, 모빌리티 등 기업의 미래 비전과 예술적 상상력을 결합하여 기술 중심의 융복합 시도를 주도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통해 예술의 산업적 확장성을 모색함



제2절 창·제작발표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1. 과정 중심 지원체계 도입

가. 논의 배경

- * 현행 창·제작발표는 단년 지원체계 및 완성된 결과물 중심으로 평가됨에 따라, 다원예술 고유의 실험성 및 과정 탐구 특성과 구조적으로 충돌하는 한계가 발생함
- * 이를 해결하기 위해 1차 연도 연구에서 제기된 '과정 중심 평가 모델'의 필요성을 2차 연도 워킹그룹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 구조로 구체화하고자 함

나. 과정형 피드백 요건화

- * 아티스트 토크, 애프터 토크, 비평 및 관객 리뷰 등 정성적 피드백 수렴 구조를 사업 기획 단계부터 의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 * 기존 아트앤테크 사업의 단계별 지원(아이디어→쇼케이스→발표) 구조가 창·제작발표의 R&D형 단계 도입을 위한 적절한 참고 사례로 언급됨
- * 다원예술 창작주체 사업(다년)에서 매년 진행되는 모니터링에서도 완성작과 같은 결과물보다는 다년 사업의 특성과 과정의 가치에 집중하는 다원예술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예산 안에서 빠듯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나 리뷰, 정성적인 평가를 놓치기 쉽습니다. 텍스트로 남지 않더라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나 애프터 토크 같은 자리가 애초에 사업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었다면 좋겠습니다.

[...] 과거 아트앤테크 사업에서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프로토타입으로 발표하는 등 스텝별로 나누어 지원을 했었는데, 다원예술의 확장과 개척 역시 그러한 단계적 지원으로 구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MDA2002)

"3개년 사업은 단지 작품이라는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깊이 탐구하고 리서치하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기에 그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1년 차의 연구와 기록 과정은 배제된 채, 쇼잉에서 잠깐 실험한 결과물만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되었습니다." (MDA2013)

"다년 사업의 1차 연도는 리서치 및 조사·연구 단계가 많은 편인데, 지원사업 평가위원들은 단년 사업(결과물 확인 등)의 현장 평가 방식에 좀 더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추후 다년 사업 및 과정 중심형 사업의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전 별도 안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DA2004)

다. 리서치 전용 트랙 신설 제안

- * 처음 다원예술에 진입하려는 창작자나 타 장르 창작자를 위해, 완성도 경쟁의 부담을 덜 '리서치 단계 전용 지원 트랙' 별도 신설이 제안됨
- * 이는 다원예술 신규 진입 창작자가 기존 다원예술 생태계 내에서 활동 중인 창작자들과 동일한 풀(Pool)에서 완성도로 경쟁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함임
- * '확장·개척'과 같이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표현의 유형 구분보다는, '리서치 단계'와 '발표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접근이 현장에 더 실효적이라는 방향성이 제시됨

"확장과 개척을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결국 통합 심의를 하게 되고, 완성도 높은 지원서가 선정되는 구조이므로 유형 구분의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MDA2006)

"신진 작가들이 모인 경쟁 구도에 중견 작가가 함께 신청하면 완성도 면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다원예술로 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리서치 단계 지원이 가능한 트랙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창작자 입장에서는 확장과 개척을 구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리서치 기반의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MDA2008)

"결과 지향적이기보단 리서치와 실험을 조금 더 할 수 있는 단계, 즉 간단한 프로토타입이나 쇼케이스 발표를 할 수 있는 트랙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도 좋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MDA2002)

"청년들의 다원예술 수요는 분명히 있으나 그것을 온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창작의 과정' 사업처럼 리서치와 과정 중심의 예술로 전환하는 지원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DA2010)

라. 단계별 예산·목표의 구분

- * 다년 지원 시 연차별 수행 과제와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방향이 제안됨
 - (예시) 1차 연도는 리서치 및 준비, 2차 연도는 제작 및 발표
 - 현행 연차별 동일 지원금 구조의 한계를 개선하여, 준비 단계(1년 차)에는 소액, 작품 발표 단계(2년 차)에는 증액하는 예산 차등 배분 방안이 제안됨
- * 단년 지원 역시 단순 발표를 넘어 기획 숙성, 자문, 비평, 관객 리뷰 등의 과정을 포함하여 내실화해야 함

"현재 다년 지원사업의 경우 3년간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상태인데, 3차 연도에는 제작 및 발표를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부족하다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 다년 사업을 2년 지원으로 변경하고 1차 연도에는 조사연구 및 작품 준비 과정, 2차 연도에는 제작 및 발표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추가 검토 중입니다." (MDA2004)

"다년 지원 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기보다는 전체 예산 안에서 연차별로 비율을 나누어 활용할 여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차에는 탐구와 리서치 위주이므로 예산을 조금 줄이더라도,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2년 차 이후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필요하므로 더 많은 예산을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MDA2013)

"단년 지원의 경우에도 단순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기획을 좀 더 숙성시킬 수 있도록 단계를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 설계 시점부터 자문, 비평, 관객 리뷰 등의 소통 장치를 요건화한다면, 기획 준비부터 발표 이후까지 작품의 내실을 깊이 있게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MDA2002)



[표 49] 창·제작발표 - 1) 과정 중심 지원체계 도입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단년 및 결과물 중심 평가와 다원예술의 실험성 간 구조적 충돌 발생 - 1차 연도의 '과정 중심 평가 모델'을 실질적 사업 구조로 구체화
창작 집중형 피드백 요건화	- 과정의 가치와 다년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목표와 평가 기준이 필요 - 아티스트 토크, 비평 등 정성적 피드백 수렴의 사업 요건화
리서치 트랙 신설 제안	- 신규 진입자 보호를 위해 기성 작가와의 완성도 경쟁 풀(Pool) 분리 - 모호한 유형 구분 대신 '리서치 단계'와 '발표 단계'로 구조 명확화
단계별 예산·목표의 구분	- 다년 지원 시 연차별 목표 설정 (1년 차: 리서치, 2년 차: 제작/발표) - 연차별 동일 지원금 한계 개선 (준비 단계 소액, 발표 단계 증액)

2. 단·다년 지원 구조 전환

가. 논의 배경

- * 1차 연도 연구에서 사용된 '약한 다원'과 '강한 다원'이라는 표현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자, 다원예술 진입을 위한 '확장(기존 장르 기반 협업)'과 '개척(제3의 실험적 방향)' 트랙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제안됨
- * 그러나 실제 현장과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유형 구분이 명확히 작동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원예술을 특정 장르처럼 규정하여 진입 장벽을 높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 이에 따라 인위적인 트랙 구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이를 사업 공모 유형이 아닌 방향성 안내(가이드)로 활용하되, 실질적인 지원 구조는 사업 수행 기간(단년/다년)을 기준으로 개편하는 논의로 발전함

나. 유형 구분의 필요성 재점검

- * 확장·개척 구분 자체가 스펙트럼의 범주이며, 실제 사업에서 명확히 가르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 * '강한 다원'의 핵심이 결과물의 장르 융합이 아니라 과정 탐구의 깊이와 다학제적 사고에 있다고 정의함
- * 다원예술이 특정 장르처럼 인식되어 진입 장벽이 형성되는 현실이 지적됨

"확장과 개척을 분리해서 각각 몇 건을 뽑는다고 정해놓지 않는 이상, 결국 통합해서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유형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실무적으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MDA2006)

"단순히 결과물적으로 장르들이 융합된 것이 약한 다원이라면, 그 과정 안에서 학제 간 통합적 사고를 하며 장르를 넘어선 사유를 하는 것이 강한 다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이 장르 간 융합처럼 느껴진다면, 개척은 과정에 있어 더 의미 있고 열린 탐구로 나아가는 방향 같습니다." (MDA2013)

"창작자들에게 다원예술로 지원해 보라고 제안했을 때 '내가 감히 다원예술을 지원해도 돼?'라며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원예술 하면 떠오르는 기성 예술가들의 이미지가 너무 커서 스스로 진입 장벽을 높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MDA2002)

"자기 작업이 다원 분야라고 생각한다면, 다원이라는 이름으로 장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가이드라인이 계속 제공되고 쌓이다 보면 오히려 다원예술이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MDA2008)

다. 심사 단계에서 유형 구분의 실효성

- * 공모 유형을 구분하더라도 심의를 통합하여 진행하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경험적 한계가 지적됨
- * 과거 심사에서도 실험적 유형을 별도 구분했으나, 결과적으로 완성도 높은 기성 지원서 위주로 선정되는 쏠림 현상이 발생함
- * 유형 구분의 실효성을 위해 유형별 심의 풀(Pool)을 완전히 분리하거나, 다원예술의 가변성과 모호성(자율성)을 수용하기 위해 창작자에게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과거에 실험적인 시도로 유형을 구분했을 때도 결국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는 것은 완성도가 더 높은 기성 지원서였습니다. 심사 트랙이 완전히 나누어지지 않는 이상, 산실 안에서 유형을 구분해도 결국 통합해서 심의를 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진입 문턱을 낮히거나 실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유형을 나눈다면, 창·제작발표와 플랫폼 및 기획·발굴을 분리하는 것처럼 아예 트랙을 나누어 심의 자체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MDA2006)

"지원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많이 제공되고 그것이 쌓이다 보면, 오히려 다원예술이 하나의 장르화가 되어 본래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개척과 확장의 작업이 나오려면 가이드라인이 최소한으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DA2008)

[표 50] 창·제작발표 - 2) 단·다년 지원 구조 전환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1차 연도의 '강한/약한 다원' 오해를 줄이기 위해 '개척/확장' 트랙 용어 제안 - 인위적 구분의 한계에 따라 공모 유형 대신 단·다년(기간 중심) 개편으로 선회
유형 구분의 실무적 한계	- 개척·확장은 스펙트럼 범주로 명확한 분리가 어려움 - 단순 융합을 넘어선 다학제적 과정 탐구의 깊이가 다원예술의 핵심
통합 심의 한계 및 유형화 우려	- 통합 심의 시 결국 완성도 위주로 선정되어 유형 구분의 실효성 상실 - 무리한 유형화는 다원예술을 특정 장르로 가두는 진입 장벽(역효과) 초래



3. 연계 공간의 다양화 및 지역 발표 확산화

가. 논의 배경

- * 다원예술 특성상 발표 공간의 부족, 서울·수도권 집중, 하반기(9~12월) 발표 쏠림 현상이 고질적인 문제로 논의됨
- * 이를 해소하기 위해 26년도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 LG아트센터 및 서서울미술관 등 주요 기관과의 공간 연계 지원이 본격 시도됨
- * 지역 작가 우대를 위한 기존의 거주지·출신 기준이 실효성이 낮음을 확인하고, 발표 장소를 지역으로 선택할 경우 혜택을 주는 기준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됨

나. 발표 공간의 조건과 개념 확장

- * 비수도권의 다원예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지역 예술가들조차 관객 및 네트워크 인프라가 갖춰진 서울 발표를 강하게 선호하는 현실이 지적됨
- * 기존 공간 지원사업이 단순한 임대료 보조나 대관에 그쳐, 다원예술 전용 기획력을 갖춘 자생적 공간 거점이 드물다는 구조적 한계가 확인됨
- * 특정 장소의 역사성과 특성이 창작을 심화시키는 사이트 스페시픽(장소 특정적) 작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 * 이에 다원예술 공간의 개념을 기존 물리적 실내 공간(화이트·블랙박스)에 국한하지 않고, 야외, 비정형 공간, 나아가 온라인 및 가상 공간(메타버스)까지 유연하게 확장해야 함

"지역 소재 작가로 선정되어도 결국 최종 발표는 서울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지역에서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면 관객을 모집할 수가 없고, 아직은 지역에서 네트워크도 부족하며 다원예술 작품을 발표할 공간이 문예회관(기존 장르 발표 위주 공간) 정도밖에 없다는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현재 다원예술 공간 지원을 받는 곳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단순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아도 자체 기획 프로그램은 일정 기간 1~2개 정도에 그치며, 주로 공간을 운영하는 대표만 있을 뿐 전담 기획 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MDA2004)

"이미 완성된 작품을 장소와 상관없이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장소의 특성에 따라 작품이 계속 변화하는 실험이 다원예술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특성의 공간들과 연계된다면 아티스트들이 그곳에서 또 다른 새로운 시도들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MDA2013)

"여전히 다원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수많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탐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간 선정만큼은 기존의 물리적 건물을 넘어 온라인과 야외 공간 어디든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MDA2011)

"다원예술에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를 반드시 물리적인 건물에만 한정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온라인이나 가상의 공간 역시 예술가들이 훨씬 더 재미있고 새로운 방식의 작업을 실험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MDA2009)

"제주의 다원예술 사례를 보면 화이트큐브나 안정적인 실내 공연장이 아니라, 해수욕장 같은 지붕 없는 야외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처럼 다원예술은 실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붕 없는 개방적인 공간까지 그 영역을 넓혀서 포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MDA2014)

다. 연계 지원 효과 및 편중 해소

- * 공간 연계 지원은 창작자의 발표 장소 섭외 스트레스 경감, 기관 차원의 홍보·마케팅 지원, 제작 및 기획 완성도 향상이라는 강력한 긍정적 효과를 냄
- * 그러나 현재 연계된 LG아트센터, 서서울미술관에서 지원하는 시설이 공연/퍼포먼스 위주에 편중되어 있어, 시각·설치 기반 창작자들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됨
- * 하반기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연계 공간의 발표 시기를 상반기까지 탄력적으로 분산하는 방안이 검토됨
- * 지역적·역사적 특성이 뚜렷한 장소와 연계하여 기획할 경우, 운송비 등 추가 혜택이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긍정적 유인책이 제안됨

"연계 지원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만족합니다.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을 선정하고 섭외하는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이자 부담인데, 개인이 공간 섭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안정적인 기관의 지원을 통해 작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 단순히 서울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역사성과 고유한 스토리를 지닌 특수한 지역 공간을 타겟으로 기획할 경우 그에 따른 메리트를 제공하면 좋겠습니다. 지방의 매력적인 공간을 발굴하여 작업할 때 운송비 등 추가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면 창작자들에게 좋은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MDA2008)

"공간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예술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홍보나 작품을 발전시키는 과정까지 기관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안정적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기획과 홍보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면 작품의 완성도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MDA2006)

"LG아트센터는 원래 공연장으로 유명하고 서서울미술관 역시 퍼포먼스 기반의 다원예술을 주로 다루다 보니 공간의 이미지가 다소 한정적입니다. 이 때문에 시각예술 기반이나 전시, 리서치 형태의 다원예술을 하는 창작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연계 사업이 특정 공연형 작업만 강조하려는 의도나 우려 섞인 질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 그리고 매년 9월부터 12월 초까지 마치 축제 기간처럼 다원예술 발표가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경향이 있어, 연계 공간을 다양화하여 발표 시기를 상반기나 여름 등으로 탄력적으로 분배할 수 있다면, 창작자 입장에서도 발표 후 사업을 확장하고 다음을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어 긍정적일 것입니다." (MDA2002)

"시각 기반 창작자들로부터 전시 공간 연계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일부 있습니다. 다만 지원 단가 상향 이후 협력을 희망하는 외부 공간들은 대부분 실험적 퍼포먼스 및 새로운 형식의 신작 발표를 원하는 추세여서, 전시 형태만으로는 연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코미술관 등 내부 공간 연계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다원예술 창작자들의 발표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다 보니 공간 대관 경쟁이 치열해져 정작 본인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간 연계 지원은 결국 하반기에 쏠려 있는 발표 시기의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분산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MDA2004)



라. 가변적 공간 연계 및 실효적 지원 확대

- * 창작지원금 상향(최대 7천만 원) 이후, 예산 여력이 생겨 지역과 서울에서 이중 발표를 시도하는 긍정적 사례가 나타나며 실효성을 입증함
- * 규정된 공연장/전시장보다, 전시와 공연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층고 높고 텅 빈 가변형 공간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매우 높음
- * 야외 공간 연계 시 3년 이상 운영 실적 요건(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공모 형태로는 편입이 어려우므로, 아코 차원의 협조 공문이나 행정적 지원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우회로가 제시됨
- * 자체 공간 지원사업 개선안으로 26년도부터 대관료 30% 이상 할인 및 선정 예술가 연계 발표 의무를 부과하고, 심의위원의 사전 공간 컨설팅 방문을 실시하여 공간 기획력을 끌어올리고자 함

"다원예술 창작자들은 정형화된 객석이나 무대보다는 층고가 높고 텅 빈 도화지 같은 열린 캔버스를 필요로 합니다. 제주의 '빛의 벙커' 사례처럼 공간 특유의 몰입도를 바탕으로 전시와 공연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가변적 공간들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MDA2014)

"아코 다원예술창작산실 지원 단가가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과거보다는 예산에 일부 여유가 생기고, 제주(지역)에서 프로젝트를 실험적으로 창작과정을 공유하고 서울에서 최종 발표하는 등 두 번 정도 발표를 나누어서 시도하는 긍정적 사례들도 일부 생기고 있습니다."

[...] 공간 연계 시 3년 이상의 운영 실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최근 가장 중요해진 '안전 문제' 때문이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간 등은 공모로 선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야외를 사용할 경우, 예술위원회 차원에서 선정 단체임을 보증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대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방식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 이번에 아코에서 공간 지원사업의 단가를 올리면서 대관료 30% 이상 할인과 선정 예술가들의 연계 발표를 조건으로 개선 했습니다. 더불어 다원예술 심의위원들이 사업 추진 전 직접 사전 컨설팅을 다니며 공간 시설을 확인하고, 어떤 예술가들이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지 등 함께 고민하여 공간의 기획력을 끌어올리고자 하였습니다." (MDA2004)

[표 51] 창·제작발표 - 3) 연계 공간의 다양화 및 지역 발표 확산화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발표 공간 부족, 하반기·수도권 쏠림 해소를 위해 주요 기관과의 공간 연계 도입 - 지역 안배 기준을 거주지/출신에서 실효성 있는 '발표 장소' 기준으로 전환 제안
공간 한계 및 개념 확장	- 지역 예술가의 서울 선호 현상 및 기존 공간들의 기획력 부재 한계 노출 - 사이트 스페시픽 특성 반영 및 공간 개념의 야외·온라인·메타버스 등 유연한 확장
연계 효과 및 편중 해소	- 공간 섭외 부담 완화 및 기획 완성도 향상의 효과가 있으나 특정(공연형) 성향 편중 우려 - 발표 시기 분산 유도 및 특수/역사적 공간 연계 기획 시 추가 혜택 부여 검토
가변적 공간 및 지원 확대	- 지원금 상향을 통한 지역+서울 이중 발표 사례 등장 등 실효적 활성화 가능성 확인 - 전시/공연을 아우르는 대형 가변 공간 선호 및 '26년도 공간 연계/할인 요건 강화 도입

4. 발표 후속 지원 및 비평·기록 연계

가. 논의 배경

- * 발표 이후 단계에서의 재연·확산·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지원 부재가 다원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논의됨
- * 특히 다원예술 분야 전문 비평가가 부재하다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됨
- * 발굴된 우수 작품이 단년 사업 종료 후 재연 및 확산 기회를 얻지 못하고 1회성으로 소모되는 문제 또한 핵심 이슈로 부상함

나. 외부 기관 연계 확산 현황과 아르코의 직접적인 기획 매개 제안

- * 파라다이스문화재단은 자체 사업에서 우수 작품의 재연을 타 기관과 연계하려 시도했으나, 기관 간 니즈 차이와 별도 예산 미확보로 성사가 어려웠던 현실적 한계를 공유함
- * 공공 차원의 확산 지원은 예산 직접 배분보다는 연계·매칭을 돕는 방식이 채택됨
- * 단발성 발표로 끝나는 아쉬움을 해소하기 위해, 우수 작품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재연하는 방안이 제안됨

"저희도 창작지원을 한 작품을 한 번만 보여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타 기관의 미술관이나 축제에 직접 확산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기관마다 니즈가 다르고 별도의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동비나 설치비만 제안하더라도 결국 성사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 다원예술은 영상이나 리뷰만으로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관객이 직접 현장에서 체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제작발표 우수 사례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재전시나 재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 예술가들이 작품의 성과를 더욱 깊이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MDA2006)

"확산 지원을 위해 예산을 직접 배분하려 하면, 아르코와 타 기관의 역할이 중첩된다는 내부 우려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기관 간의 매칭과 연계를 돕는 우회적인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MDA2002)

다. 생태계 담론 형성을 위한 비평 대안 모색

- * 앞서 창·제작발표에서 도입을 제안한 아티스트 토크, 관객 리뷰 등의 정성적 소통 구조를 단순한 행사로 끝내지 않고, 생태계 전체의 활성화와 담론 형성을 위한 마중물(기초 아카이빙)로 적극 활용해야 함
- * 다원예술 전담 비평가가 부족하여 비평 의뢰 자체가 창작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이 확인됨
-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술계 내부 비평가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관련 타 분야 전문가(예: 물리학자, 사회학자 등)에게 비평을 의뢰하여 다각도의 해석을 도출하는 방식이 제시됨



"현재 다원예술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비평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다원예술 작품을 접하고 예술 현장을 폭넓게 보고 글을 써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비평 인력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MDA2004)

"관객 리뷰나 비평 같은 정성적인 피드백 환류 장치를 사업 설계부터 의무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텍스트로 남지 않더라도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아티스트 토크나 애프터 토크 같은 자리가 애초에 설계 단계부터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창작자분들 입장에서는 비평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 비평 쪽에 아는 사람이 없다며 고민과 부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제도적 장치화가 된다면, 기획 준비 단계부터 자신의 작업을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전문가나 관객을 스스로 찾아 소통하고, 발표 이후까지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 "다원예술만을 전문으로 평론하는 분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존 예술 장르의 비평가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프로젝트의 성향에 따라 물리학자나 종교학자 등 타 분야 전문가에게 직접 비평을 의뢰하고 그 과정에서 소통한다면, 작품의 의도와 가능성을 짚어내는 다각도의 텍스트가 도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MDA2002)

라. 다원예술 비평·기록 사업 및 페스티벌 연계 제안

- * 창·제작 사업과 비평 사업을 연계하여, 창작자가 직접 비평가를 섭외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함
- * 페스티벌(플랫폼) 사업과 연계하여, 기존 창·제작발표에서 발굴된 우수 작품이 페스티벌을 통해 자연스럽게 재연 및 확산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방향이 제안됨

"신규 페스티벌을 통해 국내 확산을 살릴 수 있는 다원예술 생태계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존에 발굴된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해 재연과 초연을 섞어 발표하며 향후 투어까지 연계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MDA2004)

"창작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잘 이해하고 이야기해 줄 비평 인력을 직접 찾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창작자가 섭외에 대한 고민을 덜고 창·제작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비평을 자연스럽게 연계받을 수 있는 구조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 다원예술을 선보일 수 있는 플랫폼 역할로 페스티벌을 발굴하여 키워가고, 향후에는 기존 아코 사업에서 발굴했던 우수 프로젝트들을 이 페스티벌에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재연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식이 될 것입니다." (MDA2002)

[표 52] 창·제작발표 - 4) 발표 후속 지원 및 비평·기록 연계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재연·비평·기록문화 활성화 등 발표 이후 후속 지원 부재 - 다원예술 전문 비평가 부재 및 우수 작품의 재연 기회 부족의 현황
외부기관 재연·확산 연계	- 예산 부재 및 기관 간 니즈 차이로 인한 직접 확산 연계의 현실적 한계 확인 - 타 기관 역할 중첩 우려로 예산 배분 대신 '매칭 지원' 및 '우수작 기획전' 제안
담론 형성·대안 모색	- 토크 및 리뷰 등 소통 결과물을 담론 형성의 매중물(비평·기록문화 활성화)로 활용 - 비평 섭외 부담 완화를 위해 타 분야 전문가(물리학자 등) 의뢰 대안 제시
비평·기록문화 활성화·페스티벌 연계	- 공모 기반 민간 운영단(공동 편집단) 선발 및 통합 플랫폼 내 전용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 - 창작자의 비평 섭외 부담 경감 및 우수작의 페스티벌 재연 연계 경로 마련

5. 다학제적 심의 풀 구성 및 평가 기준 개선

가. 논의 배경

- * 다원예술은 특정 장르로 귀속되지 않는 다학제적 특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이 여전히 특정 기성 장르의 프레임으로 사업을 평가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 타 장르 대비 전문 인력 풀(Pool)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지원자 배제 제도 및 자천 방식이 맞물려 핵심 심의 인력이 고갈되고, 타 분야 인력이 투입되는 등 심의 풀 구성의 구조적 한계가 확인됨
- * 결과 중심의 현행 평가 기준이 다원예술 고유의 특성(실험성, 협업 등)에 충분히 특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됨

나. 독립적인 심사 프레임워크와 다학제적 심의 풀의 필요성

- * 다원예술로 진입하여 타 분야 전문가와 협업하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여전히 기존 장르 프레임으로만 좁게 평가받았던 경험이 공유됨
 - 심의위원의 장르 중심적 발언과 기준이 새로운 융합을 시도하는 창작자에게 강한 심리적 장벽 및 자가 검열로 작용함이 드러남
- * 앞서 비평 활성화 논의에서 타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제안되었듯, 심의 단계에서도 특정 예술 장르 전문가에 국한하지 않고 협업 파트너 성격을 지닌 다양한 분야(과학자, 철학자 등)를 포함해 '다학제적 평가자 풀'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몸이라는 주체에 대해 탐구하다 보니 과학, 철학 등 다른 분야 전문가들과 자연스럽게 만나며 작업이 확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심의나 비평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여전히 무용의 언어로만 바라보거나 기존 장르의 좁은 프레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 분명 제 고유의 작업 기반에서 점차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인데, 심사 과정에서 자꾸 타 장르의 시선으로 평가받다 보면 '다원예술이라는 이름에 맞춰 아예 다른 새로운 걸 해야 하나'라는 의심과 고민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장르 중심적인 기준과 이야기들을 계속 듣게 되면 창작자 스스로 자기 검열이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MDA2013)

"다원예술 프로젝트마다 협업하는 분야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도와 가능성을 제대로 짚어내기 위해서는 심의 및 평가자 풀이 기존 예술 장르 전문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양한 프로젝트와 연계된 타 분야 전문가들이 일부 심의와 비평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학제성을 고려한 전문가 그룹 구성이 필요합니다." (MDA2002)



다. 다원예술 전문 심의위원 풀 구성의 어려움

- * 다원예술은 동시대 트렌드와 다학제적 접근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존 장르에 비해 다원예술 전문성을 갖춘 전체 인력풀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임. 향후 다원예술 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풀 구분(별도) 관리로 적극적인 전문가 발굴 필요함
- * 결과적으로 다원예술 현장과 다소 거리가 먼 기존 장르 전문가 및 교수진이 심의에 참여하거나, 다원예술 사업 복원 과정에서 다원예술 사업 폐지 이전에 구분되어있던 '문화일반'과 '다원예술'의 심의위원 풀이 병합되면서 전문가 풀 관리에 구조적인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현재 심의위원 풀은 본인이 직접 자신을 추천해서 들어오는 자천 방식이 많은 편이며, 정작 실제 역량을 갖춘 분들은 일정이 바쁜 관계로 스스로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풀 안에 등록된 사람 안에서만 심의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보니 전문 인력을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예술 현장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 싶어도, 대다수가 직접 공모에 지원 신청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심의위원 자격을 잃고 배제되는 한계가 발생합니다.

[...] 과거에 독립되어 있던 다원예술이 문화일반 카테고리 안으로 병합되면서, 문화 일반에 속한 타 분야 인력들이 본인을 다원예술 전문가로 자천하여 다원예술 심의 풀에 들어와 있는 등 전문가 풀 관리상 구조적 혼선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MDA2004)

"이러한 심의위원 풀 구성의 어려움은 아르고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재단에서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그렇게 자천 방식으로 들어온 비전문가들은 지원 시스템이나 사업의 본질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MDA2014)

라. 다원예술 특화 평가 기준 개선 의견

- * 현행 평가 기준(주체의 역량·작품성·실현 가능성·공공성)이 다원예술 특유의 과정 중심적 성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인식이 있음
- * 특히 '주체의 역량' 평가 시 경력과 실적을 중점적으로 보면 구조적으로 중견 이상의 기성 창작자에게만 유리하게 작동할 우려가 있음
- *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업을 대하는 민주적 태도, 관계 설정, 다학제적 방법론 등 '다원예술적 접근 방식' 자체를 평가 지표에 신설·포함하는 방향이 제안됨
- * 현재 세부 평가 지표는 공모 안내문 명시 대신 내부 공유 및 모니터링 기준으로만 운영되며 매년 보완되고 있는데, 이번 워킹그룹의 세부 논의 항목들이 27년도 사업 설계에 검토 및 반영될 예정임

"현재 심의 기준을 보면 주체의 역량, 작품성, 실현 가능성, 공공성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구분되는데, 이를 다원예술에 맞게 보완하거나 평가 항목 부분들을 절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주체의 역량 평가 시 경력이나 수행 실적을 보게 되는데, 결국 경험이 많은 중견 이상 기성 창작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분야와 마주할 때 어떤 태도로 협업할 것인지 등 본인의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지표를 함께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 협업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 기준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MDA2002)

"현재 심사 기준으로는 과거에 쌓은 레퍼런스와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견 작가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성 장르에서 넘어와 새롭게 시도하려는 탐구 정신이나 실험 정신 자체를 어떻게 더 높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DA2014)

"세부 평가 지표는 공모 안내문에 명시하기보다 현장 모니터링을 가시는 전문가분들께 내부적으로 공유하여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현장 상황에 맞춰 매년 조금씩 보완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MDA2004)

[표 53] 창·제작발표 - 5) 다학제적 심의 풀 구성 및 평가 기준 개선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기성 장르 프레임에 갇힌 심의 방식 및 핵심 전문 심의 인력 고갈의 한계 노출 - 결과 중심에서 벗어나 다원예술 고유 특성을 반영할 특화된 평가 기준 마련 대두
프레임 한계·다학제 풀	- 장르 중심적 기준이 창작자의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 - 과학자, 철학자 등 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다학제적 심의 풀' 구성 제안
전문 심의 풀 구성의 어려움	- 절대적 인력 풀 부족과 지원자 배제 제도가 맞물려 핵심 전문 심의 인력 고갈 - 다원예술 전문가 부족과 일부 문화일반 유입 인력 및 타 장르 인력 투입으로 혼선 가중
평가 기준 개선 의견	- 경력·실적 위주의 평가가 중견 작가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 지적 - 협업 태도 및 다학제적 방법론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27년도 사업 반영 예정



제3절 플랫폼 및 기획·발굴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1. 다원예술 플랫폼 기획·발굴 체계 확장

가. 논의 배경

- * 1차 연도 FGI 연구에서 다원예술 발표 플랫폼 부재가 지적됨에 따라, 아이디어나 프로토타입, 중소 규모 쇼케이스를 발표할 수 있는 살롱 형식의 소규모 무형 매개 플랫폼 필요성이 도출됨
- * 이를 반영해 실제 2026년 다원예술 창작산실 사업 내 '소·중규모 페스티벌 지원' 트랙이 시범적으로 신설되었으며, 2차 연도 워킹그룹에서는 이를 플랫폼 및 기획·발굴 사업 내 '기획·발굴' 트랙으로 본격 설계하기 위한 방향을 집중 논의함
- * 특히, '페스티벌'의 경우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 간의 네트워킹부터 다원예술 발표와 모객까지, 생태계 내 복합적인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기능이자 장(場)으로써 접근하려는 기획 의도가 포함됨

나. '페스티벌' 용어 한계 및 개념 재정의

- * 1차 연도 FGI 연구에서 제시된 '마이크로 페스티벌(이하 다원예술 페스티벌)'이나 '살롱'이라는 용어는 자칫 다원예술 작품의 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축소하는 역효과를 줄 우려가 제기됨
- * 동시에 '축제'라는 용어는 대규모 혹은 관행적인 아웃풋으로 기획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어, 지원서 상 공식 명칭은 '플랫폼', '기획·발굴'과 같이 포괄적인 용어로 전환하되 배경 개념으로만 유지하는 방식도 제시됨
- * 규모가 작더라도 다원예술 생태계 내에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작동하여, 지속적인 동력을 갖는 기획(플랫폼)을 발굴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재정의됨

"처음 '마이크로 페스티벌'이나 '살롱'이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자칫 다원예술을 작은 규모의 작품으로만 한정 짓는 위험이 있지 않나 우려되었습니다." (MDA2012)

"지원 서류에 '페스티벌'이나 '축제'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면, 기존 축제의 인상 때문에 규모나 보여주거식 아웃풋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배경에는 마이크로 페스티벌이라는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공식적으로는 '기획·발굴'이라는 명칭으로 접근하여 작성하고자 합니다.

[...] 마이크로 페스티벌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축제라기보다, 규모가 작더라도 반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을 가진 기획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플랫폼 형식으로 꾸준히 작동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MDA2002)

다. 프로토타입 개념 적용 및 모객 의무 완화

- * 다원예술에서 자주 언급되는 프로토타입은 완성본 도출이 아니라, 예술적 실험이 기획 의도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일종의 '베타 테스트' 과정이자 단계로 정의해야 함
- * 따라서 관객 동원의 의무를 강요하거나 이를 정량적 근거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창작자가 기획 단계부터 실험 목표에 맞춰 관객 규모를 직접 설정하고 운영하도록 해야 함
- * 또한, 관객 리뷰나 전문 비평 등 정성적 피드백 수렴을 의무화(요건화)하는 방향이 실효적 대안으로 논의됨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과정을 지원할 때 도출되는 결과물의 형태로, 간단히 말해 관객 동원에 대한 의무를 주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즉, 프로토타입의 모든 과정은 일종의 실험 단계이며, 내가 예상한 실험의 목표와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베타 테스트' 수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누구에게는 작동 확인을 위해 5명만 있어도 되고, 누구에게는 100명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확인하고자 하는 실험 목표와 향유 방식에 따라 필요한 관객 규모를 예술가 스스로 설정하고 기획 단계부터 설명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MDA2011)

"평가 지표에 정량적인 모객 기준보다는 정성적인 피드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따라서 사업 설계 단계부터 관객 리뷰나 비평 같은 정성적인 피드백 환류 장치를 의무적으로 요건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MDA2002)

라. 규모 중심 유형 분리

- * '26년도 시범 운영 결과, 신규 발굴 취지와 달리 기성 다원예술 페스티벌이 예산을 축소해 지원하거나 문화일반(각 지역축제) 영역의 행사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함
- * 유형1의 대상은 완전한 신진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을 갖춘 기획자(협력 파트너)임을 명확히 함
- * 결과적으로 인력 양성(유형1)과 프로젝트(유형2)를 혼재시키기보다, 직관적인 기준에 따라 '소규모 페스티벌 지원'과 '중규모 페스티벌 지원'으로 규모 중심의 명확한 구분을 두자는 대안이 제시됨

"소·중규모 시범 운영은 신생 다원예술 발굴이라는 의도와 달리, 기존 장르 페스티벌의 답습(중규모)이나 비(非)다원 이종 장르의 진입(소규모)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신규 기획(안) 사업은 어느 정도 현장 경험이 있는 기획자와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려는 생각이므로 단순한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MDA2004)

"아무리 작은 규모라도 페스티벌의 보조 기획자 등 실무를 경험했다는 경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어보고 싶은 기획자가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지원이 활용되어야 합니다.

[...] 기획자를 양성하는 것과 기획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원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사업입니다. '다원예술 페스티벌을 지원하는데 소규모가 있고 중규모가 있다'는 식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규모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MDA2011)

[표 54] 플랫폼 및 기획·발굴 - 1) 다원예술 플랫폼 기획·발굴 체계 확장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생태계 내 복합적인 이슈들을 통합 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 기능이자 장(場)으로써 접근 - 자생적인 무형 매개 플랫폼의 부족에 따른 '소규모 축제' 트랙 신설 배경
용어의 개념·한계 검토	- '마이크로/살롱'은 규모 제한, '축제'는 대형화 편향 우려가 있어 '기획·발굴' 명칭 제안 - 단회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반복적 예술 이벤트(플랫폼) 발굴에 초점
창작자의 모객부담 완화	- 다원예술 플랫폼 기획·발굴을 통해 창작자가 창작 과정과 발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정량적 모객 평가 탈피 및 비평·관객 리뷰 등 정성적 피드백 수렴 요건화
규모 중심의 유형 분리	- 기성 축제 및 타 장르 유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규 기획·발굴 트랙 재설계 - 규모 기준(소/중규모)으로 지원 유형 명확화



2. 다년 지원사업의 재점검

가. 논의 배경

- * 기존 창작산실 사업의 창작지원은 3년 지원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원 기간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 특히 '1차 연도(자료 조사)·2차 연도(중간 발표)·3차 연도(해외 진출)'의 구조가 암묵적 관행으로 고착되면서, 창작자들이 예산과 기간에 맞춰 불필요하게 계획을 늘리는 경향이 나타남
- * 페스티벌 사업의 다년 운영 가능성 논의와 맞물려, 플랫폼 및 기획·발굴 전반의 단·다년 지원 구조 및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대두됨

나. 다년 지원사업 현황

- * 창작주체의 다년 지원의 선례에서 긴 호흡의 3년 지원 구조 안에서 오히려 2년 차 이후 창작의 방향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함
- * 특히, 1차 연도의 주된 활동이 '자료 조사 및 리서치'에 머물러 실질적인 중간 평가 기준 등의 구조적 개선 검토가 필요함
- * 예산의 경우, 현재 총액 내에서 3회에 걸쳐 매년 동일한 예산(5~7천만 원)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각 단계별로 필요한 예산 요건이 상이한 현실이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임
- * 지원단계에서도 지원공고를 기준으로 예산의 상한선과 사업 기간에 맞춰 기획한 메시지나 구조적인 요소들과 상관없이 필요 이상으로 다원예술 프로젝트의 기획을 부풀리는 경향이 보임

"2년이 넘어가니까 중간에 약간 길을 잃으신 듯한 분이 계십니다. 본인의 작업이 2년 정도면 충분히 완성될 수 있는 것임에도, 예산을 조금 더 받기 위해 3년으로 지원하여 의외로 중간에 길을 잃고 방향성을 다시 고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지원 예산의 최대 한도액이 정해지면 모두 그 금액에 맞춰서 계획을 짜게 마련입니다. 본인의 작업이 2년 정도면 충분히 완성될 수 있음에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사업 기간을 3년으로 늘려 지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MDA2009)

"내부적으로는 다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강화해 예산을 삭감하거나 차등 지급하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1차 연도의 주된 활동이 자료 조사와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으로 평가해 점수를 매기고 예산을 깎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 현장의 반발도 우려됩니다.

[...] 지원 신청 시에는 대부분 3차 연도 계획으로 해외 진출을 작성하시는데, 실제로 3년 차에 접어든 분들도 동일하게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해외 진출이나 최종 발표를 진행하기에는 이 동일한 금액이 부족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MDA2004)

다. 연차별 단계 구분과 예산 차등화

- * 전체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여 1차 연도를 '준비·리서치 단계', 2차 연도를 '제작·발표 단계'로 명확히 구분하는 방안이 검토됨
- * 1차 연도 자료 조사 단계에서도 전년도와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실제 제작 단계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한 '연차별 예산 차등 적용 방안'이 제안됨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주체 사업을 2년 지원으로 바꾸어 1차에는 준비 과정, 2차에는 제작·발표로 명확히 나누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단순히 지원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준비 과정인 1차 연도에도 2~3차 연도와 똑같은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1차 연도는 준비 과정으로, 2차 연도는 제작 및 발표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하여 실제 제작이 이루어지는 2차 연도에 지원금을 더 배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MDA2004)

"1년 차에는 주로 탐구와 리서치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므로 예산을 조금 줄이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제작하는 2년 차에 비용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제작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6~7천만 원으로 예산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배분할 여지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MDA2013)

"금액을 연차에 따라 차등 배분하는 방안은 전체 지원 기간을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각 연차에 기대하는 역할과 목표에 맞춰 총사업비를 비율별로 분배하는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MDA2002)

라. 페스티벌 단년 운영 및 단계적 확장

- * 비정형적인 다원예술의 특성으로, 페스티벌의 기획은 리서치를 통해 명확한 주제와 메시지를 세우고 아티스트를 수집·조율하는 데 훨씬 긴 기간이 필요함
- * 선정 후 단년(당해 연도) 내에 기획 심화와 페스티벌 실행 완수하는 것으로 인해 기획의 단순화, 발표 시기의 집중 등의 이슈가 발생하는 것이 우려된다면, 일부 사업들에서 사업 종료 시점을 조정해 차년도 상반기까지 개최할 수 있도록 18개월의 지원 주기를 운영하거나 혹은 단계를 둔 다년 사업으로 구성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음
- * 구체적으로 다년 지원 구조를 도입하여 1년 차에는 프로그램 기획 및 리서치만 평가하고, 실제 실행은 2년 차로 명확히 분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됨
- * 처음부터 중장기 지원으로 시작하기보다, '단년 지원'으로 시범 운영한 후 성과가 검증된 팀에 한해 2~3년으로 단계적 확장하는 방향을 제안



"다원예술은 포맷 자체가 비정형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획 기간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페스티벌 지원이 단년 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 페스티벌은 콘셉트가 매우 중요하고, 그에 적합하게 맞아떨어지는 작품이나 아티스트들을 모으고 공간을 기획하는 데 상당한 조율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수집하고 기획을 심화시켜 콘셉트를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 최소 2년제를 도입하여 선정된 1년 차에는 페스티벌 프로그램 기획을 완성하는 정도만 발표 및 평가 내용으로 삼고, 실제 실행은 2년 차에 진행하도록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다원예술 페스티벌을 단년 내, 즉 당해 연도에 기획부터 실행까지 모두 마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MDA2011)

"현재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페스티벌이 10월에 몰려 있는데, 이 집중 현상을 타개하려면 아예 지원금의 주기를 18개월로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기획 기간을 보장하고 상반기에 페스티벌을 개최하도록 유도하는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구성했으면 합니다.

[...] 페스티벌 지원은 단년으로 시범 운영을 하고, 그중 성과가 괜찮았던 팀에 한해 2년 혹은 3년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3년 중장기 지원으로 시작하는 것은 피했으면 합니다." (MDA2012)

마. 단계별 평가 실효성 제고 및 유연성 확보

- * 다년 지원사업에서 중간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것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해 세심한 접근이 요구됨
- * 사업 수혜자 스스로 기획 및 교부 그리고 교부 변경(사업 변경)의 과정에서 각 단계별 기대 수준과 달성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함
- * 단순한 결과물 도출 여부가 아닌, '단계별 수행 기대치 사전 설정 → 기대치에 따른 중간 평가 실시 → 결과에 따른 예산 연동'으로 이어지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유연한 평가 체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1차 연도에 누구는 완벽하게 실행까지 가능하고 누구는 준비만 하겠다는 등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선택 사항으로 두면 중간 평가 때 점수를 매기기가 매우 애매해집니다. 따라서 준비 단계에서는 확실한 콘셉트나 실행 준비 정도 등 각자의 기대 수준에 맞는 중간 점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MDA2011)

"다년 지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결과물 중심이 아닌, 과정 자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매년 달성해야 하는 핵심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새롭게 승인받는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 방안으로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을 도입한 유연한 지원체계를 제안합니다. [...] 연차마다 기대하는 필수적인 목표 영역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하고, 그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연도별 예산 배분을 유연하게 연동하는 방식입니다." (MDA2002)

[표 55] 플랫폼 및 기획·발굴 - 2) 다년 지원사업의 재점검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창작산실의 다년(3년) 지원사업 구조를 선례로 분석, 지원 기간의 효율성 및 적절성 재검토 - 기획·발굴 전반의 지원 기간 및 예산 구조와 단계별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필요성
다년 지원사업 운영의 시행착오 점검	- 매년 단계별 예산 성과에 맞춘 실질적 중간 평가 및 차년도 지원 반영 등 구조적 개선 시급 - 연차별 예산 교부의 경우, 각 단계별 필요 예산의 요건이 상이함을 제도적으로 수용해야 함
연차별 단계 구분과 전환 차등화	- 3년 지원을 2년(1년 차: 준비 / 2년 차: 제작·발표)으로 기간 단축 및 구분 검토 - 연차별 동일 지원금 지급 폐지 및 준비 단계 소액, 발표 단계 증액 등 차등 적용
페스티벌 단년 운영·단계 확장	- 다원예술의 비정형적 특성을 반영, 1년 내 기획·실행(단년)의 물리적 한계 공감 - 페스티벌 단년 지원을 시범 운영 후 검증된 팀만 2~3년으로 단계적 확장하는 구조 제안
단계별 평가 실효성·유연성	- 중간 평가를 차기 지원에 반영하는 구조를 세밀히 설계하고, 공모 단계에서 사전 공지 - 수혜자 스스로 단계별 기대치 설정 및 마일스톤 방식의 유연한 평가·예산 연동 도입 제안

3. 공간 지원사업 개편 및 연계·유휴 공간 확장

가. 논의 배경

- * 그동안 다원예술 지원사업에서 플랫폼 및 기획·발굴로서 공간 지원 부문은 임대료 등 물리적 공간 유지비 중심의 지출 구조와 자체 기획력 부재라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 * 이에 따라 공간 지원사업의 효용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 공간 유지 보조를 넘어 사업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 필요성이 워킹그룹 내에서 강하게 공유됨

나. 기존 공간 지원사업에 대한 생태적 관점의 재점검

- * 실제 현장 평가(모니터링)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공간에서 사업 예산의 대다수를 임대료 등 시설 유지비로 소진하며, 공간 지원사업이 다원예술 생태계 내 매개 공간으로써 실제 수혜 받은 공간의 기획에 대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함
- * 기존 선정 공간들이 반복적으로 선정되고, 신규 공간의 진입이 부족한 지원현황은 매개공간의 기획사업들이 고착적으로 단순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함
- * 특히 지역 소재 공간들은 새롭게 신설된 페스티벌 트랙에는 적극 신청하는 반면, 정작 공간 지원에는 거의 신청하지 않는 불균형이 나타남



"그동안의 공간 지원에서 안타까웠던 점은 공간 운영자의 기획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물리적인 공간 유지와 운영에만 치중하고, 정작 제안했던 다원예술 사업의 퀄리티를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MDA2002)

"현장 평가를 가보면 공간 운영자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예술 생산자가 아닌 입장에서 단순한 공간 운영에만 너무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장기적으로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 큰 의심과 실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MDA2011)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여전히 기존 연도에 신청했던 공간들이 해마다 대부분 다시 들어오고, 새로운 신규 공간들은 별로 진입하지 못하는 고착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지역 소재 공간들의 경우 새롭게 신설된 페스티벌 트랙에는 지원서를 많이 냈지만, 정작 공간 지원사업에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는 불균형이 있었습니다." (MDA2004)

다. 공간 개념 확장 (온라인·야외·유희 공간 등)

- * 다원예술에 특화된 물리적 전용 공간은 국내에 사실상 없으며,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기존 시각예술의 '화이트 큐브'나 공연예술의 '블랙박스'를 다원예술 전문공간으로 전환·브랜딩하는 현상은 안정적인 다원예술 매개공간 발굴이라는 공간 지원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구현할 수 없음에 그 한계가 명확함
- * 다원예술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원예술을 위한 공간의 개념을 물리적 건물을 넘어 온라인(웹 브라우저), 야외, 유희 공간 등 비정형적인 공간까지 유연하고 다양하게 확장해야 할 것임
- * 지역에도 매력적인 유희 공간이 다수 존재하며, 지역 기관들이 예술가와의 협업에 목말라 있다는 생생한 현장 경험이 공유됨

"여전히 다원예술을 담아낼 수 있는 수많은 새로운 공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간 선정의 범위만큼은 기존의 물리적 건축물을 넘어 온라인과 야외 공간 어디든 포함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 논밭에서 땅을 파며 작업을 하든, 해변에서 뛰어다니거나 산속으로 들어가 해매며 작업을 하든 그 비정형적인 공간의 발견과 활용은 예술가에게 온전히 맡겨주셨으면 합니다." (MDA2011)

"사실 국내에 다원예술적인 작업을 제대로 실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과연 있을까 회의적입니다. 대부분의 작가들이 화이트 큐브 안에 장비만 가져다 놓고 그곳을 다원예술 공간이라고 억지로 브랜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간을 반드시 물리적인 건물에만 제한하지 말고 온라인이나 가상 공간으로 유연하게 열어준다면 훨씬 더 재미있는 실험이 가능할 것입니다. 웹 브라우저 안에서 매끄럽게 프로토타입을 디자인하고 프레젠테이션하는 방식 역시 새로운 다원예술 공간의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 천문대와 같이 물리적인 소극장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거대한 천체 망원경의 움직임과 경외감을 활용한 다원예술 공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원예술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재밌고 비정형적인 야외 및 유희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 지방의 특수 공간을 운영하는 기관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정작 본인들도 예술가들과의 협업에 굉장히 목말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술가들이 먼저 기획을 가지고 손을 내밀면 흔쾌히 공간을 내어주며 협력하고자 하는 지역 기관들이 현장에는 꽤 존재합니다.

[...] 지역을 다녀보면 충고가 높고 퍼포먼스나 공연을 하기에 너무나 매력적이고 훌륭한 유희 공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 멋진 물리적인 건축물을 채우고 운영할 자체적인 다원예술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재하다는 점이며, 결국 물리적 형태보다 운영 방식이 중요합니다." (MDA2009)

라. 공간 연계 지원 방식 전환

- * 실효성 낮은 공간 지원 공모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아코가 특정 시기에 대관을 직접 계약하여 창작자·기획자와 매칭해주는 '공간 연계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 방안이 검토됨
 - 예) 2015년 아코프(AYAF) 사례 : 개별 작품으로 선정된 20명의 신진 예술가들에게 특정 시기 협력 대관한 대학로 일대의 여러 민간 및 공공기관들의 공간을 연계 지원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합 홍보와 디지털 아카이빙 및 페스티벌(아코가 주목하는 젊은예술가 시리즈)형식으로 추진됨
- * '26년도 다원예술 창작주체와 창작산실 사업에 직접 연계된 LG아트센터, 서서울미술관의 경우처럼 발표 및 홍보의 인프라가 갖춰진 공간과의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창작자와 기획자가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 구조 설계가 필요함
- * 아예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기획자를 공모하는 방식'이 신진 기획자의 공간 접근성 장벽을 낮추고, 브랜딩된 공간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올릴 기회를 구조적으로 보장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지원 방식으로 제안됨

"공간 지원사업에 기존 공간들만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고착화 현상이 있으므로, 굳이 공모를 통해 공간을 지원하기보다는 아코가 특정 시기에 대관을 직접 진행하여 기획자와 연계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기존 공간 공모는 폐지하는 방향을 제안해 봅니다.

[...] 발표 시기와 지역이 맞아떨어지게 배치된다면 마치 하나의 아코형 축제처럼 보이는 통합 홍보가 가능해져, 관객들에게도 특정 시기에 가면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MDA2002)

"과거 아코프(2015 AYAF) 사례처럼 신진들을 선발하여 발표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고, 그에 맞춰 대학로 일대의 공간들을 아코가 사전에 섭외해 페스티벌 형식으로 묶어 진행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MDA2004)

"작가들의 입장에서는 공간을 섭외하고 선정하는 과정 자체가 가장 큰 고민이자 부담입니다. 개인이 공간 섭외에 신경 쓸 필요 없이 LG아트센터나 서서울미술관과 같은 훌륭한 인프라와 연계하여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돕는 지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옵니다." (MDA2008)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받는다는 점, 특히 LG아트센터나 서서울미술관처럼 컨디션이 훌륭한 브랜딩된 공간을 제공받는 것은 예술가에게 큰 메리트입니다. 이러한 공간 연계 지원을 실험적으로 시작하여 향후 점진적으로 더 늘려나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DA2006)

"사실 공간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는 기획자의 공간 섭외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오롯이 프로그램 기획 내용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 새롭게 진입하는 신진 기획자들은 현실적으로 퀄리티 있는 공간을 미리 확보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올릴 기획자를 매칭해 주거나 추천받는 방식이 신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조적으로 돕는 가장 현실적인 연계 지원 형태가 될 것입니다." (MDA2012)



마. 발표 시기 분산 및 전담 기획 인력 요건화

- * 앞서 창·제작발표 논의에서 제기된 하반기(9~12월) 발표 쏠림 현상은 결국 타 장르 경쟁 등으로 인한 '상반기 공간 확보의 어려움' 때문임이 재확인되었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간 선확보 및 연계 방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 아르고 지원 공간과 선정 작품을 연계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나, 공간 측의 실질적 동참을 이끌어 낼 실효성 확보가 과제로 남음
- * 예술가들의 서울·수도권 발표 선호 현상이 강하므로, 실효성 있는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단순 거주지 기준이 아닌 지역 발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유인책이 검토됨
- * 현재 공간 지원사업에서 '전담 기획 인력 배치' 의무화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 기획 인력 간의 네트워킹을 도모해 아르고 차원의 간접적 인력 양성 효과를 기대하는 방향도 논의됨

"다원예술 프로젝트가 10~11월에 집중되는 것은 다원예술뿐만 아니라 모든 장르가 이 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극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MDA2012)

"다원예술 창작자들이 상반기나 중간에 발표하고 싶어도 공간이 모두 대관 되어 있어 원하는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반기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공간 연계 지원과 같은 방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로 과거 다원예술 매개 공간 사업에서는 기획 전담 인력을 의무화해 네트워킹과 기획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했었습니다" (MDA2004)

"모든 공간은 각자의 운영 방향성과 철학을 갖고 있으므로, 우후죽순 들어오는 제안서를 받아 단순히 전시 플랫폼으로만 운영해 줄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대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공간들은 실질적으로 자체적인 기획 프로그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철저한 사전 설계가 필요합니다." (MDA2005)

"단순히 거주지나 출신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 안배는, 예술가들이 결국 인프라가 잘 구축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발표하길 원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맥락상 지역 발표가 의미 있는 경우, 기획 단계부터 이를 섭외하고 지역에서 발표할 때 가산점이나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 의무적으로 배치된 기획 인력들이 서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 직접적인 인력 양성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다원예술 전문 매개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MDA2002)

[표 56] 플랫폼 및 기획·발굴 - 3) 공간 지원사업 개편 및 연계·유희 공간 확장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기획·홍보 등 창작지원 간접 인프라를 제공하는 다원예술 매개 공간 필요 - 공간 지원사업의 효율성 재검토 및 사업 방식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 대두
생태적 관점에서 매개공간	- 시설 유지비 위주 예산 소진으로 매개 공간의 질적 기획 수준을 담보하지 못함 - 신규 매개 공간 발굴이 어려워 기존 매개공간의 기획 사업들이 고착화되어가는 현상 우려
공간 개념 확장	- 건축적·전통적인 발표 공간을 넘어 온라인, 야외, 유희 공간 등 다원예술의 공간 개념 확장 - 천문대, 논밭 등 장소 특정적이고 매력적인 지역 유희 공간 발굴 및 활용 제안
사전확보 공간 연계 지원 (2015 AYAF 사례)	- 공간 지원 공모 대신 아르코가 직접 대관·매칭해주는 '공간 연계 지원'으로 전환 검토 - 공간 섭외 부담을 덜고 신진작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선확보 후기획 공모 모델 제안
시기·지역·인력에 대한 제언	- 하반기 쏠림 원인인 '공간 확보난'을 연계 지원으로 해소하고 지역 발표 시 가산점 부여 - 공간의 자생적 기획력을 담보할 전담 기획 인력 배치 의무화 및 네트워킹 유도

4. 심의 기준 개선: 질문의 명확성 및 역량 평가

가. 논의 배경

- * 기존 심의 기준의 한계와 실효성 문제로, 다원예술의 특성에 맞는 평가 체계 개편 필요성이 공유됨
 - 특히 모니터링 점수 저하 현상, 기획 의도와 결과물 간 괴리, 관객 동원 위주의 정량 평가 등이 구조적 문제로 지적됨

나. 지원서 양식 개선: 명료한 동시대적 메시지

- * 현행 지원서는 글이 장황하고 추상적이어서 기획자·창작자의 실질적 의도와 고민을 파악하기 어려움
-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청자가 다원예술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시대적 질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평가의 핵심이 되어야 함
- * 단순 기술 시연에 그치는 작업과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 간의 차이를 심의 단계에서 사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지원서에 작업 콘셉트를 작성하는 란이 있지만, 대부분 글이 너무 장황하고 추상적이어서 창작자가 무엇을 전달하고 의도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긴 분량을 요구하기보다 신청자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서 양식과 평가 기준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 다원예술에서는 작가나 기획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작품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기술과 삶의 양상 속에서 창작자가 어떤 시대적 질문을 던지는지가 지원서에 명확히 드러나고 이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현장 모니터링을 다녀보면 단순한 기술 시연에 머무르는 작업과,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신만의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는 작업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사 과정에서도 이 두 작업 간의 가치와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 점수에 반영해야 합니다." (MDA2009)



다. 협업 역량 평가 및 조건의 적정성

- * 기존의 단순 이력·영향력 평가를 넘어, 타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민주적 협업 역량을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 * 다만, 민주적 협업 요건에 대한 가이드는 오히려 프로젝트 전반의 책임 소재의 불분명함, 관계에 대한 심리적 부담으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조건 설정에 신중해야 함

"보통 지원 신청 주체가 다원예술을 실제 해봤는지 등 이력이나 활동, 영향력 중심으로 평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타 분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단순한 외주나 상하 관계가 아니라 민주적인 태도로 협업할 수 있는 소통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평가 기준에 새롭게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MDA2002)

"다학제적 측면이 강조되면서 '민주적 관계'나 '컨소시엄'을 조건으로 요구하게 되면, 1대 1의 동등한 권리 배분을 과도하게 강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치가 자칫 예술가들에게는 아무도 결정권자가 없거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심리적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협업 조건 설정에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MDA2011)

"심사 지표에서 학제 간 결합을 중요한 역량으로 기준 삼는다면, 사실상 아트앤테크나 기술 융복합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공연 예술의 경우 연출자가 명확한 콘셉트를 끌고 가는 구조인데, 이를 무리하게 1대 1 결합으로 요구한다면 기존에 다원예술을 해왔던 작가들이 지원정책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습니다." (MDA2012)

라. 정량적 홍보·모객 지표의 한계 및 대안

- * 앞서 '소규모 플랫폼 기획'에서 제기된 모객 부담 완화 논의와 맥락을 같이하여, 다원예술 홍보 채널이 대동소이한 현실에서 관객 수 중심의 정량 평가나 홍보 노력 평가는 현장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재차 강조됨
- * 따라서 정량 지표 대신 관객 리뷰, 비평 등 정성적 피드백 수렴을 의무화하고, 통합 홍보 지원을 통해 예술가가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함
 - 강원문화재단의 프로젝트 홍보에서 인플루언서 연계(강원다운 프로젝트)처럼 홍보나 마케팅 전문 업체를 통한 자연스러운 온라인 콘텐츠 (프리뷰·리뷰) 생성 방식이 긍정적 대안으로 공유됨

"현장에 다녀보면 다원예술 전시나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채널과 방법이 사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누가 홍보를 더 잘했고 부족했는지 관객 수나 홍보 노력만으로 평가를 내리기가 매우 어려우며, 홍보 관련 정량적 평가 지표가 현장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MDA2009)

"평가 지표에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관객 리뷰나 비평 등 정성적인 피드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 설계 단계부터 관객 리뷰나 비평 같은 정성적인 피드백 환류 장치를 의무적으로 요건화하여 지원하는 방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MDA2002)

"예술가의 홍보와 모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기관 차원에서 전문 홍보 업체와 계약을 맺고 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강원문화재단의 '강원다운' 프로젝트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여 긍정적인 성과를 낸 바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는 인플루언서나 글쓰기 작가가 창작 과정부터 아티스트를 쫓아다니며 일반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프리뷰와 리뷰를 지속적으로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인터넷상에 자연스러운 온라인 콘텐츠들이 생성되었고, 이를 통해 자발적인 모객과 정량적 노출 실적까지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MDA2011)

마. 다원예술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 적합성

- * 앞선 '다년 지원 개편' 논의와 맞물려, 현장에서 다원예술의 모니터링 평가가 기존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현상이 보임
- * 이는 다원예술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점수는 심의위원과 모니터링 평가위원이 일원화되면서 초기 심사 시 가졌던 기대치로 인해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기획 의도와 결과물 간의 괴리를 더 크게 체감하게 되는 것에 영향이 있어 보임
- * 현장 모니터링 평가는 다원예술 생태계의 성장을 위한 비평적 기능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다원예술에 적합한 모니터링 평가 체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
- * 다원예술 심의위원(평가위원)의 경우 기존 장르 전문가보다는 다원예술 지원사업 심의 경험과 다원예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 필요하며, 현장 모니터링에 대한 사전 안내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 필요함

"기존 장르에 비해 다원예술은 현장 모니터링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기획과 실제 결과물 간의 괴리, 현장 사정에 따른 창작 과정 중 계획 변경, 그리고 결과물뿐 아니라 창작 과정까지 함께 평가해야 하는 다원예술의 특성을 들 수 있습니다.

[...] 예전에는 심의하는 분과 평가 모니터링을 하는 분이 구분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심의하셨던 분이 모니터링까지 직접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기 심사 때 가졌던 기대치가 실제 현장 모니터링 과정에서 더 크게 작용하여 복합적인 내용들이 평가 점수로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MDA2004)

"서류로 봤을 때는 분명 괜찮은 작업이었는데, 막상 현장 모니터링을 가보면 페이퍼에만 그치는 작업들이 보여 점수를 많이 줄 수 없는 아차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여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지가 지원서 단계부터 명확하게 발현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해야 합니다." (MDA2009)

"팀마다 완벽한 실행을 목표로 하거나 준비 연도로 삼겠다는 등 편차가 클 텐데, 이를 단순 선택 사항으로 두면 중간 평가 점수를 매기기가 애매해집니다. 평가의 정합성을 높이려면 기획의 확실한 콘셉트와 실행 준비 정도 등 각 단계의 수행 기대치를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MDA2011)

바. 기획 역량 평가

- * 지원자가 단순히 개인적 취향을 넘어 시장과 씬(Scene) 전체를 조망하는 안목과 통찰을 갖추었는지를 심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함
- * 이를 실질적으로 인큐베이팅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횟수의 자문과 컨설팅이 필수적이나, 현행 자문 횟수(1회성)와 기관의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한계가 지적됨
- * 따라서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접점 확대 및 자문 횟수의 현실적 개선이 요구됨



"기존의 자문이나 멘토링은 2~3시간짜리 미팅 한 번, 많아야 두세 번에 그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기획자와 진정성 있는 시간을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한데, 자문 횟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인건비 부담 문제로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 컨설팅과 자문을 진행해 보면, 시장 전체와 씬 전체를 고르게 바라보고 분류할 수 있는 기획자의 안목 자체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이다, 가치 있다고 느낀다'며 개인의 취향과 경험에 머무는 사람이라면, 자문 시간이 300시간 주어져도 제대로 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 지원자를 선정할 때, 씬 전체를 조망하는 최소한의 인식과 안목이 평소에 갖춰져 있는지를 심사 단계에서 명확히 구별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정 이후에 어떤 전문가의 자문이 불더라도 서로 실질적인 소통과 인큐베이팅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MDA2011)

[표 57] 플랫폼 및 기획·발굴 - 4) 심의 기준 개선: 질문의 명확성 및 역량 평가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기존 심의 기준의 구조적 한계 점검 - 다원예술 특성에 맞는 실효적 평가 체계 개편 필요성 대두
명료한 동시대적 질문	- 장황한 지원서 양식을 개선하여 작품이 던지는 '시대적 질문'을 명확히 파악 - 트렌드를 따르는 융합보다 명료·실험적인 동시대적 질문을 던지는 작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협업 요건의 적정성	- 이력 중심에서 타 분야 이해도 및 협업 역량(태도) 중심으로 평가 기준 확대 제안 - 동시에 과도한 민주적 협업관계의 강요에 따른 책임 불분명 우려 및 아트앤테크 편중 경계
정성적 평가 요건화	- 다원예술 특성상 관객 수 등 정량 평가 무의미하며 지원체계 안에서 통합 홍보 운영 필요 - 비평·리뷰 등 다양한 층위의 정성적 피드백 요건화
모니터링·정합성	- 심의·모니터링 일원화가 초기 기획 기대치와 실제 결과물 간의 심리적 체감 괴리에 영향 - 평가 정합성 문제 해결을 위해 심사 기준 강화 및 수행 기대치 사전 명확화
기획자의 안목	- 기획자 개인 취향과 스타일을 넘어 생태계(Scene)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 및 안목 심사 - 실질적 인큐베이팅을 위해 자문·컨설팅 횟수 확대 및 접점 강화

제4절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워킹그룹 세부 논의 내용

1. 다원예술 특화 비평과 총론적 기록 필요성

가. 논의 배경

- * 아르고 다원예술 지원사업은 2006년 신설 이후 약 20년이 경과했으나, 이 기간의 지원 역사와 현장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조망한 비평·기록문화 활성화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임
- * 기존 아르고 통합 플랫폼, 예술기록원 등에서 일부 아카이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원예술 특성을 반영한 비평적·맥락적 기록은 부족함

나. 디지털 아카이브 현황 및 비평의 부재

- * 다원예술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신규 플랫폼 구축 시 기존 플랫폼(예술기록원 등)과의 기능적 중복 우려 및 기능 확장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 그러나 이러한 우려와 의문 속에서도 지난 20년간의 통합적 기록 부재를 고려할 때, 행정적 여건에 따라 중단되더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다원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전용 플랫폼 자체가 존속한다면 그것이 생태계 내에서 강력한 연결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반론이 우세함
- * 민간 주도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는 지속적인 업데이트 및 인력 유지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사라지는 실정이며, 현재 창작자들은 SNS에서 자신의 다원예술에 대한 일반 관객의 짧은 후기 한 줄조차 소중한 만큼 리뷰, 비평과 같은 피드백이 절실함
- * 그동안의 다원예술 생태계에서 유의미한 아카이빙의 행보를 경험하지 못한 일부 작가들은 다원예술의 특성상 아카이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애초에 아카이빙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기존에 예술기록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 내에 이미 관련 콘텐츠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신규 플랫폼을 별도로 구축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MDA2007)

"기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시스템에서 기능을 확장하면 더 시너지가 날 텐데, 별도 플랫폼으로 가면 굳이 다원을 묶기 위해 중복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기존 플랫폼에 확장되어 융합되는 성격을 얻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DA2001)

"중복이나 실효성에 대한 논쟁만 하다 보니 결국 20년 가까이 다원예술 비평·기록문화 활성화가 부재했던 것입니다. 다소 중복이 발생하더라도 전용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다는 신호 자체가, 연결망으로서 상시 작동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장치가 될 것입니다."

"[...] 작가들은 관객이 개인 SNS에 올린 짧은 기록이나 한 줄의 코멘트조차 몹시 간절하게 기다리고 반가워하는 것이 척박한 현실입니다." (MDA2010)

"작가들과 논의해 보면 아카이빙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게다가 민간 주도로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를 운영할 경우, 지속적으로 기록을 업데이트하고 인력과 시스템을 유지해 나가는 것 자체에 명확한 구조적 한계가 따릅니다." (MDA2003)



다. 한국다원예술 역사의 '총체적 기록' 필요성

- * 개별 작품의 단순 리뷰를 넘어, 시기별 다원예술을 한국 다원예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통찰할 수 있는 총론적 기록이 필요한 시점
- * 아르코가 2006년 다원예술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다원예술이 문화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 확대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음
- *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향해 온 바를 시기별로 정리하여 안전하게 제시하는 방식 또한 현재의 다원예술이 바라보는 지향점을 살피는 기반이 될 것임

"개별 작품의 리뷰는 어떤 식으로든 끌어모을 수 있겠지만,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총론입니다. 그 해의 다원예술을 정의하는 방식의 총론이라든지, 20년 다원예술의 역사를 관통하는 시선들이 담긴 기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아르코에서 2005년 하반기에 다원예술을 처음 논의했던 이유와, 이것이 한국의 문화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총론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만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고,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정당성과 명백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다원예술이 새롭게 지향해야 할 바를 직접적으로 정의하여 내세우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2005년 하반기에 다원예술 정책이 생긴 이후부터 지금까지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어 왔고 과거에 무엇을 지향했었는지를 시기별로 제시하여 열린 개념으로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MDA2010)

라. 궁극적 목표 '한국 다원예술에 대한 리터러시'

- *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진정한 목적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지원사업 안에서 창작자·지원자·심사자 모두가 현재의 한국 다원예술의 맥락을 읽어낼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제고에 있음
- * 현재 예술계는 서로의 작업을 보고 학습할 수 있는 순환적 플랫폼이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론화와 상호 학습의 기회가 절실함

"현재 미술 예술계 전체의 집단 지성이 무너져 남의 작업을 보고 다원 축제가 무엇인지 학습할 수 있는 생태계 자체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편집단과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의 실질적인 목적은 단순한 기록 보존이 아니라, 창작자와 지원자 모두가 다원예술을 읽어낼 수 있는 리터러시(Literacy) 제고가 있어야 합니다.

[...] 공개적인 아카이빙을 통해 과거의 작업들을 돌아보고 다원적 성격에 대해 끊임없이 공론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원예술에 대한 이해도와 리터러시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것이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MDA2003)

"다원예술의 맥락을 읽어내는 '리터러시' 제고가 가장 와닿는 핵심 개념이며, 현재 이 생태계에 리터러시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나 비평이나를 두고 소모적인 논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MDA2010)

[표 58]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 1) 다원예술 특화 비평과 총론적 기록 필요성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한국 다원예술 성과를 조망할 체계적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사실상 부재 - 다원예술 특화된 비평적·맥락적 기록이 필요한 시점
다원예술 생태 내 비평·기록문화의 현황	- 현장 비평의 절대적 부족 및 민간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업데이트(지속성) 한계 노출 - 20년간의 통합 기록 부재 속, 전용 플랫폼 존속이 생태계 내 강력한 연결망으로 작동 기대
'통합적 기록' 필요성	- 작품 비평을 넘어, 한국 다원예술이 문화민주주의에 기여한 맥락을 살피는 통합적 기록 필요 - 과거부터의 지향점을 시기별로 정리 및 제시하여 현재 한국 다원예술의 흐름 조망
한국 다원예술 리터러시 기반	- 한국 다원예술을 읽어내는 리터러시 제고가 궁극적 목표 - 다원예술 생태계 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를 통해 공론화와 상호 학습의 기회를 구축해야 함

2. 다원예술 비평·기록에 대한 전략적 접근

가. 논의 배경

- * 연구진은 초기에 신규 사업을 '비평·디지털아카이브 활성화'로 명명하였으나, 기존 장르 아카이브 사업과 차별화하고 다원예술 생태계의 현황에 특화하기 위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라는 용어로 우회하는 전략을 제안함
- * 이 용어 전환이 적절한지, 어떤 표현이 다원예술 기록 사업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논의로 전개됨

나. 용어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언의 전략

- * '비평'의 활성화는 '기록'의 가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비평과 기록 활성화'라는 명칭이 더 정확하며,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사업의 추진은 단계별 접근이 필요함
 - (1단계) 기존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성과 자체가 자연스럽게 기록으로 누적되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하고 어느 정도 기록들이 수집 및 축적
 - (2단계) 자료의 특징과 분석 목적 관점에 따른 자료의 세부 분류 및 분석을 진행
 - (3단계) 세부 분석 자료 중 선별하여 일반 관객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는 다원예술 자료가 나오기까지의(*창작을 중심으로 기획·리서치·매개·비평·아카이빙)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검토가 필요함

"리터러시 때문에 비평을 강조한 것이지, 사실은 비평·기록문화 활성화가 더 급선무이긴 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는 안 되고 예산 마련이 쉬운 비평 활성화로만 가자고 결정된다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당위성을 설득하기 어려워집니다." (MDA2010)

"장기적으로는 이 비평들이 단순히 활성화되는 것을 넘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쌓여서 무언가 담론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비평·기록문화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라는 용어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기록이라는 성향을 아예 처음부터 함께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구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MDA2002)



다. 아르코 다원예술에서 한국 다원예술로의 단계적 확장

- * 아르코의 다원예술 지원사업만을 비평 대상으로 한정하는 경우, '아르코 사업의 감시로 오인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 특정 기관 사업만 다룰 경우 기관의 상황에 맞춰, 결과적으로 1회성 결과물만 양산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됨
- * 이에 장기적 관점으로 초기에는 아르코 사업을 중심으로 시작하되, 비평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향후 한국 다원예술 전반으로 대상을 확장하는 단계적 대안이 제시됨

"아르코에서 비평·기록에 대한 접근 시 현장에서 비평에 대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당장 지원사업을 겪게 되는 예술가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들이 하는 일들을 계속 비평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비평가나 아키비스트 각자가 여태까지 해왔던 연구의 연속성 같은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비평 연구 사업만 적당히 돈 받고 일하다가 끝내는 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플랫폼이 되려면 이러한 제약 조건은 없어져야 합니다." (MDA2003)

"아르코가 주도하는 사업이므로 우선은 아르코의 사업부터 시작하되, 비평 활성화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르면 아르코 지원 외의 현장 목소리들까지 취재하고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확장하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 다원예술 생태계 전반을 조망할 수 있게 점차 확장해 나가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MDA2002)

[표 59]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 2) 다원예술 비평·기록에 대한 전략적 접근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기존 아카이브와 차별화하고 생태계 현황에 특화하기 위해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표현 도입 - 용어 전환의 적절성과 사업 목적 부합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 논의
용어에서 살핀 제언의 전략	- '비평'의 활성화는 '기록'의 가치가 선행되어야 함 - '비평 및 기록 활성화' 명칭 하에 기존 사업 성과가 자연스럽게 기록되는 사업구조가 유리
대상의 단계적 확장	- 특정 기관 사업만 대상으로 할 경우, 해당 기관 여건에 따른 사업 중도 단절 우려 발생 - 비평 독립성을 전제로 향후 한국 다원예술 전반을 다루도록 점진적인 대상 확장 필요

3. 민간 거버넌스 구조의 공동기록단 제안

가. 논의 배경

- * 다원예술 비평 및 아카이브의 생산자로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개개인의 아키비스트·비평가들이 각자의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모여 소통하는 구조인 '공동기록단' 구조가 처음 제안됨
- * 이에 대한 운영 방식, 참여자 자격 기준, 독립성 확보,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구체화됨

나. 대안적 운영형태 논의

- * 비평과 기록의 과업을 위탁 용역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다원예술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민감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주어진 미션만 수동적으로 수행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기록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됨
- * TF나 기획단 안에서 젊은 실무진에게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며 1년을 함께 일하는 방식이 성장에 더 효과적임이 강조됨
- * 아울러 다원예술에 애정 있는 젊은ライター·비평가·아키비스트의 발굴이 필요함이 제언됨
- * 사업의 첫 설계부터 시즌제를 바탕으로 비평 및 기록 콘텐츠를 창출한다면, 기관의 여건에 따라 운영의 공백기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즌으로 부활할 수 있는 명분이 전제가 됨

"외부 용역 방식으로는 다원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나 민감성을 질적으로 담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주어진 미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임하게 되며, 오히려 다원예술을 왜곡해서 기록하거나 아예 엉뚱한 결과물을 산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 다원예술 분야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일방적인 지원사업이나 양성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미 시행착오를 겪었으므로, 기획단이나 TF를 만들어 젊은 실무진에게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많은 부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정량의 지원금만 주고 일을 떠맡기기보다, 1년 동안 회의비와 실행 비용을 지원하며 한 테이블에서 존중받고 함께 일하게 하는 방식이 이들의 성장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다원예술 기록은 소수의 사명감을 지닌 분들의 헌신적인 열정으로 근근이 이어져 오고 있으므로, 기존 인력 섭외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젊은 다원예술가들이 선호하는ライター, 비평가, 아키비스트 등을 새롭게 발견하고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MDA2010)

"한 시즌 동안 다원예술 작가나 기존의 전시들을 발굴 및 선정하여 콘텐츠로 방송하고, 다음 시즌에 또 다른 사람들을 뽑아 기록을 이어간다면 대중의 관심과 지속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러한 분기별 시즌제로 운영하면, 중간에 힘이 떨어져 공백이 생기더라도 언제든지 새로운 시즌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DA2002)

"시즌제가 지닌 재미있는 장점은, 몇 년의 공백이 지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원예술 기록의 지속성을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MDA2003)



다. 대안적 운영 구조 제언: 공동기록단

- * 공동 편집단 운영 구조: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사례에서 긍정적인 민관의 협력구조를 참고할 수 있으나, 운영단 본연의 맥락과 기능을 수행하기보단 운영위원의 자리를 통해 경력을 늘리고자 하는 개개인들에 의해 네트워킹이 변질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해야 함
- * 예산 및 소통: 아르고 통합 플랫폼의 콘텐츠 생산 예산 일부를 민간 운영단이 원고비, 촬영·편집비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초기 검토됨
- * 또한 아르고 다원예술 역대 전담심의위원이나 현 전담심의관이 공동기록단의 멘토 혹은 동료로 직접 참여하여 민관 소통 창구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도 논의됨

"서교예술실험센터 공동운영단 사례는 긍정적으로 참고할 수 있지만, 1~2기 때와 달리 3~4기가 되면서 자기 스펙으로 쓰려는 운영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변질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원예술에 대한 애정과 뜻이 있는 분들 중에서 개인적인 경력이나 스펙으로 활용하려는 욕망이 덜한 분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MDA2010)

"통합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민간 운영단이 활용하여 원고비를 집행하거나 취재, 촬영, 편집 등에 가용할 수 있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이 편집단이 아르고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다원예술의 목소리를 나눌 수 있는 민관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아르고 다원예술 전담심의관이나 이전에 전담 심의를 하셨던 역대 심의위원 분들도 편집단에 참여해 직접 기록 생산자로서 활동하게 하는 방식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MDA2002)

[표 60]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 3) 민간 거버넌스 구조의 공동기록단 제언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개별 기록자가 독립적 아카이브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네트워킹하는 '공동기록단' 제언 - 운영 방식, 참여자 자격, 독립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구체화 필요
TF형 편집단·시즌제	- 아르고와 소통을 통해 실질적 의사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TF(기획단) 운영 제언 - 시즌제 개념을 도입해 비평 및 기록 콘텐츠 창출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
운영 자격·예산·소통	- 스펙 쌓기용 변질을 경계하고 애정과 뜻이 있는 참여자 선발 강조 - 플랫폼 콘텐츠 예산 활용 및 아르고 심의관 직접 참여를 통한 실질적 창구 역할 기대

4.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플랫폼 전략

가. 논의 배경

- * 비평 및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을 담아낼 플랫폼 전략을 둘러싸고, 아르고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페이지 활용(1안)과 독립적 채널·페이지 구축(2안) 사이의 선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수렴됨
- * 콘텐츠 형식으로는 텍스트 비평 및 리뷰, 영상(유튜브형 대담), 인터뷰, 큐레이션형 기획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등 다양한 방식이 논의되었으며, 플랫폼 선택의 최우선 기준으로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이 제시됨

나. 통합포털 내 마이크로 페이지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산 전략

- * 예산과 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신규 플랫폼을 구축하기보다 기존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페이지(별도 트랙)'를 1단계 파일럿으로 구축하자는 안이 제안됨
- * 특히 공공기관의 플랫폼은 기관장 임기 종료 후 전환 시 전면 개편되거나 웹페이지가 통합 또는 폐지되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 이에 따라 무리한 신규 구축보다는 기존 통합포털 내 페이지로써 작은 채널로 시작하여 지속성을 확보하는 연계형 구조로 존속하는 전략이 현실적 대안으로 강조됨

"플랫폼을 새롭게 구축하기보다는, 현재 통합 플랫폼 내에 웹진 등이 마이크로 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기존 통합 플랫폼 내의 마이크로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MDA2007)

"당장 별도의 플랫폼으로 구축하려 하면 실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존 플랫폼에 들어가서 점진적으로 확장하며 정체성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넓히는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MDA2001)

"별도 플랫폼을 만들어도 결국 아르고 홈페이지와 연결해야 하는데, 보통 신임 위원장님이 오시면 조직개편 등에 의해 기관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거나 일부 페이지는 통합 및 폐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통합 플랫폼 내에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단계별로 가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도 전략적일 것 같습니다." (MDA2004)

"링크나 페이지 하나를 열어 기존 채널에 안착해서 살아남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며, 경험상 크게 런칭하면 단번에 크게 사라지게 되므로 작게 시작하여 끈질기게 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MDA2010)

다. 공동기록단의 형태로 비평인력 발굴 및 지원

- * 다원예술 비평·기록문화 활성화는 앞서 논의된 '공동기록단'처럼, 해당 분야의 문해력과 맥락을 갖춘 전문가(필자) 중심의 텍스트 기록이 핵심이어야 하며, 영상 콘텐츠는 이를 보완하는 역할로 제안됨
- * 비평 및 기록의 매체는 텍스트 기반의 종이잡지, 웹진, 블로그와 같은 방식과 이미지 기반의 사진, 스케치 및 인터뷰 영상 같은 방식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2010년대 종이 잡지·웹진들이 다원예술을 기록해온 방식이 여전히 유효한 참고 사례로 제시됨
- * 다원예술의 비평과 기록은 해당 분야의 문해력과 맥락을 갖춘 필자의 텍스트 기록을 중심으로, 필요시 영상 콘텐츠가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고려할 수 있음(인터뷰의 경우 별개)



"청년 영상 크리에이터들을 선발해서 7개월 정도 기획부터 제작,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소화하게 하여 월마다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포털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서비스하는 기자단 형태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DA2001)

"기자단 단계에서 다원예술에 대해 단순한 수박 겉핥기식이나 블로그식으로 남겨지는 기록은 다소 우려가 됩니다. 단일 장르와 달리 다원예술은 해당 분야의 문맥과 문해력을 갖춘 전문가의 텍스트 기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작가들이 원하거나 다원예술 씬에서 검증된 리뷰어들이 남긴 텍스트 기록은, 그것이 굉장히 감각적이지 않더라도 좋은 사료이자 현재형의 기록으로서 충분한 가치를 지닙니다.

[...] 2010년대의 웹진이나 종이 잡지들이 다원예술을 충실히 기록했던 사례들이 여전히 유효한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이 있는 텍스트 기록을 바탕으로 동영상 기능이 보완적으로 더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MDA2010)

[표 61]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 4)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플랫폼 전략

구분	핵심 내용
논의 배경	- 아르고 통합 플랫폼(마이크로 페이지) vs 독립 채널 구축 간의 플랫폼 전략 논의 - 플랫폼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비평·기록문화 활성화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성' 대두
플랫폼 형태와 기록 대상의 단계적 확산 전략	- 예산·운영의 현실성을 고려해 아르고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페이지' 파일럿 제안 - 기존 통합포털 내 작은 채널로 시작해 꾸준히 지속성을 확보하는 현실적 대안 강조
비평인력 발굴 및 지원	- 다원예술의 맥락을 읽어낼 문해력을 갖춘 '전문가 중심의 텍스트 기록' 필수 - 비평적 역할로서 텍스트 매체를 중심으로 영상 기록을 병행하는 방향 제시

제5절 내부 세미나 및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논의

1.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논의의 목적과 운영 경과

가. 논의 배경 및 목적

- * 본 연구는 선행된 생태계 현황 분석 결과를 이어받아,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개선 방향과 중장기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됨
- * 개별 주제별 워킹그룹은 기존의 행정적 사업 분류명에 갇히지 않고 창작-매개-향유라는 생태계의 유기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재분류됨
- * 통합(교집합) 워킹그룹은 이처럼 분절되었던 세부 논의들을 하나로 수렴하고, "다원예술을 정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원론적 질문에서 다시 출발하여 기존 논의를 담론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식으로 기획됨
- * 기존의 포괄적 다원주의를 넘어 '고도화된 다학제성'으로 다원예술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집중 세미나를 통해 파편화된 사업 구조들을 촘촘하게 엮어 최종 정책 방향성을 확정하고자 함

나. 운영 경과

[표 62]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세미나) 운영 경과

구분	논의 주제 및 주요 내용
내부 성과공유 세미나 (2026-01-29)	- 주제: 2차 연도 연구 중간 성과 발제 - 워킹그룹 논의 결과 및 분야별(창작·매개·향유) 지원사업 개선 아이디어 공유 - 아르코 내외부 관계자가 다수 참석하여 질의응답 진행 및 지원 구조 초안 재정비 합의 - 기관 간 역할 조정 문제 등 제도적 실행 여건에 대한 현장의 현실적 피드백 수렴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1차 세미나 (2026-03-09)	- 주제: 아르코 다원예술의 흐름과 현황 및 공백 진단 - 다원예술 개념어 변천 흐름 검토 및 현재 유효한 개념어 논의 ('탈장르'에서 '장르적 변용'으로, '포괄적 다원주의'에서 '고도화된 다학제성'으로의 전환) - 기초예술 생태계 내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의의(수문장·완충지·순환 펌프) 재확인 - 다원예술 생태계 내 창작·매개·향유 전반의 공백과 불균형 진단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2차 세미나 (2026-03-13)	- 주제: 아르코 다원예술사업에 대한 생태계 내 인식 검토 및 대안 모색 -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부재, 지역 인프라 편중, 행정 체계와 창작 현실의 괴리 등 3대 주요 아젠다 심층 논의 - 공공·민간 협력 모델 사례 검토 (LG아트센터,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등) 및 단순 매칭을 넘어선 '파트너십 중심의 기획 매개' 필요성 제기 - 비평을 사후 평가가 아닌 창작 초기 단계부터 호흡하는 과정적 파트너로 연계하는 '비평·기록 활성화' 방안 논의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 3차 세미나 (2026-03-20)	- 주제: 아르코 다원예술지원의 '지금' 도출 및 중장기 전략 목표 수립 - '아르코 비전 2030'의 핵심 가치와 연계한 3대 중장기 전략 목표 초안 검토 및 현장 의견 수렴 - 현장 주도적 민관 합의체(협의체) 구성 방안, 페스티벌의 생태계 매개 거점화 방안 논의 - 다원예술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최종 방향성 확정 및 정책 제언 도출



2. 다원예술 생태계 현황 인식의 공유 지점

가. 아르코 다원예술 지원의 생태계적 의의

(1) 수문장·완충지 기능

- * 한국의 다원예술 지원은 기초예술 생태계 내에서 전략적인 거점으로서, 기존 장르로 곧바로 편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와 예술적 실험들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예술적 당위성 및 확장성을 획득하고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완충지이자 검증의 장으로 기능해 옴

(2) 장르 간 순환 촉진(순환 펌프) 기능

- * 다원예술은 고정된 장르 분류 체계의 한계를 넘어 기존 장르들의 고유 영역과 주변부 경계면에 위치하며, 기성 장르가 고착화되지 않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경계를 허물고 순환을 촉진하는 '순환 펌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진단됨

(3) 생태계 변화의 지표(나침반) 역할

- * 지난 20여 년간 아르코의 다원예술 지원정책이 역동적으로 변화해 온 것은, 다원예술이 예술 생태계 전반의 이슈에 가장 민감하고 유연하게 대처해 온 영역임을 반증함
- * 이러한 유연성은 국내 타 공공 및 지역문화재단이 자체적인 다원예술 정책 수립과 사업을 설계할 때 방향을 설정하는 핵심적인 지표이자 나침반으로 작용하고 있음

나. 생태계 공백의 공통 진단

(1) 비평·담론의 구조적 부재

- * 다원예술 비평은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준전문가급 이상의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어, 생태계 내에서도 비평 인력 자체가 소수이며 신진 비평가 육성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음
- * 현재 아르코 통합 플랫폼의 칼럼 및 웹진(A스퀘어)은 다원예술에 특화된 비평이 아닌 사업 소개나 보도자료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 담론 형성에 한계가 있음
- * 서울문화재단의 RC 프로젝트 등 타 기관 사업 역시 다원예술을 전담하지 않고 예술 전반 중 일부를 다루는 방식으로 운영됨

(2) 지역 인프라 편중

- * '25년 창작주체 지원신청을 주로 살펴보면 70% 이상이 수도권 및 서울에 집중되어, 지역 내 다원예술 창작 인프라의 불균형이 확인됨
- * 이는 단순한 관객 부재의 문제라기보다 예술가들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사람과 환경, 장소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임
- * 비수도권에서도 지역 작가들이 자생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가 존재하나, 아르코 차원에서 지역 다원예술 지원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이 부재한 상황임

(3) 청년 유입 약화 우려

- * 기초예술 전공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방송 및 대중예술로의 이탈 등이 가속화되면서, 기초예술 기반 다원예술 생태계로의 신진 인력 유입 약화 우려가 일부 제기됨
- * 아코 청년 예술가 사업 담당 인력이 최근 축소됨에 따라 1~2인이 다수의 장르를 담당하게 되면서, 청년 예술가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4) 창작 규모와 행정 절차

- * 지원사업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다원예술 창작자의 경우 1인이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 정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다. 다원예술 개념의 재정립

(1) '탈장르' 개념의 재해석

- * '탈장르' 개념이 기존 장르에 대한 비판적 태도나 거부로 오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제기됨
- * 기존 장르에서 무조건 벗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가 본인의 작업을 발전시키고 표현의 출력을 높이기 위해 실험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장르적 변용'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형성됨
- * 다원예술 씬에서 활동하며 실험과 도전을 거친 이후, 다시 자신의 기반 장르로 돌아가 그 안에서 평가받고자 하는 창작자들의 회귀적 성향도 다수 확인되며, 이를 포용할 수 있는 열린 관점이 요구됨

(2) '실험성' 용어의 효용성 논의

- * '실험성'이나 '실험예술'이라는 표현이 1970년대의 낡은 이미지를 연상시키거나 특정한 강박으로 작용하여, 현장의 젊은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효용성이 낮고 오히려 거부감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제기됨
- * 다원예술에서 동시대적 가치를 자주 언급하는 이유는 결국 실험성을 품기 위함이며, 실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되 이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수용할지에 대한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합의함

(3) '수행성' 개념의 부각

- * 과거부터 다원예술은 기존 장르 문법으로 해석되기 어려울 때, 공연적 요소를 전략적으로 차용하여 표현의 출력을 높이는 '수행성'의 형태로 발전하며 미학적·사회적 가치를 발휘해 옴
- * 국립현대미술관이 다원예술을 아예 '퍼포밍 아트(Performing Arts)'로 영문 표기하며 수행성을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는 전략이 주요 사례로 논의됨
- * 수행성을 중심으로 관객의 참여, 상호작용, 사회적 요소까지 예술적 출력을 확장하는 동력으로 이해하되, 이것이 진정한 미학적 실험인지 단순한 장르적 변용(예산과 규모의 확장)인지 세분화하여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됨



(4) '다학제성'으로의 수렴

- * 선행 연구의 주요 결론이었던 '포괄적 다원주의에서 고도화된 다학제성으로의 전환' 방향을 2단계 교집합 워킹그룹에서 재확인함
- * 단순히 여러 장르를 혼합하는 것을 넘어, 동시대의 사회적 담론을 담아내고 타 학문(과학, 사회학 등)과 통합적으로 사유하며 전문성을 갖춘 주체들이 화합하는 '고도화된 다학제 예술'로 수용해야 함
- * 다원예술은 고정된 '장르'가 아니라 '과정, 태도, 방법론적 실험의 장'이자 문화예술 생태계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통 인식이 형성됨
- * 다원예술 특유의 모호성과 가변성 자체를 행정적 결함이 아닌 핵심 자산으로 인정하고, 이 불확실성을 제도 안에 온전히 수용하는 것이 다원예술 제도화의 핵심 과제임을 확인함

3. 핵심 전략 목표 설정(2027~2030)

가. 전략 목표 도출 과정 및 아르고 비전 2030과의 연계

(1) '아르고 비전 2030' 전략 과제 연계성 검토

- * 본 연구가 다루는 중장기 기간(2027~2030)을 고려하여, 2019년에 수립된 '아르고 비전 2030'의 전략 과제와 다원예술 생태계 주요 이슈 간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함
- *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제기된 현장의 이슈들이 '아르고 비전 2030'의 4가지 주요 전략 과제들과 높은 연결성을 맺고 있음을 확인함
 - 해당 4대 전략 과제는 '창작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원 영역 확장', '문화예술 가치 확산 및 활동의 다각화', '예술 기록 축적 및 활용의 증대', '조직 운영 전문성 및 효율성의 확립'임

(2) 3대 핵심 전략 방향 설정

- * 아르고 비전 2030과의 연계성 분석을 바탕으로, 다원예술 생태계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도출하고자 하는 세 가지 핵심 중장기 전략 방향을 설정함

[표 63] 3대 핵심 전략 목표

구분	핵심 내용
예술 현장과 공진화하는 파트너십 고도화	- 일화성 민원 처리가 아닌 상호 신뢰와 관계성을 바탕으로 예술 현장의 목소리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지원 구조 구현
다학제적 예술로써 R&D 영역 확립	- 과정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실험적 실패의 불확실성마저 예술적 자산으로 포용하는 제도적 수용 모델을 확립
플랫폼 및 기획·발굴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 공간, 인력, 단체 등 생태계 주체들이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고, 창작에서 비평과 담론화까지 맞물려 돌아가는 순환 체계를 조성

나. [전략 목표1] 예술 현장과 공진화하는 '신뢰의 파트너십' 고도화

※ 다원예술 지원정책의 잦은 변화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일회성 행정을 넘어 현장과 수평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구조적 파트너십을 구축함

[표 64] 3대 핵심 전략 목표 - 1) 예술 현장과 공진화하는 '신뢰의 파트너십' 고도화

구분	주요 내용
배경 인식	- 다원예술 지원 유형의 지속적 변화는 현장 의견을 반영하려는 의도였으나,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및 예산 배분에 대한 현장의 오해와 불신을 초래함 - 과거 다원예술 리부트 당시 동료 심의 등 파트너십을 시도했으나 운영상 한계에 직면한 경험이 있음
방향성	- 파트너십은 일회적 컨설팅이나 단순 민원 처리 방식이 아닌, 현장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관계로 구현 -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임 - 현장과의 소통과 연대가 아르고 내부에 확고한 시스템으로 내재화되는 것을 목표로 함

다. [전략 목표2] 다학제적 예술로서 R&D 영역 확립

※ 결과물 중심의 평가를 탈피하여 창작 과정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고, 다원예술 특유의 모호성과 불확실성을 예술적 자산으로 포용하는 R&D형 지원 트랙을 확립함

[표 65] 3대 핵심 전략 목표 - 2) 다학제적 예술로서 R&D형 영역 확립

구분	주요 내용
배경 인식	- 선행 연구의 결론인 '고도화된 다학제성' 방향을 구체적인 R&D(기획·리서치) 개념으로 발전시킴 - 제도가 다원예술 특유의 모호성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해 "다원예술이 무엇인가"라는 반복된 질문에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 지속됨
방향성	-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과정 자체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실패하더라도 실험하려던 의지와 도전의 미학적·사회적 가치를 제고함 - 예술이 지닌 불확실성을 행정적 리스크가 아닌 예술적 자산으로 포용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함 - 전면적인 독립 사업 신설 이전에 기존 사업 내 단계별 진입 방식을 통한 현실적 접근을 모색함 - 과거 실험적 다원예술에 부합했던 "창작의 과정" 사업의 긍정적 현장 평가를 참고하여 유사 기능의 재도입을 검토함



라. [전략 목표3] 플랫폼 및 기획·발굴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 * 단발성 발표로 소모되는 프로젝트 구조를 극복하고, 창작-발표-비평-담론화-재창작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자생적 다원예술 밸류체인을 구축함

[표 66] 3대 핵심 전략 목표 - 3) 플랫폼 및 기획·발굴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구분	주요 내용
배경 인식	- 플랫폼 및 기획·발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생태계 주체들의 자생 기반 확충이었으나, 현재 창작 및 발표 이후의 후속 연결 고리가 취약한 상태임 - "한 번 보여주고 사라지는 작품들이 많다"며 단발성 소모에 그치는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제기됨
방향성	- 공간, 인력, 창작 단체, 기획자 등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자생적 생태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구조가 요구됨 - 창작 및 발표를 넘어 비평과 기록을 통한 담론화까지 맞물려 이어지는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 직접 지원사업과 공공·민간 기관의 연계 지원이 긴밀하게 연결되는 생태계 밸류체인 설계를 목표로 함

4. 중장기 추진 과제 제언

가. [1단계(기반 조성)] 민관 합의체 구성 및 과정 중심 지원사업 구조 정비

(1) 민관 합의체(협의체) 구성

- * 최근 소위원회는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외부 현장 전문가의 참여가 어려우며, 다원예술 전문 비상임위원이 실질적으로 부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수혜자, 공간 기획자, 비평 인력, 역대 전담심의위원 등 다원예술 현장의 실질적인 당사자성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새로운 협의 구조를 구성함
- * 정기적인 편집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창구로 활용함
- * 협의체 논의 내용을 웹진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유하여 정책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 과거 포럼에서 빈번하게 나타났던 단순한 의견 나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의사결정과 정책 합의가 가능한 범위로 구성원 규모를 제한함

(2) 과정 중심 지원사업 구조 정비

- * 과거 다원예술의 실험성에 높은 적합성을 보였으나 타 장르의 결과 및 성과 중심 사업 등과 비교 대상이 되어,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며 폐지되었던 "창작의 과정" 사업의 긍정적 현장 평가를 일부 반영하여, 이와 유사한 기획·리서치 기능 등을 재검토함.
- * 단계별 R&D 트랙을 공식 도입하고 전문가 피드백 등 환류 장치를 요건화하여, 최종 결과물 중심의 평가에서 창작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평가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함

- * 창작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계획 변경이 잦은 다원예술의 특성을 고려해, 교부 변경 절차 등 행정적 유연성을 제도 안에 구조적으로 일부 반영하여 창작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함

"다원예술 전문 비상임위원'은 기존 장르처럼 위촉 당시 선임된 적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MDA2004)

"협의체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과거 포럼 자료를 보았을 때, 서로의 의견을 뭉치기보다 '저도 한마디 합시다' 식의 분위기로 흘러가 이야기가 취합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한 규모로 제한해야 합니다.

[...] 협의체를 구성하고 거기서 나온 이야기를 내부적으로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도 투명하게 공유하여, 웹진이나 보고서 등의 형태로 지속해서 남기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 교부 변경 과정이 열려 있기는 하지만, 이를 일종의 시스템 안에 구조적으로 조금 더 녹여서 지원자들이 심리적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MDA2002)

"리서치와 사전 제작을 지원하며 자부담 의무가 없었던 '창작의 과정'은 다원예술가들에게 매우 유용한 사업이었으나, 결과중심 및 성과지표 등에 밀려 폐지된 것은 생태계의 손실입니다." (MDA2010)

나. [2단계(체계화)] R&D 트랙 공식 도입 및 비평·기록 플랫폼 안착

(1) R&D 트랙 공식 도입

- * 창작의 결과물 이전에 필수적인 기획 및 리서치 과정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결과 중심 평가를 탈피한 독립적인 리서치 전용 트랙을 신설함
- * 연차별로 달성해야 하는 핵심 목표를 설정하되, 다원예술 특유의 실험적 변동성을 반영하여 매년 유연하게 목표를 수정하고 승인받을 수 있는 마일스톤(milestone) 방식의 평가 체계를 도입함
- * 균등한 예산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초반 연차에는 예술 생태계 인프라 구축과 리서치에 예산을 집중 배분하고, 이후 단계에서는 확산 및 발표 연계로 예산을 차등화하는 유연한 지원 구조를 마련함
- * 이러한 단계별 운영 방식은 네덜란드의 4년 주기 문화정책과 영국 예술위원회(ACE) 내셔널 포트폴리오 Organization(NPO) 사업의 마일스톤 기반 파트너십(릴레이션십 매니저 배정 등) 구조 등 성공적인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화함

(2) 비평·기록 플랫폼 안착

- * 아르코의 다원예술 역대 전담심의위원 및 현 전담심의관과 민간의 창작자, 기획자, 비평가 등 다원예술 당사자성을 갖춘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공동 편집단(기록단)'을 구성하여 운영함
- * 처음부터 대규모 독립 채널을 구축하여 리스크를 안기보다, 아르코 통합 플랫폼 내에 마이크로 페이지를 신설하여 연계하는 방식의 단계적 전략을 취해 진입 장벽과 운영 부담을 낮춤
- * 깊이 있는 담론을 다루는 롱폼(비평, 인터뷰, 학술 텍스트 등)과 대중적 파급력을 지닌 숏폼(릴스, 바이럴형 숏폼 등)을 병행 설계하여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콘텐츠 전략을 취함
- * 텍스트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상, 사운드, 이미지 등 다양한 매체를 혼합한 다층적 콘텐츠 형식으로 운영하여 동시대적 접근성을 높임
- * 해당 운영 방식은 롱폼과 숏폼을 병행 실험한 '문학광장 문학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사례와 다양한 층위의 텍스트와 전문 필진 섭외를 운영하는 '이플렉스(e-flux)' 웹진의 구조를 참고하여 모델링함



다년 사업의 경우 1차 연도는 준비 과정으로, 2차 연도는 제작·발표 기간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2차 연도 지원금을 상향하는 방안 등을 고민 중입니다." (MDA2004)

"1년 차는 탐구와 리서치 중심이므로 지원금을 4천만 원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실제 작품을 제작하는 2년 차에는 비용이 훨씬 많이 필요하므로 6~7천만 원 수준으로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MDA2013)

"마일스톤 방식을 도입한 지원 체제입니다. 연차마다 기대하는 필수적인 목표 영역이 있고 그에 따라서 연도마다 사업 기회 배분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지원 예산을 차등 결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정책 주기에 맞춰서 4년 단위로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마일스톤 기반의 단계별 필수 목표 안에서 매년 유연한 목표 수정이 가능한 구조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아르코 다원예술 전담심의관, 역대 심의위원들이나 그리고 생태계 주체의 민간 기록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기록단의 형태를 제안합니다. 거버넌스형 운영 구조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편집 회의를 통해 다원예술 비평과 기록에 대하여 과거의 맥락과 현재의 감각을 연결하는 활동을 수행할 것입니다.

[...] 문학광장의 문학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사례에는 롱폼 형태인 '문학입니다'와 숏폼 형태인 '문학집회원'이 있습니다. 롱폼과 파급력 있는 숏폼을 함께 설계하는 통합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 이플렉스에서 다루고 있는 콘텐츠는 가벼운 리뷰부터 비평적, 학술적 연구까지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텍스트 콘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 편집자를 배정해 다양한 필진을 섭외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MDA2002)

다. [3단계(확산·고도화)] 생태계 매개 거점 자생력 확보 및 K-다원예술 외연 확장

(1) 다원예술 페스티벌의 거점화

- * 단순한 작품 발표의 장을 넘어 비평, 기록, 담론 형성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플랫폼형 페스티벌을 설계하여, 생태계 담론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
- * 소규모 축제를 기획 및 리서치 역량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로 우선 활용하고, 이후 중규모 축제와 연계하여 성장시키는 중장기적 브랜딩 전략을 수립함
- * '문학주간', '미술주간' 등 타 분야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중과 다원예술이 만날 수 있는 '다원예술 주간' 형태의 정기 행사 도입을 적극 검토함
- * 공공지원으로 발굴된 국내 우수 작품들을 일회성 발표로 끝내지 않고, 재연 및 지역 투어 연계를 통해 발표 시기와 장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킴
- * 축제 기획 초기 단계부터 아카이빙을 결합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 및 구축하여, 향후 국제 페스티벌 연계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함

(2) K-다원예술 외연 확장

- * '다원예술'이라는 용어 자체가 지금까지는 국제 학계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적절한 번역어 역시 부재하여 문화예술계 내에 독립적인 분야로서의 신뢰도가 낮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제기됨
- * 이처럼 국제적 통용이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중미술'이 고유 명사로 자리 잡은 사례처럼 'K-다원예술'이라는 용어 자체를 전략적으로 고유 개념화하는 방향이 논의됨
- * 영문 번역과 영문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을 병행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다원예술을 명확히 인지시키고 외연을 확장하는 전략이 요구됨

"다원예술 페스티벌을 새롭게 기획해서 아예 처음부터 아카이빙이 초기 단계부터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그 안에서 전문가들이 만나 포럼을 열어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영문으로 다 번역해서 해외에 알리고, 세팅이 어느 정도 되면 국내를 시작으로 해외 무대에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연이랑 초연도 좀 섞어서 기획하고, 괜찮은 작품은 그 다음에 지역 투어를 시키는 방식으로 가면 어떨까 합니다." (MDA2004)

"문학주간처럼 '다원예술주간'이라도 만드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학계에서 다원예술이라는 개념 자체를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기 때문에 담론이 생기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외에서 'interdisciplinary'나 'performing arts' 등 어떤 번역어와 매칭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민중미술처럼 굳은 각오로 이 용어 자체를 브랜딩하는 방법도 모색해 보아야 합니다." (MDA2005)

[표 67] 단계별 중장기 추진 과제

추진 단계	핵심 과제	주요 실행 포인트
1단계 (기반 조성)	민관 합의체 구성	- 현장 당사자성을 갖춘 적정 규모의 전문 협의체 구성 - 정책 과정의 신뢰 확보를 위한 투명한 논의 구조 운영
	과정 중심 지원 정비	- 현장 적합성이 높았던 '창작의 과정' 유사 기능(기획·리서치) 재도입 - 행정적 유연성(교부 변경 등)을 제도화하여 과정 중심 평가로 전환
2단계 (체계화)	R&D 트랙 공식 도입	- 결과 중심을 탈피한 기획·리서치 전용 독립 트랙 신설 - 연차별 유연한 목표 수정이 가능한 마일스톤(milestone) 평가 도입
	비평·기록 플랫폼 안착	- 아르고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 페이지를 활용한 점진적 구축 - 다원예술 당사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 공동 편집단 운영
3단계 (확산·고도화)	페스티벌 거점화	- 소규모 축제(테스트베드) → 중규모 연계의 중장기 브랜딩 전략 - 단순 발표를 넘어 비평·기록·담론이 통합된 플랫폼형 축제 육성
	K-다원예술 외연 확장	- 우수 작품 재연 및 지역 투어로 발표 분산 - '다원예술' 용어의 전략적 브랜딩 및 영문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



5. 단계별 실행을 위한 선결 조건

가. [선결 조건1] 협의체 구성 방식 합의

- * 과거 포럼 사례를 검토한 결과, 참여 구성원이 과도하게 많을 경우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단순한 다성주의로 흐르며 내용 취합이 어려워지는 한계가 반복적으로 확인됨
- *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원의 당사자성 및 대표성 확보 기준과 구체적인 운영 방식(적정 규모 등)에 대한 사전 합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나. [선결 조건2] 비평·기록 플랫폼의 점진적 접근

- * 다원예술 비평·기록 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처음부터 대규모 독립 채널 런칭을 목표로 하기보다, 진입 장벽과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기존 아르고 통합 플랫폼 등에 연계하는 방식의 단계적 접근을 취함
- * 대규모로 시작했다가 빠르게 사라지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채널이나 소소한 마이크로 페이지 형태로 시작하여 생존력을 확보한 후 안정적으로 정착하면 독립 채널로의 전환을 검토함

다. [선결 조건3] 신규 사업 도입 시 적극적인 현장 안내

- * 신규 사업이 예고 없이 신설될 경우, 기존 사업 수혜자들에게 예산 배분의 변화로 오해를 사거나 탈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현장의 불신과 혼란이 증폭됨
- * 따라서 새로운 지원사업이나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에 충분한 사전 공유와 설명 과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행정적 절차 마련이 필요함

"링크 하나, 페이지 하나를 여는 방식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존 채널에 정착하여 살아남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이며, 크게 런칭하면 빠르게 사라지게 됩니다. 단번에 사라질 위험이 있어, 상시적으로 여유 있는 운영 체계를 갖춘 단체가 문화예술계에는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MDA2010)

"그래서 통합 플랫폼 내에 굳이 신규 플랫폼 추가하시는 것보다 신규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MDA2007)

"사업의 잦은 변경 또는 갑자기 신규 사업이 신설되었을 때 사업이 신설되면서 자신이 탈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신규 사업 신설로 인해 예산 배분이 달라졌을 것이라며 심리적으로 원인을 지목하는 오류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MDA2002)

[표 68] 실행을 위한 3대 선결 조건

구분	선결 과제	핵심 고려사항
조건1	협의체 구성 방식 합의	- 단순 의견 나열(다성주의) 방지 - 실질적 의사결정과 정책 합의가 가능한 적정 규모 및 운영 방식 사전 도출
조건2	플랫폼의 점진적 접근	- 대규모 독립 채널 런칭에 따른 빠른 실패 리스크 최소화 - 기존 플랫폼에 연계하는 마이크로 페이지 형태로 생존력 우선 확보
조건3	현장 사전 공유 의무화	- 신규 사업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배분 변화에 대한 현장의 오해 방지 - 현장의 혼란과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충분한 사전 설명 절차 의무화

6.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과제와 현실적 여건

가. 기관 간 역할 조정: 문체부 및 타 기관과의 사업 경계 및 역할 분담 현황

(1) ARKO의 고유한 역할을 기반으로 한 사업 설계

- * 문체부는 예술과기술융합지원 사업을 타 기관이 전담하는 방향을 유지하고 있어, 아르코가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역할 분담 지침과의 정합성 검토 및 예산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 * 타 기관이 사업 범위를 유통에서 점차 확대하고 있음에 따라, 기관 간 사업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 이러한 여건 속에서 아르코는 사업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표현을 검토하는 등 개념 정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2) 행정 구조의 여건과 기관 역할의 강화 필요성

- * 국제교류 사업 분야에서도 정부의 역할 분담 지침에 따라 사업 범위에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며, 창·제작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 정의와 확산·매개 기능 간의 관계에 대한 내부 기준 마련이 요청되고 있음
- * 또한 정부와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사업 사전 중복성 등을 방지하며, 기관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며 다양한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아르코가 수행할 수 있는 다원예술 지원의 고유한 역할 범위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정립하고, 유관 기관과의 중장기적 협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기됨

나. 내부 실행 역량: 다원예술 전담 인력 확보의 시급성과 정책 연속성 담보

(1) 안정적인 다원예술 전담 인력 증원 필요

- * 아르코 내 다원예술 사업 전담 인력 증원 필요
- * 다원예술 사업 운영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기획과 다원예술의 외부 기관 협력 요청 시 원활한 대응까지 수용할 수 있는 '다원예술' 전문인력이 필요
- * 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순환보직으로 인해 신규 사업 기획 시 자료 조사부터 제도 세팅까지 이어지는 정책의 연속성과 완성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2) 예산 규모와 실행 역량 간의 불균형 심화

- * 다원예술 지원사업의 예산과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됨
- * 이로 인해 증가하는 사업 규모를 현재의 소수 인력이 감당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기관의 정책 실행 역량과 예산 규모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다. 협의체 구성의 현실적 조건과 거버넌스 운영 방식 제언

(1) 워킹그룹형 협의체로의 전환 제언

- * 사업 수혜자(공간, 단체, 개인), 기획자, 비평 인력, 역대 전담심의위원 등 다원예술 현장의 당사자성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함
- * 정기적인 편집회의 및 라운드테이블 방식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형태로 취합함
- *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을 웹진이나 보고서 형태로 내·외부에 투명하게 공유하여 정책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
- * 과거 포럼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정리되지 않고 병렬적으로 나열되며 끝났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실질적인 논의와 합의가 가능한 수준으로 구성원 규모를 제한함

(2) 협의체와 비평·기록 사업의 연동

- * 협의체 활동을 통해 생산된 논의 내용과 결과물들이 비평·기록 플랫폼의 실질적 콘텐츠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함
- * 이를 통해 협의체가 단순한 행정적 의견 수렴 기구에 머물지 않고, 다원예술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핵심 거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함

7. 논의 성과 종합 및 향후 과제

* 2차 연도 연구의 핵심 성과와 미해결 쟁점, 정책 제언을 개념·행정제도·생태계 인프라의 세 축으로 구조화하여 종합함

[표 69] 논의 성과 종합 및 향후 과제

축	성과 (가)	한계 및 쟁점 (나)	최종 제언 (다)
개념	- 다학제성 기반 독립 예술 영역으로 정체성 고도화	- 장르 중심 평가 체계 지속 - 다원예술 용어의 국제 통용 어려움	- 특화 심의 시스템 구축 - 다원예술 전략적 브랜딩
행정·제도	- 생태계적 의의 정립 (수문장·완충지·순환 펌프) - 제도적 여건 진단	- 전담 인력 부재 - 행정 용어 현장 괴리 - 타 기관과의 사업 경계 조정	- 전담 주무관(담당) 지정 - 민관 합의체 구성 - 기관 간 협의 구조 마련
생태계 인프라	- 공백 진단(비평·지역·청년·행정) 3대 전략 목표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 비평·담론 구조적 부재 지역 - 인프라 로드맵 미비 - 청년 유입 단절	- R&D 트랙 도입 - 비평·기록 플랫폼 안착 - 페스티벌 플랫폼화

가. 2차 연도 다원예술 생태계 연구의 주요 성과 요약

(1) 개념 축 — 다학제성 기반의 다원예술 정체성 고도화

- * 다원예술의 개념을 단순한 장르 혼합이나 포괄적 다원주의를 넘어, 고도화된 '다학제성'으로 수렴함
- * 다원예술이 기존 장르 체계에 편입되는 고정된 '독립 예술 장르'가 아니라, 과정과 태도·방법론적 실험을 중시하는 '독립적 예술 영역'으로서 정체성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현장 논의를 통해 재확인함

(2) 행정·제도 축 — 아르고 지원의 생태계적 의의 정립 및 제도적 여건 진단

① 아르고 지원의 생태계적 의의

- * 기초예술 분야의 기존 장르로 바로 편입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프로젝트들이 공적 지원체계 안에서 예술적 당위성을 획득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수문장'이자 '완충지'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함
- * 예술 생태계 전반에서 여러 장르들이 고착화되지 않고 서로 순환하며 생동하도록 영향을 주고받는 '순환 펌프'로서의 기능을 문헌 분석과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함

② 제도적 여건 진단

- * 유관 기관과의 사업 경계 및 역할 분담 현황을 검토하고, 기관 간 협력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함
- * 다원예술 전담 주무관 및 전문 비상임위원 확보 등 행정 인력 운영 방식과 실행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검토함
- * 민관 합의체 구성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실적 과제와 운영상 고려사항 등 정책 실행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실질적으로 진단함



(3) 생태계 인프라 축 — 현황 진단 및 중장기 실행 방향 수립

- * 비평 및 담론의 구조적 부재, 지역 인프라 편중, 청년·신진 인력 유입 단절, 행정 체계와 창작 현실의 괴리 등 다원예술 생태계 내 공백에 대한 구체적 진단과 현장의 근거 자료를 축적함
- * 이를 극복하기 위해 ① 예술 현장과 공진화하는 파트너십 고도화, ② 다학제적 예술로서 R&D 영역 확립, ③ 플랫폼 및 기획·발굴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 목표를 수립함
- * 도출된 전략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1단계(기반 조성) → 2단계(체계화) → 3단계(확산·고도화)로 이어지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함

나. 향후 과제 및 정책 제언

(1) 개념 축 — 전문적인 평가 체계 및 개념화, 고도화 필요

① 장르 중심 사업 분류 체계의 한계

- * **[쟁점]** 다원예술의 본질은 과정 중심·다학제적 융합·탈장르적 실험에 있으나, 현행 지원 및 평가 체계는 여전히 완성된 결과물 위주의 장르 중심 평가에 머물러 있는 구조적 맹점이 지속됨
- * **[쟁점]** 심의위원 풀 역시 각 기존 장르 전문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으며, 다원예술 특유의 미학적 실험성과 동시대적 메시지를 온전히 독해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반복적으로 지적됨
- * **[제언]** 다원예술의 고도화된 다학제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특화된 질적·양적 혼합 평가 지표 개발과,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심의 시스템 구축에 대한 후속 연구가 요구됨

② 다원예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관통하는 개념적 고도화 필요

- * **[현황]** 국내 지원 제도를 통해 자리 잡은 '다원예술'은 국내외 예술분야 학계에서 좀 더 다양한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다원예술에 대한 동시대적 관점과 국제적 번역에 대한 합의가 요구됨
- * **[쟁점]** 이러한 현황은 다원예술의 글로벌 진출과 국제적 담론 형성에 어려움 있음
- * **[제언]** 향후 'K-다원예술' 자체를 독자적인 개념으로 전략적 브랜딩하는 작업이 요구되며, 영문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 등과 국내 학계에서도 '다원예술의 개념 변화와 지원 방향성' 등 정책 방향과 전략 과제를 제안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2) 행정·제도 축 — 전담 인력 공백/기관 간 경계 조정/행정 언어 괴리

① 전담 인력 증원과 정책 연속성 확보

- * **[쟁점]** 문체부 내 다원예술 전담 주무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음
- * **[쟁점]** 아르코 비상임위원회 내 '다원예술' 전문가로 위원을 공개 모집 및 위촉한 적이 아직까지 없음
 - 위원회의 구성은 문체부 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위원장 1명을 포함)의 위원으로 구성함(문학, 미술, 연극, 음악, 무용, 전통, 문화일반 등)
- * **[제언]** 아르코 비상임위원회 내 다원예술 전문가 포함 구조 마련을 위해 문체부와 아르코 간의 긴밀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② ARKO 정체성과 역할을 강조한 사업 설계

- * **[쟁점]** 예술과 기술 융합 및 유통 관련 사업 영역에서 타 기관의 사업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정부(문체부)의 역할 분담 지침 하에서 아르코의 다원예술 영역과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 **[쟁점]** 사업 정체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체계적 기준 마련은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 **[제언]** 기초예술 생태계 안에서 실험적 다원예술의 기반을 다지고 매개하는 아르코 고유의 역할과 사업 범위에 대한 내부 기준을 정립하고, 관련 기관 간 중장기 협의 구조를 마련하여 역할 분담의 합리적 틀을 공동으로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3) 생태계 인프라 축 — 비평·지역·청년의 삼중 공백과 순환 구조 마련

① 비평·담론의 구조적 연결 필요

- * **[쟁점]** 2025년 플랫폼 및 기획·발굴 심사 기준, 비평·평론 분야 지원 건수는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창작 활동으로 지원됨 → 해석 주체의 부족 확인
- * **[쟁점]** 아르코 통합 플랫폼의 칼럼·웹진(A스퀘어)이 사업 소개 보도자료 형태로 운영되어 실질적 담론 형성에 한계가 있으며, 서울문화재단의 RC 프로젝트 역시 다원예술을 전담하지 않는 구조임
- * **[제언]** 다원예술 특화 비평·기록 플랫폼을 아르코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채널로 먼저 시작하여 안착 이후 독립 채널로 전환하는 점진적 전략이 요구됨

② 지역 인프라 확충 로드맵 설계

- * **[쟁점]** 다원예술의 경우 수도권·서울에 집중되는 불균형이 보이고 있어, 아르코가 비수도권 다원예술 지원을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개입할지에 대한 구체적 중장기 로드맵 검토가 필요함
- * **[쟁점]** 지역 내 자생적인 다원예술 그룹들이 대형 국공립 기관에 흡수되거나 인프라 부족으로 소멸하는 문제가 우려됨
- * **[제언]** 우선적으로 공공과 민간의 성공적인 협력 매개 모델을 구축하여 검증한 이후, 지역의 유희 공간 등 비제도적 인프라를 맵핑하고 활성화하는 지역 특화 다원예술 지원정책에 대한 심층 후속 연구 및 공론화가 이어져야 함



다. 2027년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실행 로드맵

(1) 개념 축 — 다학제성 제도화와 국제화 기반 마련

① 다원예술 특화 심의 시스템 구축

- * 다원예술의 고도화된 다학제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질적·양적 혼합 평가 지표 개발이 요구됨
- *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 심의 풀을 별도 구성하여, 장르 중심 심의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해야 함

② ARKO의 K-다원예술 고도화 및 국제화

- * 'K-다원예술' 자체를 독자적인 개념으로 전략적 브랜딩하는 중장기 작업이 요구됨
- * 영문 비평·기록문화 활성화 구축 및 국제 네트워크 연계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함

(2) 생태계 인프라 축 — 창작-비평-담론의 순환 구조 구축

① 다원예술 지원사업 내 R&D형 트랙의 단계적 도입

- * 창작 과정 자체의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예술의 R&D형 트랙으로서 과정 중심의 다원예술 지원사업이 필요
- * 전면적 신설보다 기존 사업 틀 내 단계적 도입 방식을 취하여 행정적 안정성을 도모함
- * 마일스톤 방식의 연차별 유연한 목표 수정·승인 구조를 병행하여 창작자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여야 함

② 비평·기록 플랫폼 점진적 안착

- * 비평·기록 플랫폼은 처음부터 대규모 독립 채널로 구축하기보다, 아르크 통합 플랫폼 내 마이크로채널 형태로 시작하여 진입 장벽을 낮춤
- * 롱폼(비평·인터뷰)과 숏폼(바이럴형 콘텐츠) 병행 설계로 자생력을 확보한 이후, 점진적으로 독립 채널 전환을 검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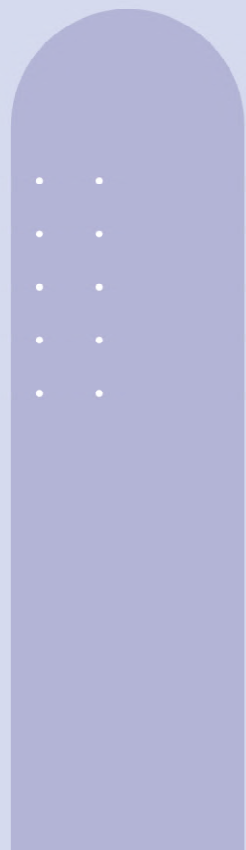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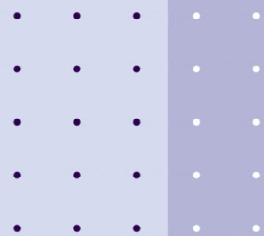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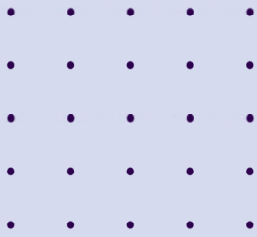
③ 생태계 주요한 거점이자 주체로서의 다원예술 플랫폼 활성화

- * 다원예술 페스티벌 지원은 단발성 작품 발표를 넘어, 기획·리서치부터 비평·기록·담론화가 유기적으로 통합된 '플랫폼형 축제'로 설계되어야 함
- * 소규모 축제를 테스트베드로 삼아 중규모로 연계 육성하는 전략을 통해, 페스티벌 자체가 다원예술 생태계의 담론을 생산하고 확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육성함

04

연구 분석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분석 결과

1. 결과 요약

가. 한국 다원예술 생태계 진단

(1) 패러다임 전환 - 포괄적 다원주의에서 고도화된 다학제 예술로의 이행

[표 70] 패러다임 전환 - 포괄적 다원주의에서 고도화된 다학제 예술로의 이행

구분	핵심 내용
개념의 재정립	- 동시대 거의 모든 예술 분과가 다원적 속성을 흡수하는 흐름 속에서, 다원예술은 단순한 장르 결합을 넘어 독립적 예술 영역인 다학제 예술(Interdisciplinary Art)로 정체성 확립이 요구됨
장르적 변용으로의 관점 전환	- 기존 '탈장르' 개념의 오독을 예방하고, 다원적 가치를 예술적 방법론으로 내재화하며 매체·기술·이질적 분야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예술적 문법을 생성하는 '장르적 변용'의 관점으로 전환
동시대적 실천이자 관계적 위상	- 다원예술은 특정 장르로 고착되기보다 타 분야와의 접점과 틈새에서 조응하는 영역으로서, 예술 생태계 전반의 역동성을 견인하는 기제로 작동

(2)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 장르 중심 분류체계 안에서의 구조적 소외

[표 71] 지원체계의 사각지대 - 장르 중심 분류체계 안에서의 구조적 소외

구분	핵심 내용
제도 내 위상의 모호성	- 다원예술이 독자적 영역으로 아르코 지원체계 안에 안착했음에도, 지원사업 전반을 관통하는 '장르 중심 분류체계의 관점'은 다원예술 특유의 '확장의 영역'으로서의 특성을 약화시킴
독립 장르화 시도의 양가성	- 현장의 '독립 장르화' 촉구는 미학적 고착화가 목적이 아니라 모호성에서 비롯된 지원체계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생존 전략이었으나, 다원예술 본연의 실험성과 충돌하며 역설적으로 정의를 더욱 모호하게 만드는 내적 모순을 야기
매개·담론 영역의 발굴 부재	- 2025년 다원예술 창작주체 공모 시 비평·평론 분야 접수율이 2건에 불과하여, 지원정책이 제작 중심에 치중되어 있음을 시사하며 비평·디지털 아카이빙 등 해석의 주체로서 전문가 육성의 공백을 드러냄

(3)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 -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된 생태계 목소리

[표 72] 주요 이해관계자 인식 - 워킹그룹을 통해 도출된 생태계 목소리

구분	핵심 내용
창·제작 지원환경의 보완 요구	- '창작의 과정' 사업의 가치 재검토 필요, 다원예술 특유의 실험 논리를 숙성시킬 '예술 R&D'형 지원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기
전략적 기획 매개의 부재	- 외부 기관과의 연계가 단순 장소 매칭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공간의 잠재력을 함께 도출하는 파트너십 중심의 매개 모델 및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
다원예술 리터러시 기반의 부족	- 일회성·비물질성을 띠는 다원예술의 특성상, 단편적 결과 보고를 넘어 기록·비평·아카이빙을 '인내 자본'으로 인정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



나. 아르코 다원예술 사업의 구조적 과제

(1) 내부 역량 분석[SPRO]

전략(Strategy)	프로세스(Process)
· 실험적 R&D 포지셔닝 필요 - 아르코비전2030, 전략 과제 ① 창작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원 영역 확장 » 실험성과 과정의 가치를 포용 - 기초예술의 미학적 본질을 유지하며 외연을 확장하는 독자적인 '다원예술 R&D' 영역을 구축 · 경계를 넘어선 예술 생태계 리더십 - 기존 장르 분류체계를 벗어난 영역을 포용하는 지원체계로써, 동시대 예술 생태계 전반의 움직임을 진단 · 유관기관과의 전략적 연계 - LG아트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파라다이스문화재단, 서서울미술관, 독일 트랜스미디어레, ZKM 등 국내외 문화예술 주요 기관들과의 매개 파트너십 구축	· 전담심의관 구성으로 비정형적인 다원예술 프로젝트에 대한 일관성과 전문성을 갖춘 심의 프로세스 구축 · 예술생태계 밀착형 환류 - 간헐적인 라운드 테이블,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지원체계에 반영 시도 - 지원 프로젝트의 1차 아카이빙을 통해 예술 현장에 지식 자산으로 환원 시도 · 우수 다원예술 매개 및 확산 - 외부 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르코가 발굴한 우수 다원예술의 후속연계
자원(Resource)	조직(Organization)
· 안정적인 재원 -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기반으로 2025년 기준 연간 약 1,768,000,000원 규모의 다원예술 전용 예산을 운용 · 상징적 인프라와 사업 구축 - 아르코·대חק로예술극장 등의 발표공간을 비롯해, '창작산실'과 '창작주체'의 공신력 있는 이미지 구축 · 인적 자원의 한계 - 다원예술 담당 행정인력의 부족 - 다년 사업을 고려해, 다원 담당 인력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 및 제도적 장치가 시급	· 장르 종속적 조직 구조의 한계 - 시각다원예술 팀 내 통합 운영으로 효율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다원예술의 독립성과 시의성 있는 정체성을 형성해 가기에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 · 배분 행정 중심의 조직 문화 - 기부금 및 보조금 관리 중심의 조직 구조로 인해, 기관이 직접 다원예술 담론을 생성하고 사업을 주도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있음 · 다원예술 지원정책 연속성 확보의 어려움 - 시의성에 따라 임시로 형성되는 소통 창구에 의존 - 중장기적인 정책 안정성과 독립 부서화를 위한 조직 개편의 논리 강화가 필요



강점 요인	약점 요인
· 한국형 다원예술을 선도하는 아르코의 인지도와 권위는 외부 전문 기관들에게 우수성의 강력한 검증 지표로 활용됨 · 공공(ACC, 서서울미술관 등)과 민간(LG아트센터, 파라다이스재단 등)을 아우르는 연계 협력으로 지원사업의 문화생태 내 파급력을 강화	· 전담심의제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아르코의 다원예술에 대한 심사위원들 간의 일부 합일된 관점이 필요 · 시각예술 팀 내 종속적 위치와 순환보직 체제의 소수 인력 구조는 업무의 연속성과 장기적 전문성 축적을 저해할 수 있음

(2) 외부환경 분석[PEST]

정치적 환경(Political)	경제적 환경(Economical)
· 제2차 문화예술교육 활성 종합계획 ('23~'27) 발표 (2023, 문체부) - 누구나 누리는 예술적 삶을 위해 '장르 간 경계 없는 융합 교육' 및 '수요자 맞춤형 다양성' 강조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1~'25) 추진 - 소수자 문화 표현의 기회 확대 및 기초예술 내 문화적 차별 해소 - 지역 특화 문화 자산과 연계한 다원적 예술 활동의 법적 기반 마련 · 지역문화진흥법 기반의 문화 자치 확산 - 중앙 집중형 공모에서 벗어나 지역 기초예술 거점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술 생태계' 지원 강화	·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2024, 예술경영지원센터) · 기업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표와 연계한 국내외 메세나(Mecenat) 활동 증가 (2024, 한국메세나협회) · 가치소비(Meaning Out) 트렌드 확산 - MZ세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담론(환경, 인권 등)을 담은 기초예술 전시에 대한 유료 관람 의향 및 후원 증대 · 기초예술 창작 안전망 예산 증대 - 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확대 및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창작 지속성 확보 · 공연·전시 시장의 양극화 해소 노력 - 대형 상업 뮤지컬 위주의 시장에서 기초예술 기반의 소규모·실험적 다원 공연으로 소비 분산 유도
사회적 환경(Social)	기술적 환경(Technological)
· 제1차 차별금지 및 인권보호 기본계획 수립('22, 문체부)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지표 개발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가치 소비 및 사회적 가치 중심의 향유 문화 확산 - 문화예술 향유자들 사이에서 기후 위기, 젠더, 지역 소멸 등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 기초예술 기반 다원 프로젝트 선호도 증가 - '관객 참여형(Immersive)' 및 '현장성' 중심의 예술 경험 수요 증대 - 지역 고유의 자산(설화, 풍습 등)을 현대적 기초 예술로 재해석하는 '지역 특화 다원예술' 필요성 증대	·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사업의 내실화 (2024, 아르코 '예술-기술 융합 지원') · 첨단보다 적정 기술로의 회귀 현상 - 고도화된 AI 기술에 반작용으로 기초예술 특유의 '신체성'과 '물성'을 강조하는 하이브리드(Analog+Digital) 창작 도구 확산 · 예술적 실험을 위한 오픈소스 및 저작권 가이드라인 마련 (2023, 한국저작권위원회)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한 포용적 기술 도입 - 고령층이나 장애 예술가가 기술적 장벽 없이 다원예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배리어프리(Barrier-free) 기술 지원 확대

- ◆ **(종합 진단)** 다원예술은 동시대 예술 생태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영역으로 부상하였으나, 장르 중심 분류체계와 결과물 중심 행정 논리 안에서 그 미학적·사회적 가치가 충분히 포착되지 못함
- ◆ **(별도 독립된 '다원예술팀' 필요)** 시각 또는 공연과 같은 팀으로 편제 시 어느 한 장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다원예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립적인(*한 장르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분야와 소통 가능한) 입장이 어느 정도 유지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창작을 중심으로 기획·리서치·매개·비평·아카이빙으로 이어지는 '다원예술' 특화 밸류체인이 필요하며, 아르코의 매개 역할과 전담 전문 인력의 추가 확보가 필요함
- ◆ **(다원예술 관점의 전환을 제도 내 수용)** 결과 중심 → 과정 중심으로, 분배 행정 → 전략적 기획 매개로, 종속적 운영 → 독립적 전문 영역으로의 다층적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



제2절 중장기 전략 및 정책적 시사점

1. 기본 방향

- * 다원예술의 모호성·불확정성·휘발성을 결함이 아닌 '**핵심 자산**'으로 재인식하는 인식론적 전환을 토대로, 예술 현장과 공진화하는 신뢰의 파트너십을 강화
- * 기초예술 R&D 영역으로써 다원예술 고도화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창작주체 중심의 생태계 선순환** 구축

2. 중기전략체계 - 비전 및 3대 핵심가치

비전		
예술 생태계의 자생과 순환을 매개하는 K-다원예술		
아르코 다원예술 정체성 확립	매개 채널 구축	제도적 안착
고도화된 다학제성	예술 생태계와의 긴밀한 소통	다원예술의 제도적 수용모델 전환

3. 3대 추진방향 및 7대 세부추진과제

가. [추진방향 1] 한국형 다원예술에 대한 리터러시 기반 형성

- * 다학제적 예술활동으로써 한국형 다원예술의 미학적 정의 확립 및 비평·디지털 아카이빙 활성화

(1) 다원예술 공동기록단 운영

- * **추진 필요성**
 - 외주화·결과중심으로 단편화된 기록 체계를 탈피해, 휘발되는 실험성을 '인내 자본'으로 자산화하고 다학제적 리터러시 구축
- * **운영 방식**
 - 아르코 담당자·전담심의관(1~2인) + 민간 기록단(5~7인)으로 구성, 시즌제(5~6개월) 운영, 월 1회 정기편집회의
- * **기대 효과**
 - 심층 비평 1건 + 현장 기록 콘텐츠 3건 이상 정기 생산, 민·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행정적 보완

(2) 다원예술 집중 리뷰 및 기록 지원

* 매체 다양화

- 텍스트(심층비평·에세이) + 영상(인터뷰·숏폼) + 사진의 다층적 매체 혼합 활용으로 콘텐츠 입체성 확보

* 플랫폼 운영 전략

- 유튜브 독립 채널 개설 + 마이크로 페이지 연동, '숏폼↔롱폼↔텍스트' 상호 유입 구조로 담론 확산성 확보

* 다층적 성과 지표

- 조회수 위주에서 탈피해 평균 체류 시간·재방문율·전환율·재인용 등 인사이트 중심 KPI 설계

나. [추진방향 2] 예술 생태계 내 아르코의 매개 역할 및 전문성 강화

- * 예술 현장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다원예술 특화 컨설팅 플랫폼 구축

(1) 거점 공간 및 기관과의 중장기적 매개 모델 구축

* 전략 1안: 아르코 다원예술 주간(가칭)

- 특정 시기 집중 통합 홍보로 위성거점형 페스티벌 이미지를 형성하고 충성관객층 발굴

* 전략 2안: 연중 시기 분산 운영

- 지속적 접점 확대 및 아르코 전문 컨설팅의 고도화 동시 달성

* 공간 개념의 확장

- 유희 산업시설·빈집·야외공간 등 비제도권 장소를 예술 지형 확장의 근거지로 인정, 안전 컨설팅 시스템 표준화 병행

(2) 우수 다원예술을 위한 대외 커미션 협력 모델 설계

* 유관기관·단체 협력 모델(3년)

- 아르코 창작주체(다년) 사업 주기와 연동하여 거점 미술관·공연장의 기획 프로그램 내 안정적 결합

* 타 분야 협력 모델, R&D 기반(2년)

- 인문·과학·기술 연구기관과의 '리서치(1년) - 프로덕션(1년)' 2단계 구조로 학제 간 융합 도모

* 메세나형 협력 모델(5년)

- 기업 자본·마케팅 인프라와 아르코의 예술성 검증 역량을 결합한 제3의 공동 커미션 모델로 IP 보호와 ESG 연계



(3)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다원예술 전담 인력 구성

* 현황 진단

- 시각·다원예술 팀 내 통합 운영은 효율성 측면의 강점이 있으나, 다원예술의 독립성·시의성 형성에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

* 중장기 기획 전략

- 다원예술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장기적으로 독립적인 전담 체계를 갖추는 것이 목표
- 창작주체 밀착형 소통(OT, 컨설팅, 모니터링) 및 아르크형 다원예술 페스티벌 운영을 통한 독자 플랫폼 구축

다. [추진방향 3] 다원예술 창작지원 패러다임 확장

- * 실험적 태도의 제도적 수용력 강화 및 다원예술의 불확정성을 예술적 자산으로 포용

(1) 변용과 과정의 가치에 주목한 예술 R&D형 사업 신설

* 기초예술 R&D 영역의 독립적 트랙

- 발표를 전제하지 않는 '리서치 로그(연구기록)' 중심 트랙 신설, 자율적 실험과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아르크 기획형 사업과 이원화

- 공모형(연구활동비 중심)과 기획형(대외 커미션 협력 모델·페스티벌)을 병행 운영

* 과정 중심 성과관리

- 정형화된 작품 발표 대신 '리서치 로그'를 공식 성과물로 인정, 유연한 마일스톤 적용으로 실험적 위험 포용

(2) 다원예술 심의 및 평가 가이드라인 수립

* 심의위원 OT 실시

- 아르크가 지향하는 다원예술 개념·가치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규정 불가능성'에 대한 저항 수용 기준 적용

* 다양성 관점의 5인 구성

- 장르·분야·세대·지역의 균형 배분, 비예술 분야 전문가 풀(Pool) 연계로 사각지대 해소

* 단계별 다층적 평가 모델

- 기획(중장기 비전) → 과정(리서치 로그 환류) → 결과(비평적 피드백 자산화) 단계별 보완요건 설계

4. 연차별 주요 추진계획 요약(2027~2030)

추진방향	핵심과제	기반구축 (2027)	성장·전문화 (2028~2029)	가치확산 (2030)
한국형 다원예술 리터러시 기반 형성	공동기록단· 집중 리뷰	기록단 1기 발족·운영 체계 구축, 마이크로 페이지 개설	1:1 매칭·공동 기획 특집 강화, 유튜브 채널 운영 본격화	기록의 글로벌 연계 및 확산
아르코 매개역할· 전문성 강화	거점 매개모델· 협력 모델·팀 독립	공공·민간 거점 풀 구축, 선택제 확장, 전담직 증원	'아르코 다원예술 주간(가칭)' 시범·안착, 다원예술 팀 신설	거점 중심 밸류체인 안착·확산, 팀 기능 고도화
창작지원 패러다임 확장	R&D형 사업· 심의 가이드라인	R&D 공모유형 시범 실시, 다원 특화 OT 개발	'리서치 로그' 표준화, 다층적 평가 모델 시범 적용	예술가 지식 자산화· 심의 신뢰도 검증

5. 본 연구의 정책적 기여

* 학술적 의의

- 2020년대 중반 한국 다원예술의 개념을 '포괄적 다원주의 → 고도화된 다학제 예술'로 재정립하고, 장르적 변용·관계적 위상의 관점을 제시
- 워킹그룹(자문·공론장) 운영을 통해 현장 실증 기반의 1차 자료를 축적하고, 1차 연도 연구의 시사점을 계승·심화

* 실무적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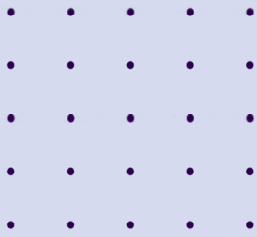
- 7대 세부추진 과제(공동기록단·집중 리뷰·매개모델·협력 모델·팀 독립·R&D형 사업·심의 가이드라인)별 즉시 실행 가능한 운영 방안 및 단계별 로드맵 도출
- 국내·외 공공 5개·민간 5개 유관기관 환경분석을 토대로 아르코만의 차별화된 K-다원예술 지향점 제시

* 향후 과제

- 연차별 추진계획의 실행 단계에서 정량적 성과 측정의 구조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다층적 평가지표의 지속적 정교화 필요
- 한국형 다원예술의 범주적 가변성을 전제로, 매년 환류 점검을 통한 전략의 유연한 조정 권고

지원체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사 : 다원예술

- 발 행 인 : 이범헌
 - 발 행 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주 소 :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 전 화 : 061-900-2100, 2200
 - 팩 스 : 061-900-2362
 - 홈 페 이 지 : www.arko.or.kr
 - 인 쇄 일 : 2026.06.30.
 - 발 행 일 : 2026.06.30.
 - 인 쇄 인 : 네오블루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